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267-01

기초생활권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생활환경, 고용 등 지표 조사 연구

A Research on Development and Analyzation of Indices
in Search of Directions of 'Basic Settlement Area' Policy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물자료실



0017566

농림수산물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267-01

기초생활권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생활환경, 고용 등 지표 조사 연구

A Research on Development and Analyzation of Indices
in Search of Directions of 'Basic Settlement Area' Policy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초생활권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생활환경, 고용 등 지표 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3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송	미	령
연구진:	김	용	렬
	성	주	인
	권	인	혜

요 약

기초생활권 대상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그 방향에 적합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초생활권의 토지이용 및 인구와 같은 기본적 현황, 생활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 정주여건, 산업구조 및 일자리 등 경제활동 여건 등이 어떠한지 그 현황을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정책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목표와 방향에 따른 성과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연구는 163개 기초생활권의 일반 현황, 생활환경 분야, 경제활동 여건 분야 등에 대하여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기초생활권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가 됨과 동시에 향후 정책성과 판단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초생활권 정책 현황, 지역 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가용 통계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 일반 현황, 생활환경 분야, 경제활동 여건 분야 등으로 나누어 세부 항목에 대해 검토하였다. 통계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선진국의 관련 통계자료 현황도 살펴 보았다.

우선, 일반 현황 자료 검토와 분석을 통해 특기할 만한 것은 주택의 노후년수와 공·폐가율 이외에 거주가능주택의 지표화에 대해 새로운 작업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생활권 정책 수행에 있어 기초생활권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그 중에서 농촌지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은 과제이다. 또한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소지역 통계 데이터나 인구이동의 다이내믹스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농촌지역 기초생활권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다.

둘째, 생활환경 여건을 나타낼 수 있는 가용 통계자료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지만, 시설 중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에의 접근성 등을 파악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민의 정

주 매력도 및 산업화의 가능성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어메니티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형성도 남은 과제이다. 기초생활권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의 기초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어메니티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서비스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목표의 하나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경제활동 여건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로 살펴본 농촌지역은 한마디로 침체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농가 수, 경지면적, 농림어업 관련 사업체 수 등과 같은 지표의 비중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1차산업 생산액과 판매액은 오히려 낮은 ‘저부가가치형’ 경제여건을 나타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여건을 개선시키느냐 하는 것이 농어촌산업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소득, 유형별 사업체의 창업·폐업 동향, 농가 단위의 2·3차산업 활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 조사와 구축이 요구된다.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많은 지역 대상의 사례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들의 지역통계 지표 현황도 살펴보았다.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통계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과 접근성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와 인구이동 관련통계와 물적 통계를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으로 얻을 수 있는 통계가 극히 미약한 편이다. 특히 소득, 서비스 시설 접근성, 지역사회 역량, 환경과 어메니티 등에 관한 소지역 통계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Research on Development and Analyzation of Indices in Search of Directions of 'Basic Settlement Area' Polic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 index system which includes general conditions, living environments and economic activities of 163 Basic Settlement Areas, and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Basic Settlement Areas by using relevant data collected and constructed through the research. The development and analyzation of various indices concerning the quality of life in Basic Settlement Areas is the basic process in order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and objectives and to evaluate policy achievements as well.

This report is mainly constituted of four contents. Firstly, Development of an index system that is composed of three groups, namely 'general conditions', 'living environments' and 'economic activities'. Each group consists of sub-groups which contain relevant indices that are essential in understanding of the actual conditions in Basic Settlement Areas.

Secondly, We analyze each index of three groups utilizing available data and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s of Basic Settlement Areas. In this process, Basic Settlement Areas are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of area in reflection of certain regional characteristics.

Thirdly, related indices of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in comparison with those of Korea. And implications helpful in developing Korean index system are obtained.

Finally, we draw the policy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Basic Settlement Area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rom the analyzation of developed indices.

Researchers: Mi-Ryung Song, Yong-Lyoul Kim, Ju-In Seong, In-Hye Kwon

Research Period: 2008.12 ~ 2009.3

E-mail Address: mrsong@krei.re.kr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4

제2장 기초생활권 진단 항목 구성 및 지표체계 구축

1. 진단 부문 및 진단 항목 구성 7
2. 지표체계 구축 17

제3장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 및 정책 방향

1. 기초생활권의 개요 23
2. 지표를 통해 살펴본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 29
3. 일반 현황 지표 분석결과의 종합 및 정책 방향 49

제4장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 및 정책방향

1. 지표를 통해 살펴본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 58
2. 생활환경 현황 지표 분석결과의 종합 및 정책 방향 106

제5장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 및 정책 방향

1. 지표를 통해 살펴본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 115
2. 지역경제 지표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 방향 154

제6장 외국의 농촌지역 관련 지표와 지역통계

1. 일반 현황 및 생활환경 관련 지표 160
2. 지역경제 관련 지표 165
3. 농촌지역지표와 관련된 지역통계의 국가간 비교 170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181
2. 농촌지역지표 개발의 성과와 과제 183

부록 1.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농촌통계 지표 구상 197

부록 2. PAIS 농촌발전지표구상 201

부록 3. HAY 리포트에서 제시한 농촌지역지표 203

부록 4. 호주 빅토리아(Victoria)주 커뮤니티 지표: 커뮤니티 웰빙 지표 구조 207

부록 5. KREI 지역통계 변수 구축 목록 211

부록 6. KREI-RDI, 140개 시·군 대상 214

부록 7. KREI-RDI, 163개 시·군 대상 216

참고문헌 217

표 차 례

제2장

표 2- 1.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의 진단 항목 구성	10
표 2- 2.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의 진단 항목 구성	12
표 2- 3.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의 진단 항목 구성	15
표 2- 4.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 지표체계	17
표 2- 5.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 지표체계	18
표 2- 6.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 지표체계	21

제3장

표 3- 1.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및 광역생활권	25
표 3- 2. 기초생활권 마을의 인구 현황(2005년)	30
표 3- 3. 기초생활권 마을의 가구 현황(2005년)	32
표 3- 4. 기초생활권 마을의 인구 현황과 변화 추이	33
표 3- 5. 과소화 마을 수의 증감 추세와 전망	36
표 3- 6. 기초생활권 인구·세대 과소화 마을 현황	37
표 3- 7. 기초생활권 연령대별 인구 수(2008년)	39
표 3- 8. 기초생활권 연령대별 평균 인구 구성비(2008년)	40
표 3- 9. 기초생활권 고령인구 현황	42
표 3-10. 기초생활권 농가 및 비농가 현황(2005년)	43
표 3-11. 기초생활권 경지면적 구성(2008년)	44
표 3-12. 기초생활권 경지면적 변화	45
표 3-13. 기초생활권 전입·전출 현황(2009년 2월)	48

제4장

표 4- 1. 노후주택 현황	59
표 4- 2. 상·하수도 보급률 현황	61
표 4- 3. 기초생활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소 수(2005년)	62
표 4- 4. 기초생활권 금융기관 개소 수(2005년)	63
표 4- 5. 읍·면 중심지의 서비스 항목별 사업체 수	66
표 4- 6. 서비스 항목별 읍·면당 평균 사업체 수	67
표 4- 7. 기초생활권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력(2005년)	69
표 4- 8. 기초생활권 마을의 보건·의료서비스 거리 응답 비율	70
표 4- 9. 기초생활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2005년)	73
표 4-10. 기초생활권 노인복지시설 현황(2005년)	74
표 4-11. 여성농업인센터 현황(2009.3 기준)	75
표 4-12. 기초생활권 다문화가정 현황(2007년)	76
표 4-13. 기초생활권 공공 교육서비스 현황(2005년)	78
표 4-14. 기초생활권 사설학원 현황(2005년)	79
표 4-15. 기초생활권 마을의 교육서비스 거리 응답 비율	81
표 4-16. 기초생활권 사설학원 현황(2005년)	83
표 4-17. 기초생활권 도서관 현황(2005년)	84
표 4-18. 기초생활권 지역문화복지시설 현황(2005년)	85
표 4-19. 기초생활권 지역축제 수 현황(2009년)	86
표 4-20. 기초생활권 공원 현황(2005년)	88
표 4-21. 기초생활권 체육시설 현황(2005년)	89
표 4-22. 대중교통 운행 빈도(2005년)	90
표 4-23. 기초생활권 도로포장률(2005년)	93
표 4-24. 기초생활권 도로면적 비율(2005년)	93
표 4-25. 읍·면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의 접근성(2008년)	96
표 4-26. 인근 대도시까지의 거리(2002년)	97
표 4-27. 기초생활권 인터넷 활용 현황(2000년)	99
표 4-28.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현황	101
표 4-29. 기초생활권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지 현황(2007년)	101

표 4-30. 기초생활권 녹지율 현황	103
----------------------------	-----

제5장

표 5- 1. 인구 규모 및 도시 접근성에 따른 유형별 해당 시·군 목록	117
표 5- 2. 기초생활권 취업자의 업종 분포	119
표 5- 3. 기초생활권 유형별 사업체 입지계수(LQ) 비교	120
표 5- 4. 기초생활권별 통근 유입 및 유출 인구 비교(2005년)	121
표 5- 5. 기초생활권별 통근 유입 및 유출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122
표 5- 6. 기초생활권 유형별 경지면적 비교(2005년)	123
표 5- 7. 경지 규모별 농가 분포(기초생활권 유형 간 비교)	123
표 5- 8. 기초생활권 유형별 농산물 매출액 높은 농가 분포	124
표 5- 9. 기초생활권 유형별 광공업 사업체 여건 비교	125
표 5-10. 기초생활권 유형별 서비스업 현황 비교	126
표 5-11. 기초생활권의 산업 부문별 평균 생산액 비교(2005년 기준)	128
표 5-12. 도시형 시·군에 대비한 농촌 기초생활권 GRDP의 상대적 크기	128
표 5-13. GRDP 중 각 산업 부문별 구성비의 시·군 유형 간 비교	129
표 5-14. 기초생활권 유형별 일반산업단지 가동 실태 비교	131
표 5-15. 기초생활권 유형별 농공단지 가동 실태 비교	131
표 5-16. 고용보험 대상 사업체 및 일자리의 분포 현황(2005년)	133
표 5-17. 기초생활권 유형별 종사자 지위 비교	133
표 5-18. 농업 연관활동에 참여하는 농가 현황 비교	134
표 5-19. 농가의 농업 연관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농축산물 판매액	136
표 5-20. 기초생활권 유형별 농어업 관련 사업체 현황 비교(2005년)	137
표 5-21. 농어업 관련 사업체 세부 업종별 현황 비교	138
표 5-22. 전국 대비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위상(2007년 기준)	140
표 5-23. 고창군 전체 사업체 및 복분자 가공업체 변화 추이	140
표 5-24. 고창군의 복분자 재배량의 확대 추이	142
표 5-25. 고창군의 농업 연관활동 참여 농가(2005년 농업총조사)	144
표 5-26.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생산액 집계(2008년 기준)	145
표 5-27. 고창군 지역내총생산에서 복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추정(2008년)	146

표 5-28. 화천군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액(농업 연관활동 여부에 따른 비교)	147
표 5-29. 화천군의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와 다원적 활동 수행	148
표 5-30. 화천군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판매 방법 비교	148
표 5-31. 화천군의 농촌마을 유형별 평균 농가소득	150
표 5-32. 주민들의 향후 소득 전망과 사업 계획(마을 유형별 비교)	150
표 5-33.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추이	151
표 5-34. 화천군의 지역축제와 연계한 마을별 축제 방문객 추이	152
표 5-35. 화천군 농가에서 수행하는 농촌관광활동 유형	152

제6장

표 6- 1.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생활환경 관련 지표	161
표 6- 2. PAIS의 생활환경 관련 지표	162
표 6- 3. HAY 리포트의 생활환경 관련 지표	163
표 6- 4. 호주 빅토리아주의 커뮤니티 웰빙 지표의 생활환경 관련 지표	164
표 6- 5.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지역경제 관련 지표	166
표 6- 6. PAIS의 지역경제 관련 지표	166
표 6- 7. HAY 리포트의 지역경제 관련 지표	167
표 6- 8. 호주 빅토리아주의 커뮤니티 웰빙 지표의 지역경제 관련 지표	168
표 6- 9.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인구와 인구가동)	170
표 6-10.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서비스 접근)	171
표 6-11.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주택)	172
표 6-12.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건강과 의료)	173
표 6-13.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교육)	174
표 6-14. 영국 잉글랜드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농촌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	174
표 6-15.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토지이용)	175
표 6-16.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환경)	176
표 6-17.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소득, 부, 소비)	177
표 6-18.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고용)	178
표 6-19.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기업과 기업가)	179

제7장

표 7- 1. 기초생활권 유형별 경지면적 비교	185
표 7- 2. 농업 관련 사업체의 특화계수 비교	186
표 7- 3. 농림어업 관련 사업체 수 비교	186
표 7- 4. 기초생활권 유형별 시·군 분포	187
표 7- 5. 보전용도 지목의 구성 비율	188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연구의 흐름도	6
------------------------	---

제2장

그림 2- 1. 지표화 과정의 개념도	9
----------------------------	---

제3장

그림 3- 1. 행정구역별 인구 비중(2005년)	26
그림 3- 2. 농어촌 기초생활권 유형과 범위	27
그림 3- 3. 인구 및 가구 변화 추이(1995-2015)	33
그림 3- 4. 인구 과소화 마을 분포	36
그림 3- 5. 기초생활권 연령대별 평균 인구 구성비(2008년)	41

제4장

그림 4- 1. 기초생활권 마을에서 약국까지의 거리 응답 비율	71
그림 4- 2. 기초생활권 마을에서 병원까지의 거리 응답 비율	71
그림 4- 3. 기초생활권 마을에서 어린이집까지의 거리 응답 비율	82
그림 4- 4. 기초생활권 마을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응답 비율	82

제5장

그림 5- 1. 고창군의 다양한 복분자 가공업체 구성	141
그림 5- 2. 복분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복분자 가공제품	141
그림 5- 3.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구조	143
그림 5- 4. 마을별로 분포하는 도농교류 시설 유형	153

제7장

그림 7- 1. 보전용도 지목의 비율이 높은 읍·면 분포 188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08년 들어선 새 정부는 지역정책의 세 가지 틀로 4대 ‘초광역벨트’, 5+2 ‘광역경제권’, 163개 ‘기초생활권’ 정책을 채택하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 초광역벨트: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4대 초광역권 개발(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등)
 - 광역경제권: 16개 시·도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 7개(5+2)로 묶어 광역경제권 형성 촉진(지역경쟁력 제고 중심)
 -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 중심도시와 농어촌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삶의 질이 충족되는 개발 지향(기본적 삶의 질 보장 중심)
- 기초생활권 정책은 지방분권적·지역통합적 개발 전략의 근간인 동시에 광역경제권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상호보완적 정책이다.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자칫 소외될 우려가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대도시를 제외한 163개 기초 지자체(자치구 제외한 시·군)를 대상으로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휴양 거점화, 지역연고자원의 2·3차산업 융합 등 소득·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한다.
- 특히 기초생활권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그간 농촌정책이 대상으로 삼았던 140개 도농복합시와 군을 포함한다.

기초생활권의 개념

- 기초생활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일자리, 환경 등 기본적인 필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 공간단위”라고 정의
- 공간적 측면에서는 초광역개발권 -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의 3층(tier) 권역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기초 공간으로서 163개 시·군
-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이 개발의 골격을 세우는 권역이라면 기초생활권은 나머지 여백을 채우는 권역으로 이해 가능
- 사업적 측면에서 기초생활권은 생활여건과 경제여건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된 기초 사업을 담당
 -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이 중대형 전략사업(macro or mezzo-projects)에 치중하는 것에 비해 기초생활권은 소규모 생활형 사업(micro-projects)에 중점
 - 주로 인간 정주에 필요한 생산, 생활, 여가, 교육, 의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사업이 중심

-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교육·문화·복지 등 총체적 생활공간으로서의 기초생활권을 재인식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개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로 구성되는 기초생활권들은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
 -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농산어촌 기초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67개 군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초과)에 진입한 가운데, 농가 소득 감소, 기초 생활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군 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은 시 지역의 약 1/6 수준
 - 종합병원(93.6%), 병상수(89.5%), 의료인력(88%) 등 서비스 도시 집중
 - 상·하수도 보급률('05): 군(54.7%/36.1%), 도시(98.1%/89.9%)
 - 지방 중소도시도 인구·정주여건·경제력·재정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쇠퇴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중소도시와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 기초생활권 대상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그 방향에 적합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초생활권의 토지이용 및 인구와 같은 기본적인 현황, 생활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 정주여건, 산업구조 및 일자리 등 경제활동 여건 등이 어떠한지 그 현황을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투입해야 할 부분들을 밝혀내고, 정책 투입에 따른 성과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연구는 163개 기초생활권의 일반 현황, 생활환경 분야, 경제활동 여건 분야 등에 대하여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초생활권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가 됨과 동시에 향후 정책 성과 판단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 다만, 163개 기초생활권 전체에 대한 지표를 검토하더라도 농촌정책의 관점에서 140개 도농복합시와 군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2.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 주요 연구 범위

-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 대상
 -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으로 유형화
 -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
- 일반 현황, 생활환경 현황, 경제여건 현황 파악
- 선진국의 관련 지표 검토

□ 주요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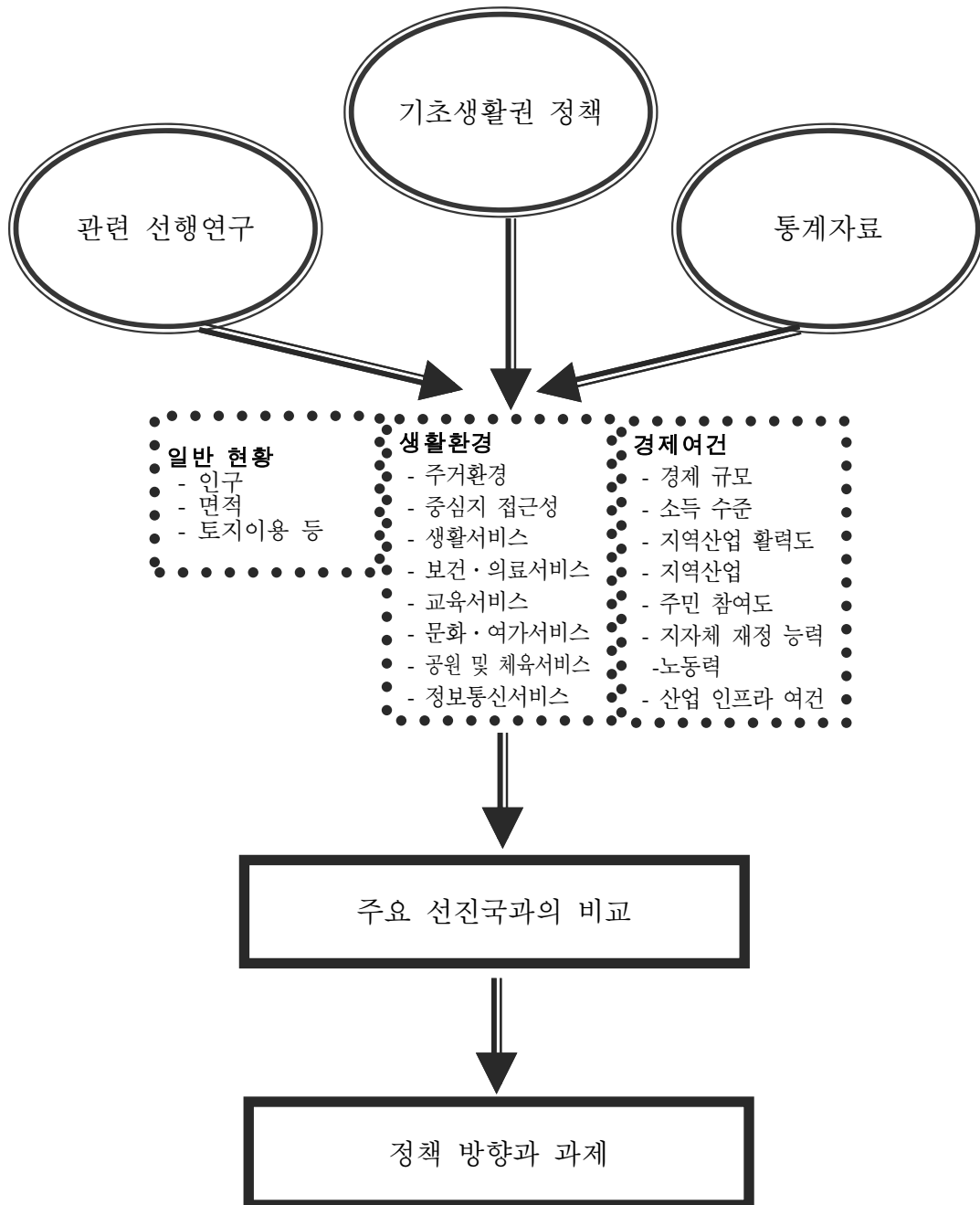
- 기초생활권의 일반 현황
 - 인구, 면적, 토지이용 등
- 기초생활권의 생활환경 현황
 - 마을의 주거 환경, 중심지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여건 등
 - 일상적 생활서비스(시설)
 - 주요 보건·의료서비스(시설)
 - 공공 및 민간 교육서비스(시설)
 - 문화·여가서비스(시설)
 - 공원 및 체육서비스(시설)
 - 정보통신기술(ICTs) 등
- 기초생활권의 경제여건 현황
 - 지역의 경제 규모

- 지역의 소득 수준
 - 지역 산업의 활력 정도
 - 지역 내 입지한 산업과 지역(주민)과 연관 정도
 - 지자체 재정 능력
 -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노동력 현황
 - 지역의 산업 인프라 여건 등
- 선진국의 생활환경, 경제여건 지표
 - 기초생활권 지역 진단을 위한 통합 지표 제안과 추가 지표 조사 제안

□ 주요 연구 방법

- 선행연구 검토
- 통계자료 수집, 분석
- 사례연구
 - 통계자료로 파악이 안 되는 영역에 대하여 별도 사례 조사를 통한 보완
- 전문가 간담회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기초생활권 진단 항목 구성 및 지표체계 구축

1. 진단 부문 및 진단 항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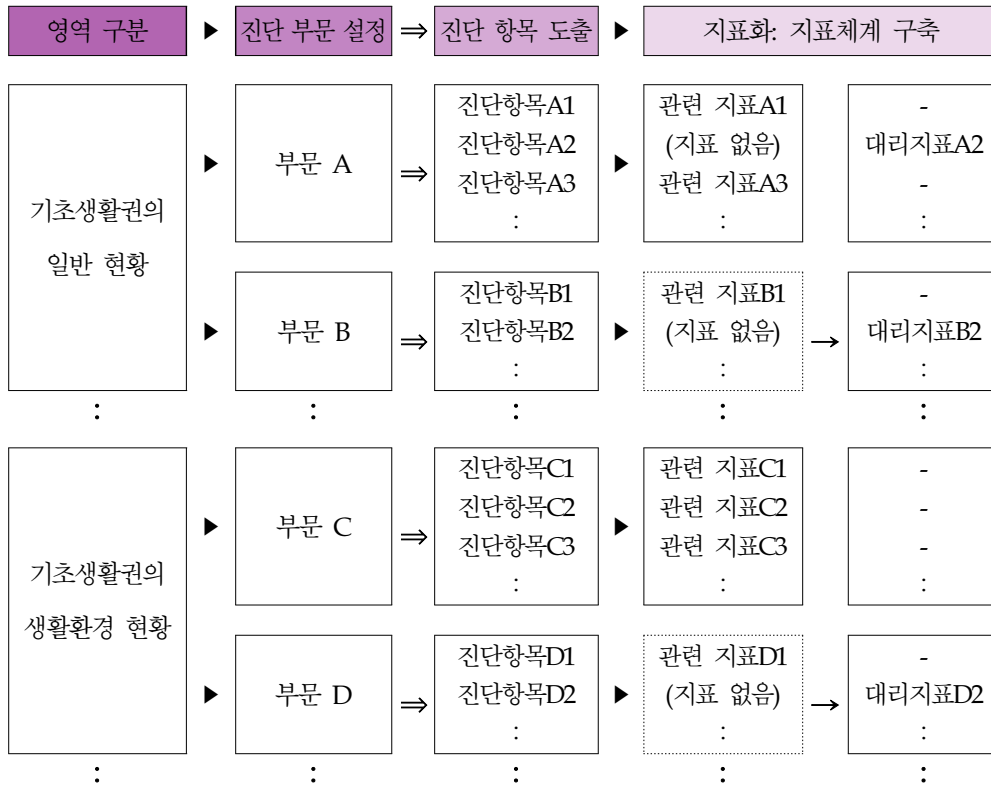
1.1. 진단 항목 구성 및 지표화 과정

- 기초생활권의 제반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권 정책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부문들과 그 구체적 하위 항목들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이 체계적 진단 항목을 구성하는 작업은 기초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서 기초생활권 각 지역의 현재 여건은 어떠한지, 향후 정책적으로 설정될 목표치(目標値)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달성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다시 말해, 기초생활권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이들 지역에서 달성되고 있는 생활환경 및 경제활동 여건 등 현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수립되는 정량적 정책 목표와의 비교를 통해 각 시점에서의 바로미터(barometer)

로 활용할 수 있다.

- 체계적으로 기초생활권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예컨대, 서비스 기준 (services standard) 설정과 같이 정량적 정책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책적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달성의 시기를 계획·관리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권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크게 ① 기초생활권의 일반 현황, ② 기초생활권의 생활환경 현황, ③ 고용구조 등 기초생활권의 경제활동 여건 등과 같이 주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 기초생활권 진단의 부문들과 각 부문에 대한 하위의 진단 항목들을 구성한 후, 각 진단 항목들을 지표로 나타내는 지표체계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다.
 - 관련 통계자료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지표로서 활용하고, 관련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지표를 설정하였다.
 - 사용 가능한 통계자료의 부재 또는 불완전성 등으로 정확한 지표와 대리 지표가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례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향후 관련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세 가지 영역 구분 모두에 대하여 진단 부문 설정 → 하위의 진단 항목 도출 → 지표체계 구축(진단 항목 지표화)하는 과정을 다음의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1. 지표화 과정의 개념도



1.2. 부문별 진단 항목 구성

□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

- 기초생활권과 관련한 기초적 정보로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제반 활동을 담당할 인구 및 가구, 면적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현황을 기초생활권에 속하는 마을 단위와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표 2-1 참조).

- 마을 단위에서는 마을별 인구 및 가구 수, 인구 및 가구의 변화 추이, 과소화마을 분포 등을 파악하여, 행정리라는 세밀한 공간 단위에 대하여 인구와 가구 현황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 시·군 단위에서는 연령대별 인구 구성, 고령인구 수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인구 유·출입과 같이 인구 이동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도록 최근 도시로부터 이주한 가구 수, 유출인구에 대한 유입인구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농촌적 특성을 드러내는 농가 및 비농가 수, 경지면적 현황을 함께 고려하였다.

표 2-1.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의 진단 항목 구성

진단 항목 구성을 위한 질문	▶ 진단 부문	진단 항목
기초생활권 마을의 전반적 현황 즉, 마을 분포 및 인구 등은 어떠한가?	⇒ 마을 단위 현황	- 마을별 인구 수 - 마을별 가구 수 - 인구 및 가구 변화 추이 - 마을별 반 분포 - 과소화마을 분포
기초생활권 시·군의 인구 및 가구 구성은 어떠한가?	⇒ 시·군 단위 현황	- 연령대별 인구 구성 - 고령인구 수 - 농가 및 비농가 수 - 경지면적 - 최근 도시로부터 이주한 가구 수 - 유출인구에 대한 유입인구

□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

-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에서는 주거 및 정주환경,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이용 여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통 여건 및 중심지 접근성, 정보통신기술 이용 여건, 경관 및 어메니티 여건 등을 살펴본다(표 2-2 참조).

- 특히 기초생활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농촌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 수준에서의 각종 서비스 공급 및 접근성 현황을 고려한다.
- 주거 및 정주환경 부문에서는 노후주택·빈집 등 주택 상태별 현황과 상·하수도 시설 및 환경처리시설 현황을 파악한다.
 - 거주가능주택 개념을 차용하여 주택 현황 파악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추가한다.
- 일상생활에 있어 기초적인 서비스의 이용 여건으로서, 상가·은행·우체국 등과 같은 일상적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공원 및 체육서비스 등의 서비스 공급 수준 및 접근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농촌지역의 경우 각종 서비스가 농촌중심지 등 특정 지역에 집결되어 있기 쉽고, 물리적 이동 거리가 길다는 특성으로 인해 도시지역과는 달리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통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마을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성 정도 및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고려한 도로 기반 현황 등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 기초생활권에서의 서비스 이용은 공간적으로 위계를 가지는 각급의 중심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마을에서 주요 중심지까지의 접근성을 살펴본다.
 -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 및 시·군청 소재지로의 접근성,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인근 중심도시로의 접근성을 파악한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초생활권으로의 각종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시도될 수 있다. 향후 기초생활권 정책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s) 이용 여건 현황을 파악한다.

- 기초생활권, 특히 농촌지역의 다원적 기능 강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경관 및 어메니티 여건 현황을 살펴본다.

표 2-2.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의 진단 항목 구성

진단 항목 구성을 위한 질문	▶	진단 부문	하위 진단 항목
주거 및 정주여건은 어떠한가?	⇒	주거 및 정주환경	- 노후주택 현황 - 빈집 현황 - 거주가능주택 현황 - 상·하수도 시설 현황 - 환경처리시설 현황
기초적 서비스의 이용 여건은 어떠한가?	⇒	[기초서비스 이용 여건]	
1. 일상용품 구매 등 일상적 생활서비스의 이용 여건은 어떠한가?	⇒	일상적 서비스 여건	- 은행 등 금융서비스 현황 - 간단한 일용품, 식료품, 공산품 등 - 우체국 - 이·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등
2. 주요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여건은 어떠한가?	⇒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 보건·의료기관 수 - 보건·의료기관 병상 수 - 의료인력 수 - 보건·의료서비스로의 접근성 -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3. 사회안전망 구축 정도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건은 어떠한가?	⇒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여건	- 기초생활 수급 현황 - 노인복지시설 현황 -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 다문화가정 현황
4. 공공 및 민간 교육서비스의 이용 여건은 어떠한가?	⇒	교육서비스 여건	- 교육서비스로의 접근성 [공공교육서비스] - 각급 학교 수 - 각급 교원당 학생 수 [민간교육서비스] - 사설학원 수 - 사설학원 강사 수
5. 문화·여가서비스의 이용 여건은 어떠한가?	⇒	문화·여가 서비스 여건	- 공연장, 전시실(장) 현황 - 도서관 현황 - 지역문화복지시설 현황 - 주민 모임장소: 현황 - 지역문화축제 현황
6. 공원 및 체육서비스의 이용 여건은 어떠한가?	⇒	공원 및 체육서비스 여건	- 공원(도시공원, 자연공원) 현황 - 체육시설 현황

표 2-2.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의 진단 항목 구성(계속)

진단 항목 구성을 위한 질문	▶	진단 부문	하위 진단 항목
교통 이용 여건은 어떠한가?	⇒	교통 여건	- 마을별 대중교통 운행 빈도 - 마을에서 버스승차장까지의 소요시간 - 도로 기반
주요 중심지까지의 접근성은 어떠한가? (거리 및 소요시간)	⇒	중심지 접근성	-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로의 접근성 - 시·군청 소재지로의 접근성 - 인근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정보통신기술 이용 여건은 어떠한가?	⇒	정보통신기술(ICTs) 이용 여건	- 컴퓨터 활용 현황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용) 현황 - 마을 단위 홈페이지 개설
경관 및 어메니티 여건은 어떠한가?	⇒	경관 및 어메니티 여건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역 - 녹지공간 보유 현황 - 산림휴양시설 현황

□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

- 경제활동 여건에서는 기초생활권 지역에서의 고용구조 등 각종 경제활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지역의 산업구조와 산업부문별 발전 수준, 그리고 특히 농어촌산업의 발전 수준을 살펴본다(표 2-3 참조).
- 지역경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의 산업구조에서는 업종별로 취업구조,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업종별 특화계수(LQ)를 파악한다.
- 산업 부문에 따른 발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2·3차 산업별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매출액 및 부가가치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농림어업 현황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매출액 규모별 농·어가 분포를 살펴본다.

- 지역경제의 활력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창업 및 폐업 사업체 현황과 신규 고용 창출 수,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과 함께 산업·농공단지의 분양률과 가동률 현황을 파악한다.
- 지역경제의 변화 추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를 통해 성장 업종과 쇠퇴 업종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사업체 총량 변화 추이 분석과 함께, 연도별 창업·폐업 사업체를 업종별로 파악한다.
- 고용의 질적 측면으로서,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 비율, 그리고 주민들의 직업 구조를 통해 지역의 고용 특성을 파악한다.
- 경제활동 장소로서의 지역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즉 지역이 경제활동 공간의 성격을 갖는지 혹은 주거공간의 성격을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통근 유입 및 통근 유출 인구, 그리고 전체 취업자에 대한 이러한 인구의 비중을 살펴본다.
- 농가경제의 다각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농업 외 소득 기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공업과 농촌관광에 참여하는 농가 비율을 통해 살펴본다.
- 특별히 농어촌산업의 발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농어업 관련 사업체 현황과 향토산업의 현황, 농어촌관광 현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농어업 부문 사업체 현황으로는 농림어업, 농림수산물 가공업,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업 부문의 사업체 수와 특화계수(LQ)를 파악한다.
 - 향토산업과 전후방 연관 활동 현황을 알아보고자, 향토산업 사업체 현황과 함께 원료 생산에 참여하는 개인·단체 수, 생산된 향토산업 제품의 유통, 판매 등 전방연계 부문의 활동 업체·단체 수를 파악한다.
 - 농어촌관광 현황에서는 농촌 체험마을 수, 농어촌에 소재한 민박 및 펜션 수, 농산물 직거래나 체험 프로그램 참여 농가 수를 파악한다.

표 2-3.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의 진단 항목 구성

진단 항목 구성을 위한 질문	▶	진단 부문	하위 진단 항목
지역경제 특성은 어떠한가?	⇒	지역의 산업구조	- 업종별 취업구조(인구주택센서스) -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사업체 통계) - 업종별 특화계수(LQ)
산업 부문별 발전 수준은 어떠한가?	⇒	[1·2·3차 산업 발전 정도]	
1. 농림어업 발전 수준은 어떠한가?	⇒	농림어업 현황	- 농산물 매출액 규모별 농가 분포 - 수산물 매출액 규모별 어가 분포 ※ 농업총조사 및 어업총조사 자료 활용
2. 광업·제조업 발전 수준은 어떠한가?	⇒	광업·제조업 현황	- 사업체 및 월평균 종사자 수, 급여액, 출하액, 부가가치 → 업종별 현황 비교 ※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광공업 조사 활용
3. 서비스업 발전 수준은 어떠한가?	⇒	서비스업 현황	-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 서비스업 총조사 자료 활용
지역경제의 활력도가 높은가?	⇒	지역경제 활력도	- 연도별 창업 및 폐업 사업체 현황 - 연도별 신규 고용 창출 수 -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률과 가동률
지역경제 변화 추이가 어떠한가?	⇒	성장 업종과 쇠퇴 업종	- 업종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 사업체 총량 변화 추이 분석과 함께 연도별 창업·폐업 사업체를 업종별로 파악
지역의 고용 특성은 어떠한가?	⇒	고용의 질	-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 비율(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료 활용) - 주민들의 직업 구조(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 장소로서 지역 특성은 어떠한가?	⇒	주거와 직장의 위치	- 통근 유입인구 및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 통근 유출인구 및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 지역이 경제활동공간의 성격을 갖는지 주거공간의 성격을 갖는지 파악
농가경제의 다각화 정도는 어떠한가?	⇒	농업 외 소득 기반	- 농산물 가공업 참여 농가 비율 - 농촌관광 참여 농가 비율 ※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기초로 파악하며, 해당 농가 수를 겸업 형태(1종, 2종)별로 구분해서 집계

표 2-3.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의 진단 항목 구성(계속)

진단 항목 구성을 위한 질문	▶	진단 부문	하위 진단 항목
농어촌산업 발달 정도는 어떠한가?	⇒	[농어촌산업 발전 정도]	
1. 농어업 관련 사업체 현황은 어떠한가?	⇒	농어업 부문 사업체 현황	- 농림어업, 농림수산물 가공업,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업 부문 사업체 수 및 특화계수(LQ) ※ 사업체통계 원자료 활용
2. 향토산업 현황은 어떠한가?	⇒	향토산업 및 전후방 연관 활동 현황	- 향토산업 사업체 현황(업체 수, 종사자 수) - 원료 생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농가나 작목반, 영농조합 등) 수 - 생산한 향토산업 제품의 전방연계 부문 활동(유통, 판매 등) 업체나 단체 수 ※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파악
3. 농어촌관광 현황은 어떠한가?	⇒	농어촌관광 현황	- 농어촌에 소재한 민박 및 펜션 수 - 농산물 직거래나 체험 프로그램 참여 농가 - 농촌 체험마을 수 ※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하되, 이 중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농어촌관광에 참여하는 농가 현황도 집계

2. 지표체계 구축

- 기초생활권의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 생활환경 현황, 경제활동 여건 등 3가지 영역에 대하여 앞서 도출한 각 부문의 진단 항목들을 토대로 지표화(指標化)하였다.
- 설정된 지표 및 대리지표에 대하여 현재 사용가능한 데이터를 매칭(matching)하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향후 신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지표들을 언급하였다.

- 대다수의 지표에서 ‘기초생활권’ 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각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항목에 따라서는 보다 세밀하게 읍·면 내지 마을, 반 단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

□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

-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 진단 부문의 각 진단 항목과 그에 대한 지표 설정을 <표 2-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4.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 지표체계

부문	진단 항목	지표/대리지표	데이터		
			공간단위	출처	주기
기초생활권 마을 단위 일반 현황	마을별 인구 수	행정리별 인구 수	행정리	마을별 인구 수 · 가구 수 데이터*	1회
	마을별 가구 수	행정리별 가구 수	행정리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인구 및 가구 변화 추이	◦ 인구 및 가구 증감 ◦ 과소화마을의 증감	행정리	마을별 인구 수 · 가구 수 데이터*	1회
	마을별 반 분포	행정리별 반 분포	행정리	- (신규조사 필요)	-
	과소화마을 분포	과소인구마을(행정리) 수, 과소가구마을(행정리) 수	행정리	마을별 인구 수 · 가구 수 데이터*	1회
기초생활권 시·군 단위 일반 현황	연령대별 인구 구성	연령대별 인구 수	시군	인구주택총조사	5년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 수/비율	시군	인구주택총조사	5년
				주민등록인구	1년
	농가 및 비농가 수	농가 수	시군	농림어업총조사	5년
		비농가수 (전체 가구 수 - 농가 수)	시군	- (대리지표 활용)	-
	경지면적	경지면적	시군	경지면적조사	1년
	최근 도시로부터 이주한 가구 수	5년 전에 대하여 도시로부터 이주한 가구 수	시군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5년
유출인구에 대한 유입 인구	전출자 대비 전입자 비율	시군 (읍면)	인구이동통계 (읍면 행정자료 필요)	매월	

□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

-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 진단 부문의 각 진단 항목과 그에 대한 지표 설정을 <표 2-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5.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 지표체계

부문	진단 항목	지표/대리지표	데이터		
			공간 단위	출처	주기
주거 및 정주 환경	노후주택 현황	노후주택 수/비율 ※1980년 이전 주택 수	시군 (*마을)	인구주택총조사	5년
	빈집 현황	공폐가 수	시군 (*마을)	시군 단위 행정자료	-
	거주가능주택 현황		시군	인구주택총조사	5년
	상·하수도 시설 현황	상수도 보급율	시군 (읍면)	시도통계연보	1년
		하수도 보급율	시군 (읍면)	시도통계연보	1년
	환경처리시설 현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수	시군	시도통계연보	1년
		쓰레기 수거지 인구율, 쓰레기 수거율	시군	시도통계연보	1년
		생활폐기물 매립지 수, 면적, 매립 용량	시군	시도통계연보	1년
일상적 서비스 여건	금융서비스(시설) 현황	금융기관 수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특수은행 및 기타은행	시군	시도통계연보	1년
	간단한 일용품, 식료품, 공산품 등	읍면 소재지의 주요 생활 서비스 사업체 수	읍면 (해당 행정리)	※연구원 전화번호부 구축자료(47개 시군)	- ('98, '08)
	우체국	읍면 소재지의 우체국 수	읍면 (해당 행정리)	※연구원 전화번호부 구축자료(47개 시군)	- ('98, '08)
	이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등	읍면 소재지의 해당 사업체 수	읍면 (해당 행정리)	※연구원 전화번호부 구축자료(47개 시군)	- ('98, '08)

주: 공간 단위에서 (*) 표시는 현재 사용가능한 데이터 외에 괄호 안의 행정구역까지의 데이터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표 2-5.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 지표체계(계속1)

부문	진단 항목	지표/대리지표	데이터		
			공간 단위	출처	주기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보건·의료기관 현황	보건·의료기관 수	시군	시도통계연보	1년
		보건·의료기관 병상 수	시군	시도통계연보	1년
	의료인력 현황	의료인력 수	시군	시도통계연보	1년
	보건·의료서비스로의 접근성	· 마을-약국 간 거리 · 마을-보건소 간 거리 · 마을-병원(의원) 간 거리 · 마을-종합병원 간 거리	행정리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응급의료서비스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행정리	- (신규조사 필요)	-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여건	기초생활 수급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수	시군 (읍면)	시도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년 -
	노인복지시설 현황	노인복지시설 수	시군 (읍면)	시도통계연보 읍면 단위 행정자료	1년 -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여성농업인센터 수	시군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
	다문화가정 현황	다문화가정 수 ※국제결혼외국인 (국적취득+국적미취득)	시군 (읍면)	행정안전부 행정자료	-
교육서비스 여건	공공 교육서비스 현황	각급 학교 수	시군 (읍면)	시도통계연보	1년
		※유치원, 초·중·고, 대학		시도교육통계연보	1년
		각급 교원당 학생 수	시군	시도교육통계연보	1년
	민간 교육서비스 현황	사설학원 수	시군	시도교육통계연보	1년
		사설학원 강사 수	시군	시도교육통계연보	1년
교육서비스로의 접근성	마을-각급 교육기관까지의 거리	행정리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문화·여가 서비스 여건	공연장 및 전시실(장) 현황	공연장 수	시군	시도교육통계연보	1년
		전시실(장) 수 ※미술관, 화랑	시군	시도교육통계연보	1년
		영화관 수	시군	시도교육통계연보	1년
	도서관 현황	도서관 수 ※도서관, 소규모도서관(작은도서관, 마을문고 등)	시군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 (‘00, ‘05, ‘06)
	지역문화복지시설 현황	지역문화복지시설 수 ※시·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시설	시군	시도교육통계연보	1년
	주민 모임장소	마을회관, 경로당, 민민회관 분포	행정리	읍면(리) 단위 행정자료	-
	지역문화축제 현황	지역문화축제 수, 방문객 수	시군	- (신규조사 필요)	-

표 2-5.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 지표체계(계속2)

부문	진단 항목	지표/대리지표	데이터		
			공간 단위	출처	주기
공원 및 체육서비스 여건	공원 현황	도시공원 수, 면적	시군 (읍면)	시도통계연보	1년
		자연공원 수, 면적	시군 (읍면)	시도통계연보	1년
	체육시설 현황	신고체육시설 수	시군 (읍면)	시도통계연보	1년
교통 여건	마을별 대중교통 운행 빈도	시내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여객선 운행 빈도 ※1일 편도 운행 횟수	행정리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마을에서 버스승차장 까지의 소요시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버스 정류소까지의 거리	행정리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도로 기반	도로포장률	시군	시도통계연보	1년
		도로면적 비율	시군	시도통계연보	1년
중심지 접근성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 로의 접근성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행정리	- (신규조사 필요)	-
	시·군청 소재지의 접근성	읍·면에서 시·군청 소재지까 지의 거리, 소요시간	읍면	- (신규조사 필요) ※연구원 구축자료 (1,418개 읍면)	-
	인근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인근 대도시와 시·군 간 거리	시군	- (신규조사 필요) ※연구원 구축자료	-
정보통신 기술(ICTs) 이용 여건	컴퓨터 활용 현황	농업과 관련한 컴퓨터 활용 농가 수	행정리	농림어업총조사	5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용) 현황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마을 수	행정리	- (신규조사 필요)	-
		인터넷전용회선 보유가구 수	시군	인구총조사 ※일반시, 대도시	- (‘00)
		인터넷활용인구 수	시군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인구’ 통계청조사 ※도농복합시, 군	- (‘00)
마을 단위 홈페이지 개설	마을 단위나 작목반, 어촌계 단 위 홈페이지 개설 마을 수	행정리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5년	
경관 및 어메니티 여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역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사업 수, 면적	행정리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1년
	녹지공간 보유 현황	녹지율	시군	시도통계연보	1년
	산림휴양시설 현황	산림휴양시설 수, 면적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수목 원, 산림박물관	시군 (읍면)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내부자료	1년, -

□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

-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 진단 부문의 각 진단 항목과 그에 대한 지표 설정을 <표 2-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6.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 지표체계

부문	진단 항목	지표/대리지표	데이터		
			공간 단위	출처	주기
지역경제 특성	지역의 산업구조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시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년
		업종별 취업구조	시군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5년
		업종별 입지계수(LQ)	시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년
	경제활동 중심으로 지역 여건	· 상주인구 대비 통근유입인구 비율 · 취업인구 대비 통근유출인구 비율	시군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5년
산업 부문별 발전 수준	농림어업 발전도	농산물 매출액 규모별 농가 분포	시군 (읍면)	농업총조사	5년
		수산물 매출액 규모별 농가 분포	시군 (읍면)	어업총조사	5년
	광공업 발전도	광공업 업체 수, 월평균 종사자 수, 급여액, 출하액, 부가가치	시군	광업제조업통계조사	1년
	서비스업 발전도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매출액	시군	서비스업총조사	5년
지역경제 활력	사업체 창업 및 폐업	연도별 창업 및 폐업 사업체 수	시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시자료)	1년
	신규 고용	연도별 신규 고용 창출 수	시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시자료)	1년
	산업단지 가동 현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가동률	시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1년 (분기)
지역경제 변화	성장 부문과 쇠퇴 부문	업종별 창업 및 폐업 사업체 수	시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시자료)	1년

표 2-6.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 지표체계(계속)

부문	진단 항목	지표/대리지표	데이터		
			공간 단위	출처	주기
고용 여건	고용의 질적 수준	주민들의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	시군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5년
		고용보험 가입 업체 비율	시군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1년
농가경제 다각화 수준	농가의 농업 연계활동 참여도	도농교류, 관광, 가공 등 연관활동에 참여하는 농가 비율	시군 (읍면)	농업총조사	5년
농어촌의 내발적 산업 발전도	농어업 부문 사업체 활동	농어업 부문 사업체 수 및 입지계수(LQ)	시군 (읍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시자료)	1년
	향토산업 발전 수준	향토산업 부문 사업체 수 변화 추이	시군 (읍면)	지자체 행정자료 및 현지조사	-
		향토산업 전후방 연관활동 참여 자 현황(농가, 작목반, 법인 등)	시군 (읍면)	지자체 행정자료 및 현지조사	-
	농어촌관광 발전 수준	농어촌 소재 민박, 펜션 수	시군 (읍면)	지자체 행정자료 및 현지조사	-
		농산물 직거래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가구 수	시군 (읍면)	지자체 행정자료 및 현지조사	-
농어촌체험마을 수		시군 (읍면)	정부 및 지자체 행정자료	-	

제 3 장

기초생활권의 일반 현황 및 정책 방향

1. 기초생활권의 개요

1.1. 기초생활권 정책

- 새 정부의 3대 공간 전략은 4대 초광역권 벨트, 5+2의 7대 광역경제권, 그리고 163개의 시·군을 공간 범위로 하는 기초생활권 정책이다.
 -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 단위의 지역개발
 - 광역경제권: 16개 시·도에 대하여 7개(5+2)경제권을 형성·촉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초광역권 벨트: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4개 초광역권 개발(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 초광역개발권이 국가 주도로, 광역경제권이 시·도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메가 프로젝트(Mega Project)로서 효율성 위주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권역인 반면, 기초생활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 단위의 정주 및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계획권역이라 할 수 있다.

- 다시 말해, 기초생활권은 생활여건과 경제여건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정책 영역이다.
 - 기초생활권은 소규모의 생활형 사업(micro-projects)에 중점을 두어, 주로 인간 정주에 필요한 생산, 생활, 여가, 교육, 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며, 주로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사업이 투입되게 된다.
- 공간적 측면에서 기초생활권은 국토공간의 정주체계상 하부구조를 형성하며 지역발전의 최종 수혜대상이 된다.
 - 기초생활권은 ‘초광역개발권 - 광역경제권 - 기초생활권’의 3층(tier) 권역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기초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2. 기초생활권의 개념과 범위

□ 기초생활권의 개념

- 기초생활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일자리, 환경 등 기본수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정주(human settlement)의 기본적인 공간 단위이다.
- 기초생활권은 하나의 중심지로부터 일정 수준 근접한 지역을 범주로 하여, 주민들의 기본수요 충족을 담당하는 중심지와 그 배후지로 이루어진 정주생활권(1차 생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기초생활권은 소도읍 또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지역생활권 및 광역생활권은 대도시나 거점도시를 상위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기초생활권을 포함한 상위계층의 생활권을 의미한다.

표 3-1.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및 광역생활권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광역생활권
163개(시, 군)	-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 25 • 도농복합시: 52 • 군: 86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연계권역 형성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자료: 송미령 등, 2008c.

- 정책적 측면에서는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 여건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여건이 하나의 완결된 생활공간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권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활권 내의 생활여건과 경제여건의 충족을 자율적·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이다.¹

□ 기초생활권의 정의와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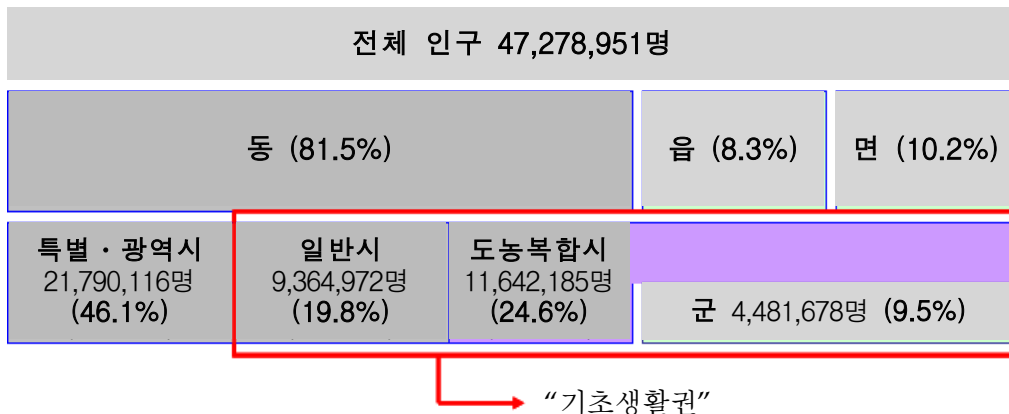
- 입법예고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

¹ 행정구역이란 그 자체가 오랜 시간을 거쳐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생활권에 근거를 두고 진화한 산물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도·농통합이 요구되는 시·군간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52개 도농복합시(40개 도농통합시)가 탄생하였다(대신 읍이 '94년 178개에서 '08년 212개로 증가).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정주생활권에 가장 근접한 계획권역이라 할 수 있다(송미령 등, 2008c).

하기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 중 시·군(광역시에 속한 군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과 제9조에 따른 기초생활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둘 이상의 시·군을 말한다.

- 기초생활권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163개 시·군을 말한다. 161개 시·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 행정시를 포함하여 ‘161+2’를 기초생활권으로 본다.
 - 163개의 시·군은 일반시 25개, 도농복합시 52개, 군 86개로 구성된다.
- 2005년 기준 기초생활권 인구는 25,488,835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53.9%가 기초생활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기초생활권 거주 인구 중 각각 일반시에 약 19.8%, 도농복합시에 24.6%, 군에 9.5%가 거주하고 있다.

그림 3-1. 행정구역별 인구 비중(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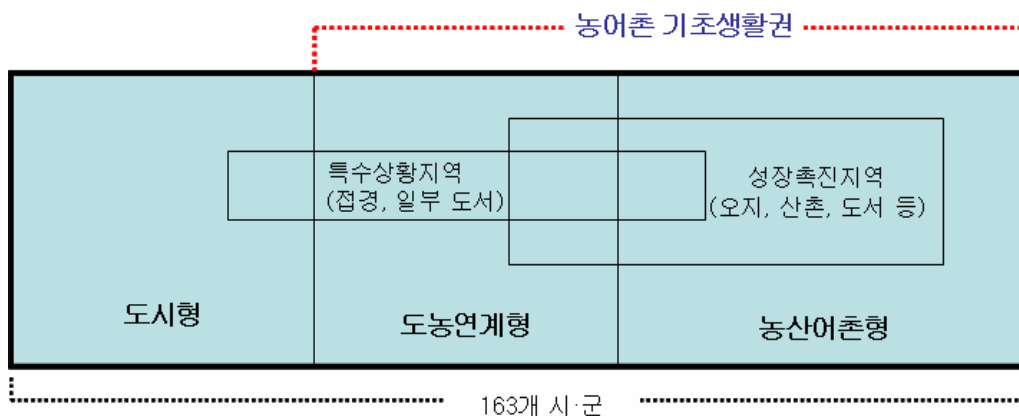


주: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포함된 5개 군(웅진군, 강화군,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은 ‘군’으로 분류하여 집계함.
 자료: 송미령 등. 2008c.

□ 기초생활권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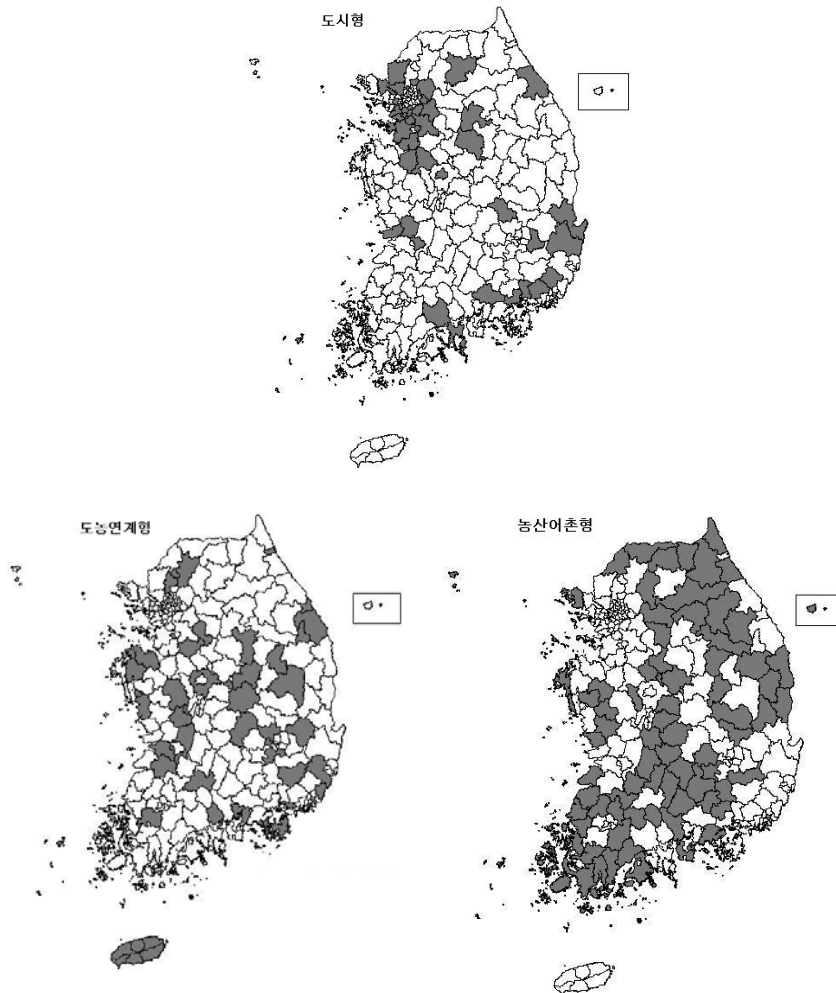
- 기초생활권 163개의 시·군 행정구역을 말함으로 행정구역 위계에 따라서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이 때 일반시를 제외한 도농복합시와 군은 사실상 농촌 기초생활권이라 볼 수 있다.
 - 그간 관련 법제나 정책에 따라 읍·면을 농촌지역이라고 분류한 바, 읍·면만으로 구성된 군은 명확한 농촌지역이며 읍·면·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도농복합시 역시도 그 특성상 농촌지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역의 정의와 관해서는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 다른 한편으로 위치적 특성, 도시와의 통합성, 발전 정도 등을 반영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기초생활권을 유형화할 수도 있다.
 - 특히 농어촌 특성이 강한 도농연계형과 농산어촌형 시·군을 모두 농어촌 기초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 농어촌 기초생활권 유형과 범위



□ 기초생활권의 유형

- 도시형: 대도시와 인접해 있거나, 자족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지역
- 도농연계형: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 연계 발전이 가능한 시·군 지역
- 농산어촌형: 도시와 멀리 떨어진 순수한 농산어촌의 군 지역



2. 지표를 통해 살펴본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

1.1. 기초생활권 마을 단위 일반 현황

- 기초생활권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있어, 기초생활권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 단위로서 마을의 인구 및 가구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생활환경 및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기획에 있어 기초생활권의 근간을 이루는 마을 단위의 인구 및 가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기초생활권 중 농촌지역(읍·면)의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와 가구의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농촌마을의 과소화 내지 소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 마을의 인구

- 기초생활권 마을 단위에서의 인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을별 인구 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47개 시·군의 11,186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는 마을당 25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 마을당 인구가 330명, 군의 경우 마을당 246명으로 나타나, 도농복합시의 마을 인구가 평균 84명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5년과 2000년 역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도농복합시의 평균 마을 인구가 군 지역보다 95명 가량 더 많게 나타났다.

표 3-2. 기초생활권 마을의 인구 현황(2005년)

구 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단위: 명	
			도농복합시	군
마을당 인구 수	259	-	330	246

- 마을의 인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각 시군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구축한 마을별 인구 수·가구 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데이터 구축 대상은 전국의 47개 시·군²에 속한 행정리로, 일부 시·군에 해당하지는 하나, 표본 수가 11,186개로 상당히 많은 마을의 표본을 확보하고 있어 통계자료로서 상당 부분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 그러나 전국 163개 시·군 중 28%에 해당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 시·도가 제외되어 있고 기초생활권 중 일반시가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지역 특성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얻고 보다 정교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 데이터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² 47개 시·군은 다음의 <부표 1>과 같다.

부표 1. 마을별 인구 수·가구 수 조사 대상 시·군

시·도	시·군
경기도(2)	가평군, 양평군
인천광역시(1)	강화군
강원도(11)	강릉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남도(8)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청양군
경상북도(10)	경산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예천군, 울진군, 청도군, 칠곡군, 포항시
경상남도(7)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전라남도(8)	강진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화순군
합 계	총 47개

주: 굵은 글씨로 처리된 시·군은 도농복합시이며, 나머지의 경우 군에 해당됨.

- 더욱이 최근 농촌마을의 과소화 내지 소멸에 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쇠퇴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전국의 기초생활권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마을 인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시·군의 통계연보에서 행정리별로 인구를 제시하는 정도이다.
 - 따라서 전국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한 완결성 있는 마을 인구 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마을의 가구

- 기초생활권 마을의 가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리별 가구(세대) 수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³
-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⁴는 5년을 주기로, 전국의 시·군 지역 읍·면의 행정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05년 기준 조사대상으로 36,041개 행정리를 포함하고 있다.
-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데이터를 통해 36,041개 행정리의 평균 가구수를 파악한 결과, 마을당 평균 94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농복합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마을당 평균 가구 수는 109가구이며, 군의 경우 84가구로 도농복합시의 마을보다 25가구 더 적었다.

³ 농림어업총조사는 읍·면의 행정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⁴ 지역조사는 행정리별로 읍·면의 공무원이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어촌계장 등을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 3-3. 기초생활권 마을의 가구 현황(2005년)

구 분	단위: 가구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마을당 가구 수	94	-	109	84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2005.

□ 인구 및 가구 변화 추이

- 기초생활권의 인구변화 추이는 인구의 증감, 과소화 마을의 증감 등으로 다양하게 파악해 볼 수 있다.
- 시·군 단위에서는 일부 가능한 경우 시군통계연보를 시계열적으로 활용하고, 그 보다 하위의 공간단위로 들어가 읍·면 및 마을 단위에서의 인구 변화는 마을별 인구 수·가구 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구축한 마을별 인구 수·가구 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인구 및 가구 변화를 살펴보면, 마을당 평균 인구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평균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3-3 참조).⁵
 - 군 보다 도농복합시에서 마을당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나, 1995년부터 예측 시점인 2015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보면 오히려 도농복합시에서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을당 평균 가구 수 역시 도농복합시가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까지의 변화 추이에서는 도농복합시보다 군 지역에서 가구 수가 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⁵ 2015년의 인구 및 가구 수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의 연평균증감율을 적용하여 추세 연장한 예측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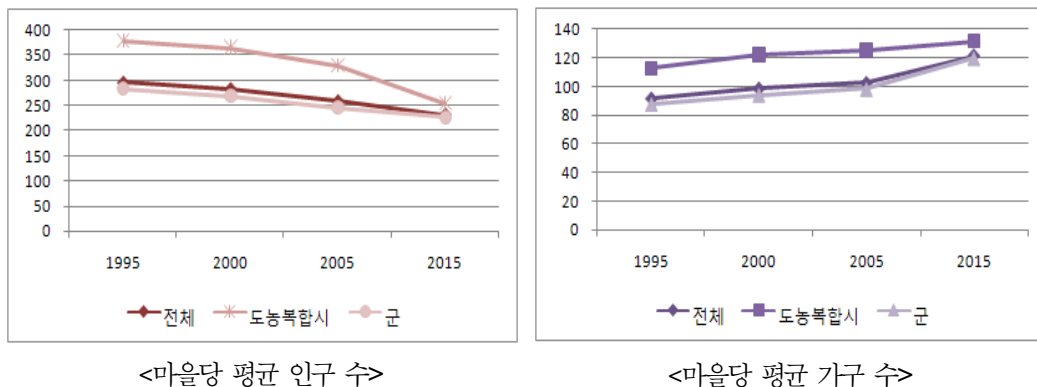
표 3-4. 기초생활권 마을의 인구 현황과 변화 추이

단위: 명, 가구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5년	'95-'05년평균 증감률(%)
인구	기초생활권	297 (100.0%)	284 (95.6%)	259 (87.2%)	231 (77.8%)	-0.0136
	일반시	-	-	-	-	-
	도농복합시	378 (100.0%)	365 (96.6%)	330 (87.3%)	255 (67.5%)	-0.0135
	군	283 (100.0%)	269 (95.1%)	246 (86.9%)	227 (80.2%)	-0.0139
가구	기초생활권	91 (100.0%)	98 (107.7%)	102 (112.1%)	122 (134.1%)	0.0115
	일반시	-	-	-	-	-
	도농복합시	113 (100.0%)	122 (108.0%)	125 (110.6%)	132 (116.8%)	0.0101
	군	88 (100.0%)	94 (106.8%)	98 (111.4%)	120 (136.4%)	0.0108

주: 1) 2015년의 인구 및 가구 수는 예측치임.
2) 괄호 안은 1995년에 대한 각 연도의 비율임.

그림 3-3. 인구 및 가구 변화 추이(1995-2015)



□ 마을별 반 분포

- 마을별 반 분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행정리별 반 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행정리 내 소재한 반 수의 수준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 각 시·도 기본통계에서는 시·군·구별로 몇 개의 반이 분포하고 있는지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나, 시·군 단위의 전체 반 수 정도로는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그러한 자료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 읍·면 단위에서 각 행정구역 내의 마을에 속한 반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여 데이터화 한 행정자료를 취합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국 단위의 신규조사 실시를 통한 데이터 구축이 요구된다.

□ 과소화 마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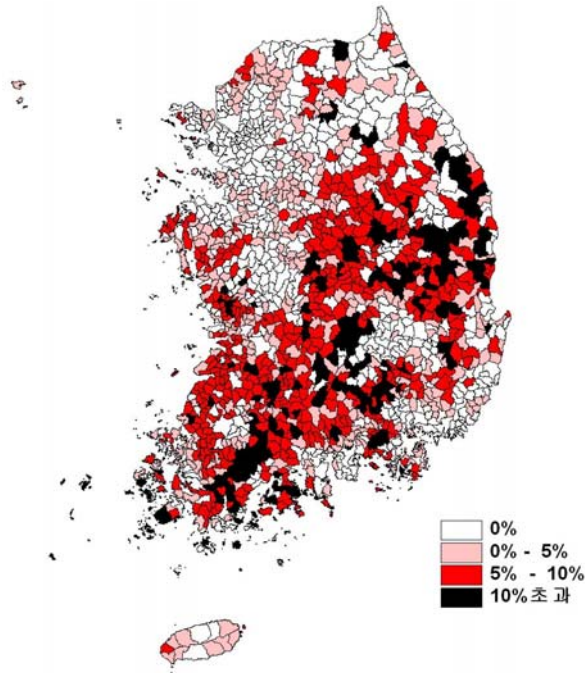
- 기초생활권 내에 분포하는 과소화 마을은 인구 과소화 마을과 세대 과소화 마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20세대 이하(세대 과소화 마을) 또는 50명 이하 인구(인구 과소화 마을)가 거주하는 행정리를 ‘존속을 위협받는 과소화 농어촌 마을’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한다(송미령 등, 2009: 436).⁶
 - 이러한 지표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47개 시·군의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구축한 마을별 인구 수·가구 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⁶ 2005년 농촌의 마을(반) 가구 수 평균이 27호인 점을 감안하여, 가구 수 20호 미만인 경우를 세대 과소화 마을로 분류한다.

- 2005년 기준 전국에 분포하는 ‘세대 과소화 마을’은 1,259개로 전체 행정리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가 향후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후인 2015년에는 1,851개의 과소화 마을이 발생하여, 그 비율이 전체 농어촌 마을의 5.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⁷
- 2005년 기준 전국에 분포하는 ‘인구 과소화 마을’은 2,075개로 전국 규모의 5.8%를 차지한다. 인구 과소화 마을의 증감 추세는 세대 과소화 마을의 경우보다 비관적인데, 2015년에는 전체의 13.7%, 2019년에는 20.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05년 기준 인구 과소화 마을 비율에 따라 전국의 읍·면을 구분하면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 3-4>와 같다.
 - 읍·면의 과소화 마을 비율은 해당 지역의 고령화율 및 조건불리지역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다. 즉,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구 과소화 마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송미령 등, 2009: 438).
 - <그림 3-4>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전국 읍·면을 대상으로 추정된 비율에 따른 것이다.
- 세대와 인구의 경우 모두, 읍지역보다 면지역에서 과소화 마을의 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농촌 중에서도 면지역에 소재한 마을의 과소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래 시점에 예측된 과소화 마을의 증가 추이 역시 읍지역보다 면지역에서 훨씬 심각할 것으로 드러났다.

⁷ 2015년과 2019년의 과소화 마을 수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의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세 연장한 예측치이다.

그림 3-5. 인구 과소화 마을 분포



출처: 송미령 등. 2009. 438p.

표 3-5. 과소화 마을 수의 증감 추세와 전망

구 분		2005년	2015년	2019년
전체	세대 과소화 마을	1,259 (3.5%)	1,575 (4.5%)	1,851 (5.1%)
	인구 과소화 마을	2,075 (5.8%)	4,943 (13.7%)	7,447 (20.7%)
읍부	세대 과소화 마을	116 (1.7%)	164 (2.4%)	215 (3.2%)
	인구 과소화 마을	164 (2.4%)	400 (6.0%)	687 (10.2%)
면부	세대 과소화 마을	975 (4.0%)	1,202 (4.9%)	1,391 (5.7%)
	인구 과소화 마을	1,635 (6.7%)	3,886 (15.8%)	5,772 (23.5%)

주: 총 46개 시·군의 480개 읍·면 10,946개 마을을 표본으로 삼아 추정된 자료임.
 자료: 송미령 등. 2009. 재인용

- 46개 시·군의 480개 읍·면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2005년 기준 도농복합시에 속한 1,620개 마을 중 40개 마을인 2.47%가 인구 과소화 마을이며, 세대 과소화 마을은 이보다 적은 32개로 1.98%를 차지하였다. 군에 해당하는 9,326개 마을 중에서는 570개 마을인 6.11%가 인구 과소화 마을이며, 338개 마을 3.62%가 세대 과소화 마을로 나타났다.
 - 인구가 감소하는 정도에 비하여, 세대 수의 감소는 세대 분리나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완충되어 인구 과소화 마을보다 세대 과소화 마을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 인구 및 세대 과소화 마을 모두의 경우,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에서 2배 안팎으로 과소화 마을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1995년부터 2000년을 거쳐 2005년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표 3-6. 기초생활권 인구·세대 과소화 마을 현황

단위: 개, %

구 분		마을 수	1995년	2000년	2005년	2015년
전체 (기초 생활권)	인구 과소화 마을	10,946 (100%)	248 (2.27%)	434 (3.96%)	610 (5.57%)	1453 (13.27%)
	세대 과소화 마을		358 (3.27%)	389 (3.55%)	370 (3.38%)	463 (4.23%)
도농 복합시	인구 과소화 마을	1,620 (100%)	19 (1.17%)	27 (1.67%)	40 (2.47%)	103 (6.36%)
	세대 과소화 마을		30 (1.85%)	30 (1.85%)	32 (1.98%)	43 (2.65%)
군	인구 과소화 마을	9,326 (100%)	229 (2.46%)	407 (4.36%)	570 (6.11%)	1350 (14.48%)
	세대 과소화 마을		328 (3.52%)	359 (3.85%)	338 (3.62%)	420 (4.50%)

주: 2015년의 마을 수는 예측치임.

- 2015년 전망에 따르면 전체 10,946개 마을 중 인구 과소화 마을의 비율이 13.27%, 세대 과소화 마을의 비율이 4.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인구 과소화 마을에서 도농복합시의 경우 전체 마을의 6.36%, 군의 경우 14.48%로 증가하는데, 이는 10년 이전인 2005년에 비해 도농복합시가 약 1.6배, 군이 약 1.4배 증가한 비율이다.
 - 이는 읍·면으로만 구성되는 군지역의 인구 감소가 도농복합시 읍·면의 인구 감소보다 덜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2. 기초생활권 시·군 단위 일반 현황

- 마을보다 상위의 기초생활권 단위인 시·군 차원에서 인구 및 가구, 경지면적 등의 일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마을이 기초생활권 주민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 공간 단위라면, 시·군은 기초생활권 중에서 자치적 행정구역을 이루는 보다 완결성을 가진 공간 단위라고 할 수 있다.

□ 연령대별 인구 구성

- 기초생활권 시·군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인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인적 자원 구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권 전반적으로 살펴본 연령대별 인구 구성은 다음의 <표 3-7>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통해 1992년부터 최근 2008년까지 매년 전국 시·군의 읍·면·동 단위까지 5세별 주민등록인구 데이터가 구축되고 있다.

- 기초생활권 중 군지역의 경우, 대도시나 다른 기초생활권 시·군에 비해 유년기 및 청년기 등 젊은층의 인구가 낮게 나타나는 반면, 50세 이상의 인구 계층에서는 높게 나타난다. 특히 70세 이상부터는 타 지역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보인다.

표 3-7. 기초생활권 연령대별 인구 수(2008년)

단위: 명

구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	대도시	전체
0-9세	2,948,689 (10.9%)	1,112,075 (11.3%)	1,423,522 (11.4%)	413,092 (8.7%)	2,148,174 (9.6%)	5,096,863 (10.3%)
10-19세	3,762,702 (13.9%)	1,480,849 (15.1%)	1,751,839 (14.0%)	530,014 (11.1%)	3,062,220 (13.6%)	6,824,922 (13.8%)
20-29세	3,673,166 (13.6%)	1,430,598 (14.6%)	1,679,939 (13.4%)	562,629 (11.8%)	3,552,472 (15.8%)	7,225,638 (14.6%)
30-39세	4,548,424 (16.8%)	1,784,145 (18.2%)	2,144,145 (17.1%)	620,134 (13.0%)	3,921,870 (17.5%)	8,470,294 (17.1%)
40-49세	4,727,898 (17.4%)	1,822,455 (18.6%)	2,176,893 (17.4%)	728,550 (15.3%)	3,943,950 (17.6%)	8,671,848 (17.5%)
50-59세	3,215,566 (11.9%)	1,085,064 (11.1%)	1,478,682 (11.8%)	651,820 (13.7%)	2,925,007 (13.0%)	6,140,573 (12.4%)
60-69세	2,224,706 (8.2%)	623,453 (6.4%)	994,650 (7.9%)	606,603 (12.7%)	1,740,090 (7.8%)	3,964,796 (8.0%)
70-79세	1,479,045 (5.5%)	354,819 (3.6%)	644,714 (5.1%)	479,512 (10.1%)	853,997 (3.8%)	2,333,042 (4.7%)
80세 이상	521,953 (1.9%)	124,143 (1.3%)	226,650 (1.8%)	171,160 (3.6%)	290,438 (1.3%)	812,391 (1.6%)
계	27,102,149 (100%)	9,817,601 (100%)	12,521,034 (100%)	4,763,514 (100%)	22,438,218 (100%)	49,540,367 (100%)

- 기초생활권에 속한 각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인구비가 14.2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전후로 30대와 50대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 기초생활권 전체에서 70세 이상 79세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8.31%, 8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98%로 대도시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군에서는 해당 비율이 각각 10.85%, 3.91%로 7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대도시의 3배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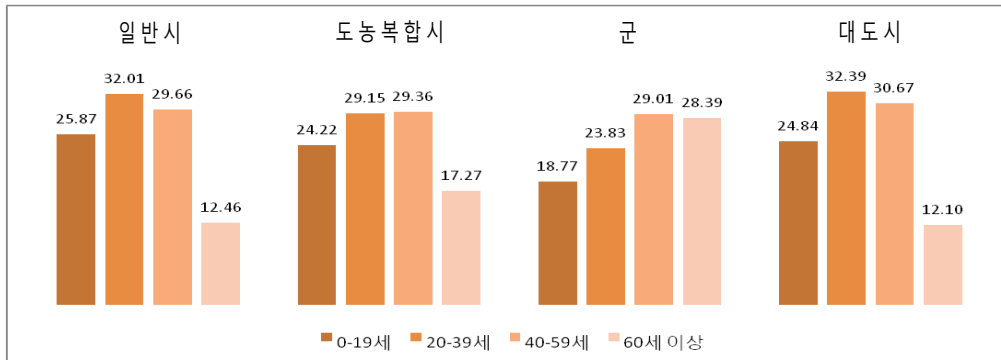
표 3-8. 기초생활권 연령대별 평균 인구 구성비(2008년)

단위: %

구 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0-9세	9.44	11.40	10.68	8.12	10.17	9.47
10-19세	12.16	14.47	13.54	10.65	14.67	12.26
20-29세	12.50	14.16	13.12	11.65	15.32	12.62
30-39세	14.28	17.85	16.03	12.18	17.07	14.39
40-49세	16.11	18.13	16.98	15.00	18.06	16.19
50-59세	13.11	11.53	12.38	14.02	12.61	13.09
60-69세	11.11	7.03	8.91	13.62	7.19	10.95
70-79세	8.31	4.02	6.17	10.85	3.66	8.12
80세 이상	2.98	1.40	2.19	3.91	1.25	2.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그림 3-5>의 그래프를 통해 기초생활권 각 지역과 대도시의 인구 구성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 대도시와 일반시는 인구 구성비상 서로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농복합시는 그에 비해 20~30대 비중이 낮으며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높다.
 - 군의 인구 구성은 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구 규모가 점차 커지는 형태인데, 타 지역에 비해 젊은 인구층이 상당히 낮고 60세 이상 인구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갖는다.

그림 3-6. 기초생활권 연령대별 평균 인구 구성비(2008년)



□ 고령인구

- 기초생활권의 고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0년과 2005년 두 시점의 고령인구 수와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고, 이 기간 동안 고령인구가 증가한 정도를 나타내었다(표 3-9 참조).
- 2000년 기초생활권내 거주하는 고령인구가 전체의 11.7%인 62,689명이던 것이 2005년 15.1%인 69,787명으로 증가하였다.
 - 기초생활권 중 일반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와 거의 유사한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초생활권 전체의 고령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 군의 경우 절대적 인구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에 14.9%, 2005년에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제시된 두 시점인 5년간 고령인구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기초생활권의 고령인구는 0.022%로 증가해 왔음을 볼 수 있다.
 - 이 중에서도 도농복합시의 연평균 증감률이 가장 높아 0.053%로 증가하

였는데, 이는 일반시에 비하여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 군지역의 고령인구는 기초생활권 평균보다 다소 높은 0.034%로 매년 증가하였다.
- 기초생활권에 비하여 대도시는 절대적 인구 규모로 인해 고령인구 규모는 크지만, 연평균 증감률은 0.000001%로 상당히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3-9. 기초생활권 고령인구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0년		2005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수	인구비율	인구 수	인구비율	
기초생활권	62,689	11.7	69,787	15.1	0.022
일반시	344,465	5.8	374,599	7.5	0.017
도농복합시	17,765	9.1	23,007	11.3	0.053
군	9,185	14.9	10,836	19.6	0.034
대도시	3,178,464	5.4	3,178,476	7.2	0.000001
전 체	189,494	11.4	196,303	14.8	0.007

□ 농가 및 비농가 수

- 기초생활권의 농가⁸ 및 비농가 수 현황을 파악하고자 시·군별 농가와 비농가 수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2005년 기준 기초생활권 총 가구의 14.3%에 해당하는 7,538가구가 농가이며, 나머지 85.7%에 해당하는 45,072가구가 비농가이다.

⁸ 농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경지 10a(약 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단, 판매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일 현재 50만 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농가에 포함)

- 그러나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농촌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군과 도농복합시에 속하는 지역은 농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도시지역인 일반시는 농가-비농가 구성비상 대도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 군에 속하는 지역의 농가 비율은 38.3%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도농복합시의 농가 비율은 13.2%로, 이는 함께 기초생활권에 속하는 일반시 2.6%의 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 3-10. 기초생활권 농가 및 비농가 현황(2005년)

단위: 가구, %

구 분	농가 수	총 가구 대비 농가 비율	비농가 수	총 가구 대비 비농가 비율
기초생활권	7,538	14.3	45,072	85.7
일반시	3,153	2.6	119,693	97.4
도농복합시	9,973	13.2	65,484	86.8
군	7,345	38.3	11,810	61.7
대도시	11,108	1.0	1,054,549	99.0
전 체	7,684	8.2	86,155	91.8

주: 전체 가구 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수이며, 농가 수는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 수임. 비농가 수는 전체 가구 수에서 농가 수를 뺀 값을 대리지표로 사용함.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5.

□ 경지면적

- 경지면적은 기초생활권에 속한 지역들 간의 농촌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2005년 및 2008년의 기초생활권 시·군의 경지면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 통계청의 경지면적조사에서는 198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 시·군별 경지면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 그러나 2005년 데이터의 경우 대도시에 속한 군(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웅진군, 울주군)의 경우와 일부 시·군(계룡시, 증평군)의 경지면적이 0으로 집계되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가장 최근 자료인 2008년 기준 기초생활권 시·군의 경지면적은 평균 10,633ha이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평균 경지면적 규모는 각각 13,164ha, 11,172ha이며, 일반시의 경우 이보다 크게 낮은 3,533ha이다.
 - 기초생활권에서 일반시를 제외하고는 밭에 비해 논 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3-11. 기초생활권 경지면적 구성(2008년)

단위: ha

구분	경지면적	논 면적	밭 면적
기초생활권	10,633	6,468 (60.8%)	4,295 (40.4%)
일반시	3,533	626 (17.7%)	2,969 (84.0%)
도농복합시	13,164	8,390 (63.7%)	4,923 (37.4%)
군	11,172	7,009 (62.7%)	4,300 (38.5%)
대도시	5,183	3,075 (59.3%)	2,198 (42.4%)
전체	10,407	6,327 (60.8%)	4,208 (40.4%)

자료: 통계청. 「경지면적조사」. 2005. 2008.

- 2005년과 2008년의 경지면적을 비교한 결과는 <표 3-12>와 같다. 기초생활권 전체적으로 경지면적이 3.9% 감소하였으며, 대도시의 경우 52.7%인 매우 큰 폭으로 면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초생활권 중에서 농촌지역인 읍·면을 포함하는 도농복합시와 군의 경우 동 기간 사이에 경지면적이 각각 5.2%, 7.6% 감소하였다.

- 일반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는 경우, 86.1%의 매우 큰 폭으로 경지면적이 증가하였다. 이들 두 개 시를 제외하는 경우, 이보다 완화된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시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이들 두 시의 경지면적, 특히 밭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05년을 기준 기초생활권 시·군의 총 면적 대비 경지면적 비율⁹은 19.6%이다. 대도시의 비율 14.1%에 비하여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나,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대도시의 경지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3-12. 기초생활권 경지면적 변화

구 분	경지면적(ha)		'05-'08 증감률(%)	총 면적 대비 경지면적 비율(%) (2005년 기준)
	2005년	2008년		
기초생활권	11,059 (11,122)	10,633 (10,411)	-3.9 (-6.4)	19.6
일반시	1,898 (1,533)	3,533 (1,376)	86.1 (-10.3)	14.4
도농복합시	13,890	13,164	-5.2	22.0
군	12,091	11,172	-7.6	19.8
대도시	10,968	5183	-52.7	14.1
전 체	11,055 (11,116)	10,407 (10,192)	-5.9 (-8.3)	19.4

주: 괄호 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평균의 경우임.

자료: 통계청, 「경지면적조사」, 2005, 2008.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에서는 토지자원이용 및 관리 부문을 별도로 다루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토지와 환경’ 부문에서 토지의 구체적 이용 현황과 토지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현황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¹⁰

⁹ 시·군 행정구역의 총 면적 데이터가 사용가능한 200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 이와 유사하게 호주의 농촌지역통계에서는 환경통계로서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항목으로 광산·임업·농업별 토지이용 및 농업용지의 농업집약도, 토양, 비료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 도시지역으로부터의 이주 가구

- 기초생활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하여 귀농·귀촌에 의한 인구 유입은 중요한 과제이다. 기초생활권에 대하여 최근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주한 가구 현황은 도시지역(동부)에서 농촌지역(읍·면부)으로 이주한 가구 수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구의 거주지 이동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에서는 최근 5년 사이에 거주지를 이전한 응답자의 과거 거주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만으로는 정확하게 도시로부터의 이주 가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다른 시나 구에서 현재 읍·면으로 이주한 경우 중에는 일반시나 대도시의 동에서 읍·면으로 거주한 경우도 있으나, 도농복합시와 같이 읍·면·동으로 구성된 시의 경우 도시와 농촌 중 어느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¹⁰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보고서.

- ‘토지와 환경’ 주제 하에 ‘토지이용’에서는 ① 개발(주거건물, 비주거건물, 도로), ② 보존(들판, 정원, 수자원), ③ 재개발(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한 개발 비율), ④ 농지이용(작목별), ⑤ 농지구매자(농업인, 농산업관련자, 비농업인, 투자기업, 개발업자) 데이터를 구축한다.
- ‘토지가치’에서는 ① 식량자급율, ② 유기농 농지, ③ 유기농산물 생산자, ④ 식량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 ⑤ 풍력발전, ⑥ 물소비량, ⑦ 농촌·해안·산림 방문횟수 데이터를 구축한다.

-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보다는 주민등록상 전입 및 전출 현황을 집계하는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향후 각 시·군에 대하여 동부로부터의 이주 인구 및 가구 수를 집계한다면 매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유출인구에 대한 유입인구 비율

- 기초생활권에 속한 시·군 또는 보다 하위 단위인 읍·면·동을 대상으로 유출인구에 대한 유입인구의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별 전입·전출자 수 데이터를 통해 순이동 현황 및 전출자에 대한 전입자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¹¹
 - 이를 통해 단순히 인구 감소 정도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까지 고려하는 보다 균형적 시각에서 인구 이동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통해 1970년부터 2009년 최근까지 매월 주민등록상으로 집계되는 시·군·구별 전입 및 전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 5세 간격 연령대별 및 성별에 따른 각 시·도 간 전입·전출과 시·군·구별 전입·전출 데이터와 이동건수 데이터가 제공된다.
- 2009년 2월 동안 집계된 전입·전출 기록에 따르면, 기초생활권 전체로는 순이동이 -5명으로 인구가 근소하게 줄었다. 그러나 기초생활권을 보다 세

¹¹ 전입·전출은 행정 읍면동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순이동은 전입인구-전출인구로, 전입초과인 경우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 인구유입을 나타내고, 전출초과인 경우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 인구유출을 나타낸다.

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인다.

- 일반시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평균 67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군 역시 평균 26명이 감소하였으나, 일반시보다는 감소 정도가 작았다. 반면 도농복합시는 평균 59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 한편 대도시의 경우 평균 122명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전입초과가 일어났다.
- ‘전출에 대한 전입 비율’을 통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규모의 인구가 전입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출 인구가 100이라고 할 때, 기초생활권에는 96.2의 인구가 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시와 도농복합시는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에 비해 유사한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군의 경우 93.7로 지역으로 들어오는 인구의 비율이 더 낮았다.

표 3-13. 기초생활권 전입·전출 현황(2009년 2월)

구 분	총 전입(명)	총 전출(명)	순이동(명)	전출에 대한 전입 비율(%)
기초생활권	2,850	2,855	-5	96.2
일반시	6,995	7,062	-67	98.8
도농복합시	4,268	4,209	59	99.1
군	787	813	-26	93.7
대도시	54,731	54,609	122	97.6
전 체	4,986	4,986	0	96.3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2009.2.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이와 같은 자료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읍·면·동 단위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보다 세부 공간 단위에서 면밀히 살펴보기는 어렵다.

- 또한 ‘전출지-전입지별 이동자수’ 데이터의 경우 시·도 단위까지만 제공되고 있어, 인구가 특별히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지역들에 대하여 어느 지역들로 빠져나갔는지 시·도 단위의 확인만 가능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3. 일반 현황 지표 분석결과의 종합 및 정책 방향

1.1. 일반 현황 지표와 관련한 시사점

-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에 대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기초생활권 유형의 정교화(精巧化)

- 기초생활권에는 163개 시·군이 포함되며, 일반시 25개, 도농복합시 52개, 군 86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각 지표에 대한 데이터 분석시 일반시나 도농복합시, 군으로 구분함에 따라 결과치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 같은 구분에 속하는 시·군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하느냐에 따라 유형에 따른 결과값에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예컨대,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 규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63개 기초생활권을 도시형, 도농통합형, 농어촌형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한 송미령 등(2008; 57)의 연구에서도 기초생활권의 유형별 삶의질 지표가 각 지역 유형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기초생활권 관련 정책의 설계시에는 현황에 대한 진단이나 정책 목표치 설정 등의 과정에서 정책 대상을 정밀(精密)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 인근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인구 규모 등을 비롯한 주요 지역 특성들을 고려한 정교한 유형 구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의 세부 목표에 따라서는 해당 특정 분야의 특성을 별도로 반영한 유형 구분도 가능할 것이다.

□ 농촌정책 대상의 명확화

- 기초생활권 정책 이전 농촌정책 대상은 주로 읍·면지역이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상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초생활권 중에서 농촌정책의 대상은 어디인지를 지표 작업을 통해 찾을 필요가 있다.

□ 행정리 등 하위 공간단위 데이터의 구축 필요성

- 기초생활권의 인구 및 가구의 현재 여건 및 변화, 과소화마을의 분포와 증감, 마을별 반 분포 등은 시·군 단위 데이터만으로는 정책적 시사점을 충분히 얻기 어려우며, 따라서 행정리 단위에서의 실태 파악이 중요한 지표들이다.

- 그러나 마을 단위의 인구·가구와 관련된 데이터는 현재 개별 시·군통계연보를 통해 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전국 대상으로 전 행정리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없는 실정이다.

- 최근 농촌마을의 인구 및 가구와 관련하여 과소화 내지는 소멸에 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인구 및 가구의 쇠퇴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장기적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완결성 있는 마을 인구·가구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본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결과에서는 47개 시·군의 11,186개 마을로 상당한 수의 표본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 163개 시·군 중 28%에 해당하는 시·군만을 포함하고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인구 이동 관련 데이터 구축 미흡

-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마을 또는 시·군 중에서도 특정 읍·면의 인구 유출 문제는 다수의 기초생활권, 특히 농촌지역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이슈이다.
- 기초생활권에 속하는 각 읍·면을 대상으로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인구 규모가 얼마나 되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 간 도시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오는 인구·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라 할 수 있다.
 - 특정 읍·면 지역 또는 마을의 인구 이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인구 유입·유출의 원인을 찾거나, 인구감소 완화 또는 인구증가 촉진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정책적으로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그러나 국내인구이동통계 또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데이터 들은 분석에 충분한 정보를 담지 못하거나, 공표 단위가 충분히 작은 행정 구역 단위까지 미치지 못하여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를 보장하고, 보다 작은 공간단위까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입·전출 관련 데이터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데이터까지 제공하고 읍·면·동 단위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세부 공간 단위에서 분석하기는 어렵다.

- 또한 ‘전출지-전입지별 이동자수’ 데이터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까지만 제공되고 있어, 인구가 특별히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지역들에 대하여 어느 지역들로 빠져나갔는지 시·도 단위의 확인만 가능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또한 최근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가구 현황과 관련,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에서 최근 5년 사이 거주지를 이전한 응답자의 과거 거주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파악하고 있으나 이러한 응답만으로는 정확하게 도시로부터의 이주 가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토지 이용 등과 관련한 체계적 지표체계 구축 필요성

- 기초생활권에 속한 지역들 간의 농촌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서 경지면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지면적 외에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다양한 토지이용 관련 지표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 외국의 관련 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 및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토지 자원이용 및 관리 부문을 별도로 다루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
 - 영국에서는 ‘토지와 환경’ 부문에서 토지의 구체적 이용 현황과 토지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현황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
 - 호주의 농촌지역통계에서는 환경통계로서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항목으로 광산·임업·농업별 토지이용 및 농업용지의 농업집약도, 토양, 비료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1.2. 일반 현황 관련한 정책방향

- 각종 지표를 통해 살펴본 기초생활권 일반 현황의 주요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향후 고려해야 할 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 기초생활권 정책 대상 세분화

- 기초생활권에 속하는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에는 전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53.9%가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이 모두 포함되며, 이들 읍·면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18.5%에 거주한다.
- 이와 같이 기초생활권 정책은 농촌지역에 대한 제반 정책을 담아야 하는 동시에 도농복합시 및 일반시에 속한 일부 도시지역에 대한 정책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권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주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지역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시·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기초생활권 중 순수하게 도시지역인 일반시와 순수하게 농촌지역인 군의 경우에 비해, 읍·면·동을 모두 포함하는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복잡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각 지표에 대한 데이터 분석시 일반시나 도농복합시, 군으로 구분함에 따라 결과치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 특히, 기초생활권 전체에 대한 값과 순수하게 농촌지역인 군에 대한 값에는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지표에 따라서는 군과 도농복합시 사이에도 제법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 일반시는 동으로만 구성되는 도시지역으로서 그 결과값은 기초생활권에 속하는 타 지역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 특히 기초생활권 전체에 대한 지표상에서는 지역간 상쇄로 도시적 특성이 나 농촌적 특성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또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생활권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마을 인구 및 가구의 감소에 대응

- 도농복합시와 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권 마을의 인구·가구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도농복합시와 군 사이에도 상당히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기초생활권 정책에서는 두 유형이 차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 동일한 농촌지역임에도 도농복합시의 평균 마을당 인구가 330명인데 비해 군은 246명에 불과하다. 평균 마을당 가구 수 역시 도농복합시가 109가구인데 비해 군은 84가구에 그친다.
- 마을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에서 감소하여 2005년에는 1995년에 비해 약 87%에 해당하는 인구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시점 사이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볼 때, 미세한 차이지만 군이 도농복합시보다 빠르게 감소해 왔다.
 - 가구 변화 추이의 경우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세대 분리 및 노인 가구,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 한편, 과소화마을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5년까지 인구과소화 마을의 비율이 전체 분석대상 마을의 13.27%, 세대과소화 마을이 4.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에서 2배 안팎으로 과소화 마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10년간 도농복합시가 약 1.6배, 군이 약 1.4배 배율로

증가하여, 인구 감소 정도는 군 지역 읍·면이 도농복합시 읍·면보다 덜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농촌마을의 인구 감소 내지 소멸 문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으나,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구축은 부분적으로나마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지표상 나타나는 기초생활권 마을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군이 도농복합시에 비해 보다 열악한 여건 하에 있다.
- 기초생활권의 인구 감소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은 농촌 정책의 오랜 숙제로 제기되어 왔다. 다만, 향후에는 관련 지표 구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인구 현황 파악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정교화시키고, 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추적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겠다.
 - 인구 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인구 추이와 관련해서 역시 예측의 변수의 폭이 넓고, 특정 요인에 의한 귀농·귀촌 증가 등 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 역시 다양하므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구 증대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 고령화 등 연령층 변화 파악 및 정책적 대응

- 연령대별 인구구성을 보면 군이 다른 지역들에 비하여 0~19세 비율이 타 지역의 24~26% 수준에 비해 18.8%로 상당히 낮고, 60세 이상 비율이 29.4%로 눈에 띄게 높다.
 - 대도시와 일반시가 12%대, 그보다 높은 도농복합시가 17.2% 정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이와 관련, 기초생활권 및 대도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비교한 결과, 2005년 기준 대도시의 고령인구 비율이 7.2%인데 비해, 기초생활권은 15.1%로 두 배가 넘었다.
 - 특히 군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1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예상한 바이지만,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농촌지역의 고령화 경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향후 기초생활권 정책 수립 시에는 고령화 및 인구 구성에 대한 지표를 바탕으로, 연령별 인구 구성의 특징 및 각 연령층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이를 토대로 고령화 등 연령층의 변화 추이에 정책적으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수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연령층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지 자원의 관리

- 지표를 통한 경지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도농복합시에서 13,164ha, 군에서 11,172ha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적은 2005년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이다.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초생활권 전체적으로는 경지면적이 3.9% 감소하였으며, 도농복합시와 군의 경우 각각 5.2%와 7.6% 감소하였다.
 - 일반시에서 행정구역 변경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지면적이 더해진 것을 제외한다면, 일반시에서도 경지면적이 10.3% 감소한 셈이다.
- 경지는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환경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토지의 구체적 이용과 토지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체계적 지표를 구축하는 한편, 지표를 통한 정책 피드백을 통해 경지 자원이 무분별하게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제 4 장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 및 정책 방향

1. 지표를 통해 살펴본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

1.1. 주거 및 정주환경

□ 노후주택

- 기초생활권의 노후주택 수와 노후주택 비율 현황을 살펴보았다. 노후주택은 건축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주택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하여 거주할만한 주택의 공급 여건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 기초생활권과 그 외 지역(대도시) 간, 또는 기초생활권에 속하는 각기 다른 유형별 지역 간 노후주택 비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 2005년 기준 전국에 181,723채의 노후주택이 있으며, 이는 전체 주택의 24%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에 비하여 기초생활권에는 평균 26%에 해당

하는 30,854채의 노후주택이 존재한다. 반면 대도시의 경우 이보다 낮은 18%의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생활권의 노후주택 비율은 전국 평균을 고려하면 특기할 만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나, 이 중 군 지역의 노후주택 비율만 볼 경우 3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단순히 기준년 이상이 된 노후주택보다는 주택의 거주환경 즉, 주택상태에 따른 가구 현황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
- 영국 잉글랜드는 상태가 좋지 않은 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과 주택부실지수, 호주는 농촌지역 삶의 질과 관련하여 주택 나이(노후도)와 함께 주택의 기본시설(난방, 욕실, 하수도) 유무를 파악한다.

표 4-1. 노후주택 현황

단위: 채, %

구 분	2000년		2005년	
	노후주택 수	노후주택 비율	노후주택 수	노후주택 비율
일반시	6,597	11.2	11,068	16.3
도농복합시	11,218	22.0	13,318	23.4
군	6,121	36.1	6,468	38.4
기초생활권	23,937	23.1	30,854	26.0¹
대도시	112,084	14.5	150,869	18.0
전체	136,021	20.9	181,723	24.0 ²

주: 1) 기초생활권에 속하는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의 노후주택 비율을 평균한 값임.

2) 대도시 및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의 노후주택 비율을 평균한 값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빈집(공·폐가)

- 기초생활권의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군별 공·폐가 수를 살펴볼

수 있다.

- 이러한 현황은 시·군 단위의 행정자료를 통해 시·군별 공·폐가 수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면밀한 정책적 진단을 위해서는 읍·면 또는 행정리 단위의 공·폐가 수 데이터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카운티 지역 데이터에서는 주택 서비스 부문에서 빈집 수와 주인이 있는 주택의 빈집율, 임대주택의 빈집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역시 주택 부문에서 빈집 비율 통계를 구축한다.

□ 상·하수도 시설

- 기초생활권의 상·하수도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자,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 데이터를 활용, 일반시·도농복합시·군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파악하였다.
- 기초생활권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대도시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초생활권의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2000년 61.4%에서 68.6%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하수도 보급률 역시 35.5%에서 54.5%로 상당 부분 증가하였음에도 50%대에 그쳐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특히 군 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이 크게 낮는데, 2006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이 54.7%로 지역의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36.2%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표 4-2. 상·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구 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상수도 보급률	2000년	61.4	96.3	70.0	46.4	96.3
	2005년	68.6	98.1	78.1	54.7	97.9
하수도 보급률	2000년	35.5	82.2	47.4	15.1	88.8
	2005년	54.5	89.9	68.5	36.2	89.5

자료: 시도통계연보. 각 연도.

□ 환경처리시설¹²

- 기초생활권의 환경처리 여건과 관련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쓰레기 수거, 생활폐기물 매립지 현황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각 시·군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으로 대기(가스, 먼지·매연 및 악취)와 수질(폐수), 소음 및 진동 부문에 대한 배출시설의 개소 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 또한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수거 처리 방법에 따른 처리량과 수거율, 수거지 인구율 등을 파악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매립지의 개소 수와 면적, 매립용량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 이러한 지표들 가운데 한 예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소 수 현황을 살펴 보았다. 각 시도통계연보로 제시되는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권 시·군의 평균 시설 개수는 588개이다.
 - 기초생활권의 경우 대도시 2,697개의 약 21.8%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경우 283개로 대도시의 약 10.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¹² 환경처리시설은 환경보호 및 오염물, 폐기물 정화·처리에 관한 시설을 말한다(건설공사 표준분류체계).

- 도농복합시는 1,169개로 기초생활권 시·군 중에서 상당히 높은 시설 수를 보이나, 이 경우 역시 대도시에 비하면 43.3% 정도에 해당한다.

표 4-3. 기초생활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소 수(2005년)

구 분	단위: 개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기초생활권	대도시	전체
시설 수	426	1,169	283	588	2,697	675

주: 기초생활권의 군 중에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데이터 부재로 제외함.

자료: 각 시도통계연보. 2005.

-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개소 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현황 진단을 위해서는 처리 시설의 규모나 처리 용량에 관한 데이터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 보다 정확한 현황 진단을 위해 추가적으로 쓰레기 수거지 인구율 및 수거율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군이 100%로 집계하고 있어 분석의 의미가 없었다.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1.2. 일상적 서비스 여건

□ 금융서비스

- 기초생활권의 일상적 서비스 중 한 가지로 금융서비스 여건을 파악하고자 금융기관 개소 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 각 시·도에서는 금융기관을 크게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기타로 구분하여¹³ 금융기관 개소 수를 집계하고 있다.

- 그러나 일반시 및 대도시의 경우 다수 시의 해당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전국 또는 기초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불가하였다.
- 따라서 일부 데이터, 즉 기초생활권 중 일반시를 제외하고 도농복합시와 군에 해당하는 시·군의 금융기관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 14.1개의 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도농복합시는 평균 28.7개의 금융기관이 위치해 있는 반면, 군은 5.5개에 불과하였다.

표 4-4. 기초생활권 금융기관 개소 수(2005년)

구분	기초생활권	단위: 개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인구 천 명당 금융기관 수	0.120	-	0.123	0.117
금융기관 수	14.1	-	28.7	5.5
시중은행	7.9	-	14.9	2.0
특수/기타은행	3.7	-	6.5	2.0
새마을금고	4.7	-	8.3	2.5

주: 1) 금융기관 수는 시중은행, 특수은행 및 기타은행, 새마을금고를 합산함.
 2) 일반시에 해당하는 다수 시의 데이터가 부재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각 시도통계연보. 2005.

- 기초생활권의 금융서비스 여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적 여건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데이터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금융서비스는 시·군 지역 중에서도 중심지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중심지 현황 분석이 가능하도록 소재지와 비소재지별로 구분 가능한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유용할 것이다.

¹³ 특수은행 및 기타은행으로는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축협중앙회, 장기신용은행, 외국은행이 있다.

□ 읍·면 소재지의 각종 서비스

- 기초생활권에서 읍·면지역에 공급되는 일상적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 농촌 지역의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읍·면 소재지에 입지한 다양한 부문의 사업체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기초생활권에 속한 농촌지역의 서비스 공급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 읍·면 사무소가 소재한 행정리를 해당 읍·면의 중심지라고 가정하고 486개 읍·면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기능 공급 여건을 살펴보았다.
 - 47개 시·군에 속한 486개 읍·면 대상으로, 1998년과 2008년 전국 전화번호부 사업체편을 통해 두 시점의 사업체(또는 기관) 수를 집계하였다.¹⁴
- 읍·면 중심지에 소재하는 생활 서비스 제공 사업체 수는 1998년 평균 3만 3,190개에서 2008년 평균 2만 6,610개로 약 19.8% 감소하였다. 이는 연평균 0.022% 감소해 온 수준이다.
- 읍·면 소재지의 서비스 항목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았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서비스 항목에서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수의 항목에서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 지역의 연평균 감소가 크게 진행되었거나 증가하더라도 보다 소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군지역에서 공공서비스 분야의 초·중·고등학교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상업적 서비스 분야의 상점, 금융기관, 주점, 이·미용실, 약국, 학원, 문

¹⁴ 분석시 각 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사업체(또는 기관)의 몇 가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상점: 슈퍼마켓, 슈퍼체인, 편의점, 잡화점
- 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 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 유아교육기관: 놀이방, 어린이집
- 문화여가시설: 영화관, 비디오감상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 치안행정기관: 경찰서, 지구대/치안센터(파출소)

화여가시설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

- 낮은 수준이지만 일부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기능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군지역은 증가 정도가 매우 미약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 치안행정기관, 소방서, 보건소, 유치원, 음식점, 목욕탕, 치과의원, 병·의원, 유아교육기관, 문화여가시설이 소폭 증가하였다.
 - 그러나 군에서는 이들 서비스 중 보건소, 음식점, 목욕탕, 치과의원, 문화여가시설이 감소하였다.
- 서비스 항목별 읍·면당 평균 사업체 수를 살펴보았다(표 4-6 참조). 1998년 읍·면당 평균 2.97개에서 2008년 2.38개로 19.9%가 감소하였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평균 0.70개에서 0.64개로 8.6% 감소한 데 비해, 상업적서비스는 20.8%로 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 그러나 평균 사업체 수 증감에 있어 도농복합시와 군지역 간 전반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도농복합시에서 공공서비스가 10.5%, 상업적서비스가 2.4% 증가하는 데 반해, 군의 경우 각각 11.1%, 23.2% 감소하였다.
 - 분석 대상 전체 지역의 감소는 군지역의 사업체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그럼에도 도농복합시 역시 서비스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8년 읍·면당 평균 2.13개에서 2008년 2.19개로 10년간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평균 0.57개에서 0.63개로 10.5% 증가하여 상대적으로는 증가폭이 컸으나, 평균 1개에도 미치지 못하여 절대적 서비스 공급량 자체가 높지 않았다.

표 4-5. 읍·면 중심지의 서비스 항목별 사업체 수

단위: 개, %

구 분	1998년			2008년			연평균 증감률('98~'08)			
	도농 복합시	군	전체	도농 복합시	군	전체	도농 복합시	군	전체	
공공 서비스	초등학교	54	532	586	48	334	382	-0.012	-0.045	-0.042
	중학교	25	269	294	25	195	220	0.000	-0.032	-0.029
	고등학교	19	158	177	17	90	107	-0.011	-0.055	-0.049
	치안행정기관	55	481	536	63	490	553	0.014	0.002	0.003
	소방서	39	238	277	40	241	281	0.003	0.001	0.001
	우체국	50	293	343	50	359	409	0.000	0.021	0.018
	보건소	24	284	308	39	236	275	0.050	-0.018	-0.011
	유치원	15	185	200	29	207	236	0.068	0.011	0.017
상업적 서비스	버스터미널	19	169	188	11	98	109	-0.053	-0.053	-0.053
	상점	247	2,949	3,196	193	1,781	1,974	-0.024	-0.049	-0.047
	금융기관 (우체국 제외)	141	1,110	1,251	110	728	838	-0.025	-0.041	-0.039
	세탁소	61	581	642	53	505	558	-0.014	-0.014	-0.014
	음식점	1,205	11,647	12,852	1,410	9,826	11,236	0.016	-0.017	-0.013
	주점	145	2,385	2,530	134	1,521	1,655	-0.008	-0.044	-0.042
	이·미용실	235	2,250	2,485	209	1,768	1,977	-0.012	-0.024	-0.023
	목욕탕	23	216	239	29	192	221	0.023	-0.012	-0.008
	찻집	278	2,830	3,108	184	1,550	1,734	-0.040	-0.058	-0.057
	치과의원	14	186	200	18	177	195	0.025	-0.005	-0.003
	약국	79	686	765	76	556	632	-0.004	-0.021	-0.019
	병의원	97	1,024	1,121	144	1,122	1,266	0.040	0.009	0.012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제외)	33	280	313	79	331	410	0.091	0.017	0.027
	학원	171	1,353	1,524	158	1,145	1,303	-0.008	-0.017	-0.016
	문화여가시설	7	48	55	8	31	39	0.013	-0.043	-0.034
합 계	3,036	30,154	33,190	3,127	23,483	26,610	0.003	-0.025	-0.022	

- 주: 1) 음영처리는 읍·면 중심지에서의 해당 서비스 공급량이 감소된 서비스 기능을 의미함.
이 중 짙은 음영(■)은 연평균 증감률이 0.004%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경우임.
- 2) 문화여가시설은 상업적 서비스로 구분하였으나, 총 개수로 파악하고자 공공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화여가시설 수를 합산함.

표 4-6. 서비스 항목별 읍·면당 평균 사업체 수

단위: 개, %

구 분	1998년			2008년			증감률('98년 대비 '08년)			
	도농 복합시	군	전체	도농 복합시	군	전체	도농 복합시	군	전체	
공공 서비스	초등학교	0.87	1.25	1.21	0.77	0.79	0.79	-11.5	-36.8	-34.7
	중학교	0.40	0.63	0.60	0.40	0.46	0.45	0.0	-27.0	-25.0
	고등학교	0.31	0.37	0.36	0.27	0.21	0.22	-12.9	-43.2	-38.9
	치안행정기관	0.89	1.13	1.10	1.02	1.16	1.14	14.6	2.7	3.6
	소방서	0.63	0.56	0.57	0.65	0.57	0.58	3.2	1.8	1.8
	우체국	0.81	0.69	0.71	0.81	0.85	0.84	0.0	23.2	18.3
	보건소	0.39	0.67	0.63	0.63	0.56	0.57	61.5	-16.4	-9.5
	유치원	0.24	0.44	0.41	0.47	0.49	0.49	95.8	11.4	19.5
공공서비스 평균	0.57	0.72	0.70	0.63	0.64	0.64	10.5	-11.1	-8.6	
상업적 서비스	버스터미널	0.31	0.40	0.39	0.18	0.23	0.22	-41.9	-42.5	-43.6
	상점	3.98	6.96	6.58	3.11	4.20	4.06	-21.9	-39.7	-38.3
	금융기관 (우체국 제외)	2.27	2.62	2.57	1.77	1.71	1.73	-22.0	-34.7	-32.7
	세탁소	0.98	1.37	1.32	0.85	1.19	1.15	-13.3	-13.1	-12.9
	음식점	19.44	27.47	26.44	22.74	23.17	23.12	17.0	-15.7	-12.6
	주점	2.34	5.63	5.21	2.16	3.60	3.41	-7.7	-36.1	-34.5
	이·미용실	3.79	5.31	5.11	3.37	4.17	4.07	-11.1	-21.5	-20.4
	목욕탕	0.37	0.51	0.49	0.47	0.45	0.46	27.0	-11.8	-6.1
	찻집	4.48	6.67	6.40	2.97	3.66	3.57	-33.7	-45.1	-44.2
	치과의원	0.23	0.44	0.41	0.29	0.42	0.40	26.1	-4.5	-2.4
	약국	1.27	1.62	1.57	1.23	1.31	1.30	-3.1	-19.1	-17.2
	병의원	1.56	2.42	2.31	2.32	2.65	2.60	48.7	9.5	12.6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제외)	0.53	0.66	0.65	1.27	0.78	0.84	139.6	18.2	29.2
	학원	2.76	3.19	3.14	2.55	2.70	2.68	-7.6	-15.4	-14.6
문화여가시설	0.11	0.11	0.11	0.13	0.07	0.08	18.2	-36.4	-27.3	
상업적 서비스 평균	2.96	4.36	4.18	3.03	3.35	3.31	2.4	-23.2	-20.8	
전체 평균	2.13	3.09	2.97	2.19	2.41	2.38	2.8	-22.0	-19.9	

주: 1) 음영처리는 읍·면 중심지에서의 해당 서비스 공급량이 감소된 서비스 기능을 의미함.

이 중 짙은 음영(■)은 증감률이 2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경우임.

2) 문화여가시설은 상업적 서비스로 구분하였으나, 총 개수로 파악하고자 공공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화여가시설 수를 합산함.

1.5.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 의료기관 수와 의료기관 병상 수, 의료인력 수 지표를 통해 기초생활권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여건을 살펴보았다.¹⁵
 - 이용대상 규모에 대한 보건·의료기관 공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표를 인구 천 명에 수치로 변용(變用)하였다.
- 기초생활권에는 인구 천 명당 평균 0.81개, 대도시에는 1.13개의 의료기관이 있다.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1개 안팎의 기관이 확보된 데 비해 군은 0.67개로 더 낮았다.
-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수는 대도시 8.03명, 기초생활권이 5.30명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일반시는 7.19명, 도농복합시는 6.51명으로 대도시와 비교적 차이가 작았으나, 군은 4.02명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 한편 건강·의료 분야 통계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특별히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지수로 과일과 채소의 소비량, 건강에 해로운 습관, 정신건강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고 있어,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나타내는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¹⁶

¹⁵ · 의료기관과 이들 기관의 병상 수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의료원(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집계하였다.

· 의료인력은 의사(의료종사자만 포함),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약사(개인약국 제외)를 대상으로 집계하였다.

¹⁶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보고서에서는 ‘건강과 의료’ 부문과 관련하여 ① 과일과 채소 소비량(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 이상 소비하는 어른과 3 이상 소비하

표 4-7. 기초생활권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력(2005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기초생활권	대도시	전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수	1.08	0.92	0.67	0.81	1.13	0.83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8.73	9.93	7.34	8.37	8.34	8.37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 수	7.19	6.51	4.02	5.30	8.03	5.41

주: 기초생활권의 군 중에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데이터 부재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각 시도통계연보, 2005.

□ 보건·의료서비스로의 접근성

- 기초생활권 지역의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양적으로 서비스 시설 및 인력 규모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에서는 36,041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표 4-8>의 각 시설로의 거리를 조사한 바 있다.¹⁷
 - 전체 조사대상지 마을 중 14,581개 행정리(40.5%)가 도농복합시에 해당하며, 21,460개 행정리(59.5%)가 군이다.
- 약국과 보건소는 전체 마을의 약 32.7%가 2~5km 범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2.3% 마을에서는 2km 이내 범위에 있다. 마을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는 어린이 비율), ② 건강에 해로운 습관(흡연, 과음, 비만인 사람의 비중), ③ 정신건강(정신건강지수)을 포함한다.

¹⁷ 마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표 3-13>과 같이 주어진 시설까지의 거리를 묻고, ① 마을 내에 있다 ② 2km 이내, ③ 2~5km, ④ 5~10km, ⑤ 10~15km, ⑥ 15km 이상 등 6가지 선택항 중에서 택하는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제공되는 경우는 9.5% 정도였다.

- 이보다 고차적 서비스인 의원과 종합병원은 마을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병의원은 가장 높은 26.6%의 경우 2~5km 범위에 있으나, 그 다음으로는 24.2%가 5~10km 범위로 서비스 이용 거리가 증가하였다. 종합병원은 55.2%가 15km 이상이였다.

표 4-8. 기초생활권 마을의 보건·의료서비스 거리 응답 비율

단위: %

구 분		약국	보건소	병의원	종합병원
마을 내	기초생활권	9.5	10.6	5.7	0.6
	도농복합시	11.0	10.5	6.4	0.5
	군	8.4	10.7	5.2	0.7
2km 이내	기초생활권	22.3	31.2	16.3	4.5
	도농복합시	23.8	32.1	17.6	3.2
	군	21.3	30.7	15.4	5.5
2~5km	기초생활권	32.7	37.0	26.6	8.5
	도농복합시	32.8	36.8	27.4	7.3
	군	32.6	37.2	26.0	9.4
5~10km	기초생활권	20.8	15.1	24.2	16.2
	도농복합시	18.4	14.5	23.1	18.7
	군	22.3	15.6	24.9	14.5
10~15km	기초생활권	7.6	3.9	11.3	14.9
	도농복합시	7.0	3.9	10.6	16.8
	군	8.1	3.9	11.9	13.7
15km 이상	기초생활권	7.2	2.1	15.9	55.2
	도농복합시	6.9	2.3	15.0	53.5
	군	7.4	1.9	16.5	56.4

주: 1) 보건소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포함되며, 병의원에는 한의원이 포함됨.

2) 각 서비스 항목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경우를 진한색(■)으로, 2순위로 응답률이 높은 경우를 옅은색(□)으로 표시함.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2005년

- 보건·의료서비스로의 접근성에서 도농복합시와 군지역 간에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다만 그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 저차서비스에 속하는 약국의 경우, 응답 경향은 유사하나 도농복합시가 군보다 거리가 가까운, 즉 접근성이 높은 범위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병의원의 경우에도 패턴은 유사하나 접근성이 높은 범위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km 이내 범위에 병의원이 위치하는 비율이 도농복합시가 51.4%, 군이 46%였다.

그림 4-7. 기초생활권 마을에서 약국까지의 거리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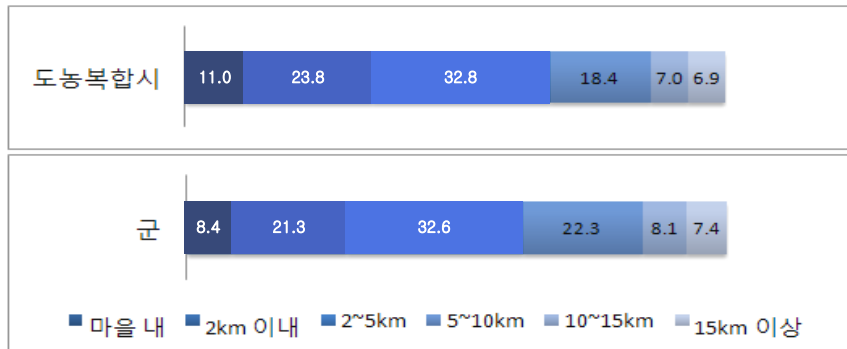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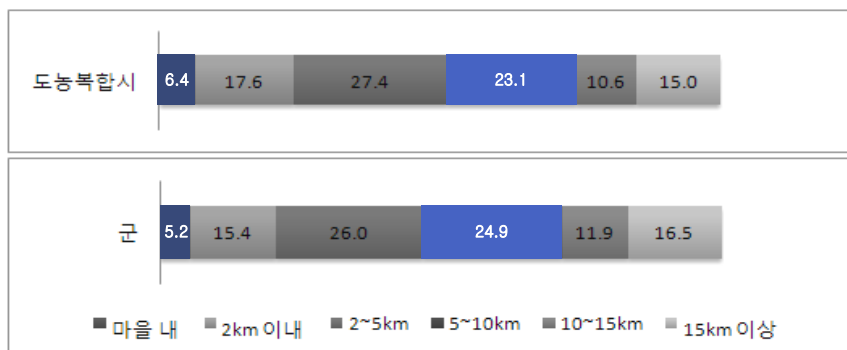


그림 4-12. 기초생활권 마을에서 병의원까지의 거리 응답 비율



□ 응급의료서비스

- 기초생활권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진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여건이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 또는 소요시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여건이 열악한 수많은 기초생활권 지역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만한 근거 자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응급의료서비스는 그 특성상 기초생활권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장 하위의 정주 공간 단위까지 신속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최저 기준 마련 및 이의 달성을 위해, 마을 단위에 이르는 서비스 이용 여건과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6.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 기초생활 수급

- 기초생활권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지표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5년 기준 기초생활권 전체로는 4,776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권에 거주하는 총 인구의 5.0%에 해당한다.
- 보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각 시·군의 인구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의 부

담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 일반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0.72%인 반면, 도농복합시는 4.38%, 군 지역은 6.61%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일반시에 비하여 도농복합시는 약 6배, 군은 약 9배가 더 높은 수치이다.

표 4-9. 기초생활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2005년)

구 분	단위: 명, %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수	4,776	2,682	8,018	3,424	26,565	5,673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5.00	0.72	4.38	6.61	0.80	4.82

주: 기초생활권의 군 중에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데이터 부재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각 시도통계연보. 2005.

□ 노인복지시설¹⁸

- 기초생활권의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로서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았다.
 - 접근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이용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km²당 노인인구 복지시설 수 지표를 사용하였다.
 - 이용대상 규모에 대한 복지시설 공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인구 백 명당 노인복지시설 수 지표를 사용하였다.
- 기초생활권의 노인인구 백 명당 노인복지시설 수는 0.21개, 대도시의 경우 0.01개로, 기초생활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농복합시가 0.26개, 군이 0.22로 일반시 0.02개에 비해서도 크게 차이를 보였다.
 - 이는 대도시와 일반시의 경우 노인인구 수가 절대적으로 많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¹⁸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 의료시설만 포함되고, 노인여가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 1km²당 노인복지시설 수는 기초생활권이 0.014개, 대도시가 0.023개로 나타나 접근성 면에서 기초생활권이 열악한 환경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시의 경우 대도시의 0.023개보다도 높은 0.053개를 보였다.
 - 군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은 1km²당 0.004개로 전체 지역 중에서도 매우 낮아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0. 기초생활권 노인복지시설 현황(2005년)

단위: 개소

구 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노인인구 백 명당 노인복지시설 수	0.21	0.02	0.26	0.22	0.01	0.20
1km ² 당 노인복지시설 수	0.014	0.053	0.010	0.004	0.023	0.014
평균 노인인구 수	69,787	374,599	23,007	10,836	3,178,476	196,303

주: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며, 평균 노인인구 수를 참조하도록 함께 제시함.

자료: 각 시도통계연보. 2005.

□ 여성농업인센터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영유아 자녀의 보육과 취학 자녀의 방과후 학습을 지도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및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 필수사업으로 고충 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외 임의사업으로 농업·농촌 체험 등 도농교류사업,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 기초생활권 중에서 농촌지역, 즉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여성농업인센터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전국에 38개소가 있으며, 각 지역은 <표 4-11>과 같다.

- 전체의 절반 이상인 21개 센터가 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5개로 가장 많다.
-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6~7개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다. 경상북도는 기초생활권을 통틀어 2개소뿐으로 가장 적으며, 강원도, 충청도 등도 각각 3개소가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현황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으로서, 기초생활권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보다 정교한 지표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각 센터의 시설 및 운영 규모, 즉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어떠한지, 운영 인력 및 이용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당 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현황을 바탕으로 각 시·군 내에서도 수혜지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4-11. 여성농업인센터 현황(2009.3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8 (100%)	4 (10.5%)	3 (7.9%)	3 (7.9%)	3 (7.9%)	7 (18.4%)	4 (10.5%)	2 (5.3%)	6 (15.8%)	6 (15.8%)
일반시	7			청주시(1)						제주시(2), 서귀포시(4)
도농복합시	10	용인시(1), 이천시(1), 김포시(1)				남원시(2)	나주시(1)	안동시(1)	진주시(1), 사천시(1), 창원시(1)	
군	21	여주군(1)	양구군(1), 횡성군(1), 평창군(1)	영동군(1), 청원군(1)	서천군(1), 홍성군(1), 예산군(1)	진안군(1), 부안군(1), 임실군(1), 고창군(1), 부안군(1)	장성군(1), 고흥군(1), 무안군(1)	영양군(1)	거창군(1), 합천군(1), 함안군(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009.3

□ 다문화가정

- 기초생활권 다문화가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사회적 영향이 커지면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도 더욱 증대하고 있다.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다문화가정 현황에 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주민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현황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 외국인주민을 통해 집계하였으며, 국적미취득 국제결혼이주자와 국적취득 혼인귀화자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 2007년 기준 기초생활권에는 시·군당 평균 413.2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있다. 일반시에 가장 높은 평균 996.0가구가 거주하며, 도농복합시에 528.6가구가 거주한다. 군은 이보다 상당히 낮은 173.9가구가 있다.
- 시·군의 총 가구에 대한 다문화가정 비율로 나타내면, 기초생활권에는 0.72%, 대도시에는 0.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군의 경우 다문화가정 수는 가장 작은 수치이나, 다문화가정의 비율 면에서는 0.78%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4-12. 기초생활권 다문화가정 현황(2007년)

구분	단위: 명, %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평균 국제결혼 외국인주민 수 (다문화가정 수)	413.2	996.0	528.6	173.9	8661.3	752.8
평균 국제결혼가정 자녀 수	183.5	208.9	239.8	142.1	2120.7	263.3
총 가구에 대한 다문화가정 비율	0.72	0.66	0.63	0.78	0.58	0.71

자료: 행정안전부. 지자체별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07.

1.7. 교육서비스

□ 공공 교육서비스: 각급 학교 수 및 교원당 학생 수

- 공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기초생활권에서 교육서비스 여건을 파악하고자, 각급 학교 수, 교원당 학생 수를 살펴보았다.
 -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km^2 당 학교 수 및 km^2 당 유치원 수 지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교원당 학생 수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 서비스 제공 환경을 비교해 볼 수 있다.
- 기초생활권에는 km^2 당 0.16개의 학교(초·중·고)가 있으며, km^2 당 0.14개의 유치원이 있다. 그러나 세부 지역별로 격차가 심하여, 일반시의 경우 0.63개의 학교와 유치원이 있는 반면, 군에는 학교가 0.05개, 유치원이 0.04개에 불과하다.
- 고등교육인 대학의 경우, 기초생활권 시·군이 평균 1.5개인 데 반해 대도시의 평균 20.6개 절대적인 차이를 보인다. 군은 평균 0.5개로 1개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 교원당 학생수는 기초생활권이 대도시에 비해 크게 낮다(표 4-13 참조). 일반시-도농복합시-군의 순서로 점차 더 적어지는데, 군에서는 교원 1인당 초등학교는 평균 14.7명, 중학교는 11.3명, 고등학교는 10.6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 교원당 학생 수 측면에서는 환경이 더 양호하였다.

표 4-13. 기초생활권 공공 교육서비스 현황(2005년)

단위: 개소, 명

구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km ² 당 학교 수 (초·중·고)	0.16	0.63	0.11	0.05	0.69	0.18	
km ² 당 유치원 수	0.14	0.63	0.09	0.04	0.53	0.16	
대학 수	1.5	2.1	2.8	0.5	20.6	2.2	
교원당 학생 수	초등학교	21.6	44.2	22.2	14.7	41.5	22.4
	중학교	14.8	21.3	17.8	11.3	21.5	15.1
	고등학교	13.0	18.8	14.3	10.6	18.1	13.2

주: 대학은 전문대학 이상임.

자료: 각 시도교육통계연보, 2005.

-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교육 관련 지표로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적이 있는 아이들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어 교육의 질적 비교가 가능하다.¹⁹ 따라서 기초생활권의 교육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양적 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 서비스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서비스 효과 지표를 개발·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국 Neighborhood Statistics에도 역시 질적인 교육성으로 학생성적, 교육성과율, 국가교과과정평가, 중학생에 대한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등 질적평가가 가능한 통계들이 제시된다.
 - 또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수인 결핍지수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¹⁹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보고서에서는 학습효과 항목으로 ‘학교 성적이 5 혹은 A*이상을 얻고 있는 초등학생의 비율’을 포함한다.

□ 민간 교육서비스

- 공교육과 함께 사교육 서비스 여건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민간 교육 서비스는 시도교육통계연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설학원의 개수 및 사설학원 강사 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 이용대상 규모에 대한 민간 교육서비스 공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천 명에 대한 해당 지표를 사용하였다.
- 기초생활권에는 시·군 평균 7.98개의 사설학원이 위치해 있다. 일반시와 도농복합시는 약 8~9개로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 군지역은 이보다 낮은 7.40개로 수적(數的) 측면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나, 데이터상에 나타나기 어려운 질적 수준이 중요하다.
- 학생 천 명당 사설학원 강사 수는 기초생활권이 17.3명, 대도시가 21.5명으로 대도시가 보다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군은 14.0명으로 타 지역들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4-14. 기초생활권 사설학원 현황(2005년)

구분	단위: 개소, 명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학생(초·중·고) 천 명당 사설학원 수	7.98	8.24	8.82	7.40	8.08	7.98
학생(초·중·고) 천 명당 사설학원 강사 수	17.3	21.3	20.9	14.0	21.5	17.4

자료: 각 시도교육통계연보, 2005.

□ 교육서비스 접근성

- 교육서비스가 양적으로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가에 못지 않게, 교육서비스가

지 도달하기 위한 접근성 측면이 중요하다. 기초생활권 각 마을에서 교육서비스까지의 거리를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파악해 보았다.

-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에서는 36,041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표 4-17>의 각급 서비스로의 거리를 조사한 바 있다.²⁰
 - 전체 조사대상지 마을 중 14,581개 행정리(40.5%)가 도농복합시에 해당하며, 21,460개 행정리(59.5%)가 군이다.
- 대체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마을에서 2~5km 범위 또는 마을 밖~2km 이내 범위에 위치한 경우가 높았다.
 - 군의 경우 어린이집이 5~10km 범위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가 22.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도농복합시보다 접근성에서 불리하였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 중학교는 2~5km 범위가 3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0km 범위가 26.1%로 높았다. 전체 마을의 약 41%가 중학교에 가기 위해 5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 고등학교는 15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마을이 24.2%를 차지하는 점이 특징적이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가장 먼 거리를 가야 한다.

²⁰ 마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표 3-13>과 같이 주어진 시설까지의 거리를 묻고, ① 마을 내에 있다 ② 2km 이내, ③2~5km, ④5~10km, ⑤10~15km, ⑥15km 이상 등 6가지 선택항 중에서 택하는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표 4-15. 기초생활권 마을의 교육서비스 거리 응답 비율

단위: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 내	기초생활권	10.0	10.5	11.0	4.9	2.6
	도농복합시	12.5	11.7	11.9	4.7	2.4
	군	8.2	9.6	10.4	5.0	2.7
2km 이내	기초생활권	21.2	29.2	33.3	21.0	12.2
	도농복합시	23.9	31.7	36.1	21.4	11.8
	군	19.4	27.4	31.5	20.7	12.4
2~5km	기초생활권	29.6	34.3	35.6	33.5	20.8
	도농복합시	29.7	33.4	34.8	32.6	19.6
	군	29.5	35.0	36.1	34.1	21.6
5~10km	기초생활권	20.2	16.3	14.4	26.1	25.4
	도농복합시	17.3	14.1	12.2	25.9	25.5
	군	22.2	17.9	15.9	26.3	25.4
10~15km	기초생활권	8.5	4.9	3.7	8.5	14.8
	도농복합시	7.2	4.2	3.1	8.3	14.9
	군	9.3	5.4	4.2	8.5	14.7
15km 이상	기초생활권	10.6	4.8	2.0	6.0	24.2
	도농복합시	9.4	5.0	1.9	7.0	25.8
	군	11.4	4.6	2.0	5.4	23.1

주: 각 서비스 항목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경우를 진한색(■)으로, 2순위로 응답률이 높은 경우를 옅은색(□)으로 표시함.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2005년

- 연령이 낮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서비스의 경우, 도농복합시와 군지역 간에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그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4-3과 4-4 참조).

- 도농복합시가 군보다 마을~5km 이내의 범위에 해당 교육서비스가 위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린 아이들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 접근성 면에서 유리하다.

그림 4-13. 기초생활권 마을에서 어린이집까지의 거리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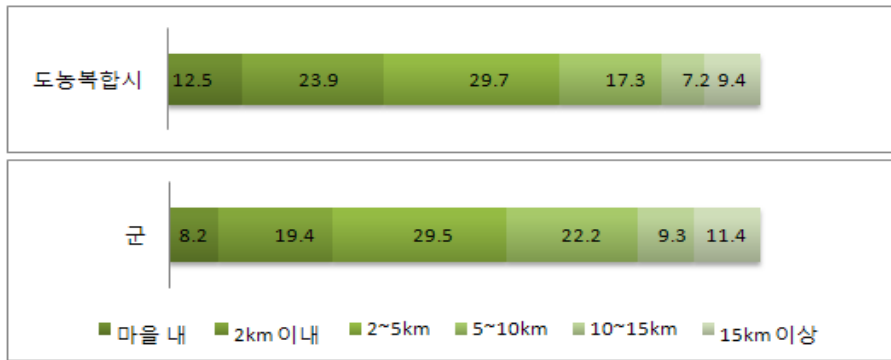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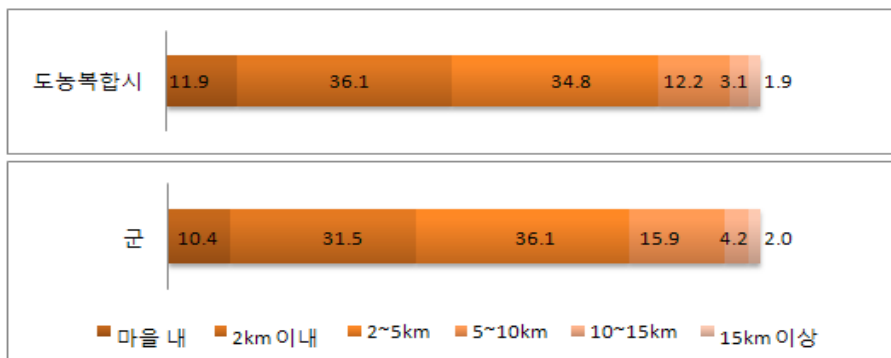


그림 4-14. 기초생활권 마을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응답 비율



1.8. 문화·여가서비스

□ 공연장 및 전시장

- 공연장 및 전시장²¹, 영화관 시설 현황과 관련한 몇 가지 지표를 통해 기초

²¹ 전시장은 미술관과 화랑의 합계로 나타내었다. 단, 2001년 이후에는 서울시의 화랑 수가

생활권 주민이 공연이나 영화를 감상하고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의 문화·여가서비스 여건을 살펴볼 수 있다(표 4-16 참조).

- 공연장 수와 전시장 수, 영화관 수 모두에서 기초생활권은 대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기초생활권 시·군의 평균 공연장 수 1.60개, 평균 전시장 수 1.12개, 평균 영화관 수 3.52개에 비하여, 대도시 시·군의 평균은 각각 40.86개, 27.43개, 41.57개로 격차가 심하다.
- 기초생활권 시·군의 인구가 대도시보다 매우 낮음을 반영할 경우(인구 만 명당 시설 수) 수치상의 격차는 줄어든다. 그러나 문화·여가서비스는 시설 개수 외에 시설의 질적 수준이 더욱 중요함을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단순히 시설 수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4-16. 기초생활권 사설학원 현황(2005년)

단위: 개소

구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공연장 수	1.60	3.76	2.10	0.69	40.86	3.20
인구 만 명당 공연장 수	0.138	0.157	0.110	0.149	0.126	0.137
km ² 당 공연장 수	0.008	0.039	0.004	0.001	0.062	0.010
전시장 수	1.12	2.36	1.31	0.66	27.43	2.19
인구 만 명당 전시장 수	0.102	0.124	0.058	0.122	0.131	0.103
km ² 당 전시장 수	0.004	0.017	0.002	0.001	0.039	0.005
영화관 수	3.52	14.04	3.94	0.27	41.57	5.06
인구 만 명당 영화관 수	0.657	0.298	1.572	0.219	0.181	0.638
km ² 당 영화관 수	0.026	0.153	0.008	0.001	0.064	0.027

자료: 각 시도교육통계연보, 2005.

집계되지 않아 서울특별시는 제외하였다. 또한 25개 일반시 중 13개 시의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일반시의 현황 수치는 상당 부분 신뢰도가 떨어짐을 감안해야 한다.

□ 도서관

- 기초생활권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고자, 시도교육통계를 토대로 시·군별 평균 도서관 수, 인구 만 명당 도서관 수, km²당 도서관 수를 파악하였다(표 4-17 참조).
- 기초생활권 시·군에서는 평균 2.35개의 도서관이 이용 가능하다. 반면 대도시는 평균 20.71개로 차이가 크다. 군지역은 1.57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인구 만 명당 도서관 수에서는 수치상 기초생활권이 대도시보다 양호하게 나타난다. 기초생활권에는 인구 만 명당 0.280개의 도서관이 있는 반면, 대도시에는 0.069개이다. 그러나 공연장 및 전시장 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역시 개수보다는 규모나 시설, 이용가능한 서비스 등 시설의 질적 수준이 더욱 중요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단순히 시설 수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4-17. 기초생활권 도서관 현황(2005년)

단위: 개소

구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도서관 수	2.35	3.24	3.23	1.57	20.71	3.09
인구 만 명당 도서관 수	0.280	0.150	0.183	0.373	0.069	0.271
km ² 당 도서관 수	0.009	0.036	0.005	0.003	0.031	0.01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005.

□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 프로그램 상시운영시설)

- 기초생활권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역문화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았다.²²
- 기초생활권에는 시·군당 평균 5.77개의 문화복지시설이 있다. 대도시는 평균 59.00개로 시설 수에서 10배가 넘는다.
 - 인구 규모를 고려한 인구 만 명당 시설 수의 경우, 기초생활권에서 인구 만 명당 0.922개 시설이 이용가능한 반면, 대도시에서는 인구 만 명당 0.150개 시설이 있다.
 - 그러나 접근성 측면을 고려한 km²당 시설 수에서는 대도시가 기초생활권 보다 유리한 환경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지역문화복지시설 역시 시설 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나 다양성, 참여 인원 등 보다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4-18. 기초생활권 지역문화복지시설 현황(2005년)

단위: 개소

구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지역문화복지시설 수	5.77	7.25	4.96	5.80	59.00	7.54
인구 만 명당 지역문화복지시설 수	0.922	0.321	0.288	1.519	0.150	0.896
km ² 당 지역문화복지시설 수	0.019	0.068	0.009	0.010	0.089	0.022

자료: 각 시도통계연보. 2005.

²² 지역문화복지시설에는 시·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복지회관)이 속한다.

□ 지역축제

- 비상시적으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로서 지역축제가 있다. 지역축제 현황은 기초생활권의 경제활동에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 지표로서, 여기에서는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단순히 개최 현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
 - 개최 현황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축제 수, 축제의 장소 및 시기, 주요 프로그램, 참여객 규모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 시·도를 통해 시군구별 축제 현황을 집계한다.
 - 데이터에는 각 축제의 개최기간, 축제의 주요 내용(프로그램), 축제주최 기관, 최초개최연도 및 개최회수, 축제예산, 축제 종류²³의 항목에 관한 현황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표 4-19. 기초생활권 지역축제 수 현황(2009년)

단위: 개

구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축제 수	657 (73.2%)	101 (11.2%)	251 (28.0%)	305 (34.0%)	241 (26.8%)	898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009.

- 2009년 3월 기준 전국의 각 시·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지역축제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총 898개 지역축제가 있으며 이 중 기초생활권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전체의 73.2%인 657개이다.
 - 기초생활권 중에서는 군에서 전체 축제의 34%인 305개 축제가 개최되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농복합시에서 251개 축제(28.0%)가 열린다.

²³ 관광특산축제, 문화예술축제, 건강축제, 구민화합축제, 다국적다문화축제, 전통민속 축제, 기타 등으로 축제 종류를 구분한다.

- 일반시는 전체의 11.2%에 해당하는 101개 축제가 있으며, 이는 대도시 241개(26.8%)보다 낮다.
- 그러나 단순히 축제의 개수보다는 각 축제 기간 동안 방문하는 참여객 수를 집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객 수를 바탕으로 축제의 활성화 정도 및 효과, 즉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참여객 수 및 지출액 데이터를 보강하여 축제의 실질적 효과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정확히 집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주민 모임장소

- 주민 모임장소로는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모여서 각종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회의 등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마을회관, 경로당, 면민회관 등이 있다.
- 각 읍·면에는 이러한 시설들의 마을별 현황을 취합한 행정자료가 있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각 읍·면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데 모아진 데이터는 구축된 바가 없다.

1.9. 공원 및 체육서비스

□ 도시공원²⁴ 및 자연공원

²⁴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 공원은 비교적 생활권 단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도시공원의 수와 면적, 자연공원의 면적을 지표로 하여 기초생활권의 공원(도시공원 및 자연공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도시공원 수 데이터의 경우 대도시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 기초생활권에는 시·군 평균 3.9km²의 도시공원과 평균 80.0km²의 자연공원이 있다. 기초생활권의 도시공원이 대도시의 평균 123.7km²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은 도시공원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정하는 공원이기 때문이다.
 - 자연공원의 경우 기초생활권이 대도시의 평균 29.3km²에 비해 2.7배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자연공원의 면적 비율 역시 대도시 평균 4.53%에 비해 기초생활권은 14.99%로 3.3배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4-20. 기초생활권 공원 현황(2005년)

단위: 개소, km², %

구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도시공원 수	41	-	75.0	20.0	-	-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수	0.374	-	0.360	0.382	-	-
도시공원 면적	3.9	6.1	5.8	2.0	123.7	8.8
1인당 도시공원 면적	0.032	0.025	0.032	0.034	0.042	0.032
도시공원 면적 비율	1.45	5.41	1.25	0.43	16.76	2.08
자연공원 면적	80.0	26.4	70.6	94.2	29.3	78.0
1인당 자연공원 면적	1.56	0.23	0.46	2.43	0.01	1.49
자연공원 면적 비율	14.99	15.95	13.09	15.95	4.53	14.58

주: 일반시 및 대도시의 도시공원 수 데이터가 부재하여 이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각 시도통계연보, 2005.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그 합계를 사용하였다.

□ 체육시설

- 각 시도통계연보를 토대로 기초생활권의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았다. 체육시설은 수영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등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로, 각 시·군의 등록체육시설 수를 기준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일반시 및 대도시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도농복합시와 군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 2005년 기준 기초생활권의 도농복합시에는 시·군 평균 222.75개, 군에는 평균 44.23개의 체육시설이 있다.
 - 도농복합시에는 군의 5배가 넘는 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 천 명당 시설 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 그러나 1km²당 체육시설 수는 도농복합시가 0.411개, 군이 0.081개로 나타나 도농복합시가 접근성을 고려한 체육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군보다 양호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21. 기초생활권 체육시설 현황(2005년)

단위: 개소

구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체육시설 수	110.54	-	222.75	44.23	-	-
인구 천 명당 체육시설 수	0.92	-	1.00	0.88	-	-
km ² 당 체육시설 수	0.204	-	0.411	0.081	-	-

주: 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임.

자료: 각 시도통계연보, 2005.

1.3. 교통 여건

□ 마을별 대중교통 운행 빈도

- 기초생활권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대중교통 유형별로 운행 빈도를 살펴보았다. 대중교통 여건 진단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가 의미 있으므로, 시·군 범위 내에서도 마을 단위까지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편에서는 기초생활권 읍·면에 속한 36,041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운행 빈도를 조사하고 있다.
 - 조사대상 대중교통으로는 시내(군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여객선(유·도선)을 제시하고, 버스승차장 또는 선착장까지 걸어서 15분 내에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의 일일 운행 횟수를 조사한다.

표 4-22. 대중교통 운행 빈도(2005년)

단위: 회/일

구 분	시내(군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여객선(유·도선)
일반시	-	-	-	-
도농복합시	18.1	1.2	3.8	0.06
군	11.0	0.4	2.8	0.11
기초생활권	13.9	0.7	3.2	0.09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2005.

- 시·군 내에서의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을 살펴볼 때, 기초생활권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내(군내)버스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13.9회 운행

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평균 0.7회로 1회가 되지 않았다.

- 도농복합시와 군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 시내(군내)버스는 하루에 7회 가까이 차이가 난다. 마을버스의 경우도 도농복합시가 군보다 3배 정도 더 자주 운행하고 있다.

- 시·군 외부로 이동하기 위한 시외버스는 기초생활권 평균 3.2회 운행한다. 군 지역의 경우 하루에 3회가 되지 않으며, 도농복합시도 3.8회 이용 가능하다.
- 영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표로서 1시간 이내에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도보로 13분 이내에 있는 가구 수 데이터를 구축한다.
 - 단순히 운행 회수를 파악하기 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서비스를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족하는 가구 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 마을에서 버스승차장까지의 소요시간

- 마을별 대중교통 운행 빈도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세밀하게 마을 단위에 서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행 빈도와 더불어, 마을에서 버스승차장까지 소요되는 시간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기초생활권의 교통 여건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전무하여 향후 신규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전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체계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부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도로 기반

- 기초생활권의 교통 여건을 살펴보는 데 있어 간접적으로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도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 도로 기반 현황은 각 시·군의 총면적에 대한 도로(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면적의 비율인 도로포장률을 지표로 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시·군별 도로포장률 데이터는 각 시군통계연보를 통해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도 또는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재하는 경우도 있어,²⁵ 정확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책 판단이 방해받을 수 있다.
 -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현재 구축되고 있는 방식을 유지하되, 보다 정확하고 전체적으로 완결성 있는 데이터 구축이 요구된다.
- 기초생활권 지역은 평균 73.3%의 도로포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 97.4%에 비해 24.1% 더 낮은 수치이다. 대도시의 도로 기반이 상당히 잘 갖추어진 데 비해, 기초생활권에서는 약 26.7%의 도로가 적절히 포장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도농복합시가 70.9%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군이 72.4%로 도로 기반이 열악하였다.
 - 일반시의 경우 81.4%로 기초생활권 전체 지역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로 기반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²⁵ 데이터가 부재하여 제외된 시·군은 여수, 순천, 나주, 광양(이상 ‘도농복합시’),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북제주, 남제주(이상 ‘군’), 목포, 제주, 서귀포(이상 ‘일반시’)이다.

표 4-23. 기초생활권 도로포장률(2005년)

단위: %

구 분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기초생활권	대도시	전체
평균 도로포장률	81.4	70.9	72.4	73.3	97.4	74.5

주: 평균 도로포장률은 일부 데이터가 부재한 시·군을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각 시도통계연보. 2005.

- 도로포장률 현황에서 부재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군 전체 면적에 대한 도로면적의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여 보았다.²⁶ 기초생활권은 도로가 평균 3.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도시 6.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특히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군 지역의 도로면적 비율은 2.3%로 매우 낮는데, 이는 일반시 또는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약 1/3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다.
 - 기초생활권 중 일반시에는 수도권의 대형 도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대도시의 경우보다 오히려 높은 도로면적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4. 기초생활권 도로면적 비율(2005년)

단위: %

구 분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기초생활권	대도시	전체
평균 도로면적 비율	6.6	2.8	2.3	3.1	6.3	3.2

자료: 각 시도기본통계. 토지지목별 현황. 2005.

²⁶ 지적법에서 정하는 지목상 도로는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2. 중심지 접근성

- 앞서 살펴본 다양한 지표들은 기초생활권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부문의 서비스들을 반영한 것으로, 각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서비스(시설)의 규모 측면에서 주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로의 접근성 측면에서의 현황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 접근성은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서비스 공급 정도가 낮고 이용 거리가 먼 농촌지역에서 보다 중요하다.
- 이러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각종 서비스들이 각 차원의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게 되므로,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인근 중심 도시를 대상으로 이러한 중심지들로의 접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로의 접근성

- 기초생활권의 각 마을에서 마을이 속한 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 또는 소요시간을 통해 접근성을 파악함으로써, 기초생활권 주민들이 지역의 하위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의 서비스(시설)를 이용하기 위한 여건이 어떠한지 진단할 수 있다.²⁷
- 그러나 현재로서는 마을과 읍·면 소재지 간 거리나 소요시간을 파악할 수

²⁷ 마을의 위치에 따라서는 행정구역상 마을이 속한 읍·면이 아닌 인근 읍·면 소재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마을에서 최단 거리에 위치한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야 하겠으나, 거리 요소 외에도 동일 행정구역이라는 관습적·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단순히 최단 거리를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구축 시에는 우선적으로는 마을이 속하는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있는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 다만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있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농협까지의 거리’를 대리지표로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는 있겠으나, 농협이 반드시 읍·면 소재지에만 입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예컨대, 평창군의 경우 1읍 7면에 대하여 총 17개 농협 중 5개 농협이 면소재지가 아닌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 마을 분산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성 측면에서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방식이 한 가지 대안으로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권 지역 주민들이 1차적으로 중심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 읍·면 소재지에 대한 이용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서 마을과 읍·면 소재지 간 접근성 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편에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 또는 ‘행정구역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 문항을 추가하여 향후 데이터를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시·군청 소재지로의 접근성

- 기초생활권의 각 읍·면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의 거리 또는 소요시간을 통해 접근성을 파악함으로써, 기초생활권 주민들이 읍·면 소재지보다 상위 중심지인 시·군청 소재지의 서비스(시설)를 이용하기 위한 여건이 어떠한지 진단할 수 있다.
- 현재 읍·면과 시·군청 소재지 간 거리나 소요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8년 1회에 걸쳐 전국 1,418개 읍·면에 대하여 시·군청 소재지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 데

이터를 구축한 바 있다.

- 두 지점 간 거리 및 소요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읍·면 소재지와 시·군청이 입지한 지점을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 연구원에서 구축한 데이터에 의하면, 2008년 기준 기초생활권 지역은 읍·면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 평균적으로 약 15.1km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로 약 30분이 소요된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 평균 15.8km가 떨어져 있어 약 35분이 소요되며, 군의 경우 평균 14.6km 떨어져 약 2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읍·면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의 접근성(2008년)

단위: km, 분, km²

구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평균 거리	15.081	-	15.811	14.627
평균 소요시간	29.6	-	34.6	26.5
평균 면적	63.4	-	59.0	66.1

주: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시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기초생활권 평균은 도농복합시와 군을 대상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2008.

□ 인근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 기초생활권 시·군에서 인근 중심도시로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심도시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 시·군에서 인근 중심도시까지의 접근성을 거리 또는 소요시간의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2년도에 구축한 ‘인근 대도시와 시·군 간 거

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시·군에서 인근 대도시까지의 평균 거리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기초생활권 시·군은 대도시로부터 평균 27.8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농복합시는 인근 중심도시까지 평균 25.9km, 군 지역은 평균 28.9km 떨어져 있다. 큰 차이는 아니나 군 지역이 3km 정도의 거리만큼 접근성이 낮다.

- 기초생활권 중 도농복합시와 군에 해당하는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인근 대도시(서울시와 6대 광역시)까지의 거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 일반시의 경우 기초생활권 중에서 그 자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발전 정도를 가지는 지역이므로 데이터 구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4-26. 인근 대도시까지의 거리(2002년)

구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단위: km
				군
시·군 평균 거리	27.8	-	25.9	28.9

주: 일반시는 구축된 데이터가 없으며, 기초생활권 평균은 도농복합시와 군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2002.

-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시·군의 인근 중심도시로서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권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인근 도시와는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근 중심도시를 정의하기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 예컨대, 주변 지역에 대하여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 규모, 통근·통학 및 인구이동 규모, 경제활동 규모 등의 기준을 만족하면서, 각 시·군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시를 인근 중심도시로 정의·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10. 정보통신기술(ICTs) 이용 여건

□ 컴퓨터 활용 현황

- 기초생활권 주민의 컴퓨터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2005년 기준 농림어업 총조사의 컴퓨터 활용 농가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농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용도의 컴퓨터 활용 현황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컴퓨터의 보유 여부와 함께 농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활용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 또한 농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경우,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였는지 보기 항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며, 농업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는지 여부도 조사하였다.
- 한편 이러한 데이터는 컴퓨터 활용에 대한 것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인터넷을 통해 외부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s)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컴퓨터 활용은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위한 기초적 능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 정보통신기술(ICTs) 이용 여건에 있어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용 현황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정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현재 전국 단위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현황이 구축된 자료는 부재하며, 2000년 1회에 걸쳐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각각 인터넷활용인구, 인터넷전용회선 보유가구를 부분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
- 일부 구축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31>과 같다. 기초생활권과 대도시를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부분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 도농복합시는 32.27% 인구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군의 경우 이보다 못 미친 21.61%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 일반시 및 대도시의 경우 인터넷전용회선 보유가구 비율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반시가 22.95%, 대도시가 25.56%였다.
- 정보통신기술은 기초생활권내 각종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한 가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현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특히, 기초생활권 중 농촌지역인 읍·면의 마을 단위로 데이터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27. 기초생활권 인터넷 활용 현황(2000년)

구 분	단위: %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인터넷활용인구 비율	25.57	-	32.27	21.61	-	-
인터넷전용회선 보유가구 비율	-	22.95	-	-	25.56	-

주: 인터넷활용인구 비율에서 기초생활권은 일반시와 도농복합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00., 통계청.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인구」, 2000

□ 마을 단위 홈페이지 개설

-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에서는 마을 단위나 작목반, 어촌계 단위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지와 홈페이지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다.²⁸
 - 홈페이지의 용도로서 농림수산물 판매(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구 수), 안내, 예약 등 농어촌 관광, 마을·작목반·어촌계 소개 등 마을안내, 기타를 제시한다.
- 마을 단위의 집합적 홈페이지 개설·운영은 기초생활권 지역에서 중요한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형태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활성화 정도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며, 농림수산물 판매나 농촌관광, 마을(지역)에 대한 마케팅 등을 통해 마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11. 경관 및 어메니티 여건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 현황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 현황은 사업대상지 수, 사업지 면적, 참여농가 수 등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2005년 시범사업 이래 최근까지 매년도의 사업대상지역 선정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 각 시·군의 마을 단위 대상사업지와 신청자 수, 사업 면적, 해당 경관작물 등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²⁸ 홈페이지 개설 관련 문항의 조사 결과를 구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입이 필요하다.

-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의 경관을 가꾸기 위해 일반작물 대신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을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므로 읍·면지역인 군과 도농복합 시에서 주로 추진된다.
- 2005년과 2007년 두 시점 간 비교할 경우, 사업대상지는 46개소에서 59개소로 약 28% 증가하였고, 사업지 면적은 4.72km²에서 7.95km²로 약 68%가 증가하였다.
 - 2006년도에는 비교적 정채된 모습을 보이고,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지 않아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증가 추이는 향후 충분한 시계열적 자료 구축을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

표 4-28.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현황

단위: 개, 가구, km²

구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사업대상지 개소 수	2005년	46	1	12	33	1	47
	2006년	38	1	8	29	0	38
	2007년	59	1	14	44	1	60
참여농가 수	2005년	760	80	174	506	10	770
	2006년	681	65	122	494	0	681
	2007년	-	-	-	-	-	-
총 사업지 면적	2005년	4.72	0.39	1.14	3.19	0.05	4.77
	2006년	4.71	0.47	0.87	3.37	0.00	4.71
	2007년	7.95	0.40	2.15	5.40	0.05	8.00

주: 2007년도 참여농가 수는 데이터가 부재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005~2007.

- 경관보전직불사업에서는 한 해에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다음 해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구들도 다수 나타난다. 따라서 동일 지구에서 2년 또는 3년 이상 경관보전사업을 계속 추진해 온 사업지구에 한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업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4-29>와

같다. 기초생활권 중에서 도농복합시와 군에서 96.6%인 대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73.3%로 압도적으로 높다.

표 4-29. 기초생활권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지 현황(2007년)

단위: 개, m²

구 분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합계	개소	59 (98.3%)	1 (1.7%)	14 (23.3%)	44 (73.3%)	1 (1.7%)
	지속지구	15				
	면적	7,947,000	400,000	2,149,049	5,397,951	53,000
대도시	개소					1
	지속지구					53,000
	면적					-
경기	개소	2		2		
	지속지구	0	-	-	-	-
	면적	128,368		128,368		
강원	개소	1			1	
	지속지구	1	-	-	평창 봉평 창동(메밀)*	-
	면적	394,000			394,000	
충북	개소	1			1	
	지속지구	0	-	-	-	-
	면적	65,000			65,000	
충남	개소	5		1	4	
	지속지구	2	-	-	홍성 서부 궁(유채)*, 홍성 서부 궁(코스모스)*	-
	면적	240,533		84,216	156,317	
전북	개소	7		3	4	
	지속지구	2	-	남원 사매 서도(자운영)*	고창 부안 송현(들국화)*, 고창 공음 선동(메밀 해바라기)*	-
	면적	1,803,876		880,000	923,876	
전남	개소	14		2	12	
	지속지구	2	-	나주 공산 신곡(유채)	장흥 회진 산전(유채), 신안 지도 내양(유채)*	-
	면적	2,749,620		651,188	2,098,432	
경북	개소	8		4	4	
	지속지구	4	-	안동 북후 신전(메밀)*, 포항 구룡포 성동(유채)	봉화 소천 임기(두릅(메밀), 예천 용궁 대은2(유채), 영양 수비 수하2(메밀), 고령 쌍림 산주(자운영)	-
	면적	539,503		239,277	300,226	
경남	개소	20		2	18	
	지속지구	3	-	-	산청 단성 남사(유채)*, 함양 백전 오천(하고초), 하동 북천 직전(메밀 코스모스)	-
	면적	1,626,100		166,000	1,460,100	
제주	개소	1	1			
	지속지구	1	제주 우도 서광(유채)			
	면적	400,000	400,000			

주: 지속지구는 2007년 대상지구 중에서 동일 지구에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시행한 경우이며,

*표시는 2005년부터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3년 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한 경우임.

자료: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2005-2007.

□ 녹지공간 보유

- 각 시도통계를 토대로 기초생활권의 녹지공간 보유 현황을 살펴보았다. 녹지공간은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지표로서 총 면적에 대한 녹지율을 사용하였다.
- 2005년 기준 기초생활권에는 시·군 평균 66.9%의 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대도시의 평균 녹지율 54.4%에 비해 환경 및 어메니티 측면에서 뛰어난 환경을 가지는 것이다.
-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일반시의 경우에는 대도시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준인 53.6%의 녹지율을 보이며, 군의 경우 71.5%로 상당히 높은 정도의 녹지율을 나타내었다.

표 4-30. 기초생활권 녹지율 현황

구 분		단위: %					
		기초생활권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대도시	전체
녹지율	2000년	67.2	54.6	64.6	72.2	55.2	66.7
	2005년	66.9	53.6	65.5	71.5	54.4	55.4

주: 1) 녹지율은 전체 토지면적 중에서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면적의 비중임.

2) 2005년 데이터의 일부는 시·군 사정에 따라 2004년 혹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각 시도통계연보, 2000, 2005.

- 영국에서는 환경과 관련하여 단순히 녹지공간 지표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²⁹
 - ‘환경의 질’에서는 수질(강 길이)과 공기(이산화탄소, 오존 등), ‘기후변화’에서는 탄소배출량(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요소별 탄소배출량(주택, 교통, 음식, 소비자아이템, 개인서비스), 부문별 탄소배출량(국내산업, 농업, 교통, 총배출량)으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²⁹ 영국 잉글랜드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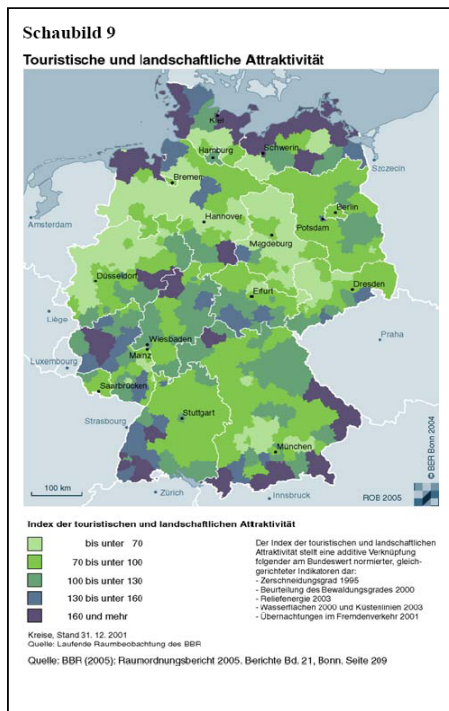
○ 호주에서도 농촌지역의 통계 구성 중 환경통계로 자연자원 통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에 관한 통계를 구축한다.³⁰

- ‘자연자원 통계’로 자연자원 부존량 및 금액, 토지이용(농업용·임업용·광업용 등), 물의 소비량 및 공급량 통계가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에 관한 통계’로 물의 염도(level of salinity), 토양 오염도, 환경보존 프로그램 통계가 있다.

참고: 독일의 어메니티 맵 개발 사례

농촌지역에서 도시민의 정주지로서의 매력도 및 관광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경관적 매력 증진이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관적 매력은 단지 지형이나 자연경관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농림업적 이용, 역사적 건물 및 기념물 등 복합적 요인으로 결정된다.

이 대 사용된 지표는 1995 조각화 정도, 2000 삼림조성수준, 2003 재생에너지, 2000 수면면적 및 2003 해안선 길이, 2001 관광목적의 숙박업소 지표 등을 합산해 계산한 것이다.



<그림> 경관의 매력도

범례: 매력도 지표

출처: 2005 공간질서(우리나라 국토계획 해당) 보고서

³⁰ 호주 통계청. 2005. 「농촌지역통계를 위한 정보발전계획(Information Development Plan for Rural and Regional Statistics)」.

□ 산림휴양시설 현황

- 기초생활권의 경관 및 어메니티 여건과 관련하여 산림휴양시설 현황을 통해 진단해 볼 수 있다.
 - 산림휴양 수요에 대한 야외휴양자원으로서 자연휴양림, 학교숲, 가로수, 삼림욕장, 수목원 등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 산림청의 임업통계 중 산림서비스(forest service) 부문에서 산림휴양시설과 관련한 몇 가지 데이터를 구축하여 공표하고 있다.
 - 산림서비스로서 자연휴양림의 조성, 운영 및 이용 현황, 가로수 심기 현황, 삼림욕장 조성 현황, 수목원, 산림박물관 조성 현황, 학교숲 조성 현황 데이터를 제공한다.
 - 이 중 산림휴양시설 현황 지표로서 가로수를 제외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산림박물관, 학교숲 조성 현황으로 한정하여 살펴본다.³¹
- 전국 단위로 파악해 본 2007년 말 기준 각 산림휴양시설의 조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총 126개의 자연휴양림이 있으며, 총 면적은 약 135,48ha이다. 이 중 국유림에 조성되어 있는 국유 자연휴양림은 38개(30.2%)로 면적으로는 116,19ha(85.8%)를 차지하며 개소당 평균면적은 3,058ha이다.
 - 삼림욕장은 전국적으로 122개 있으며, 총 면적이 7,261ha, 개소당 평균 면적이 59.5ha이다.
 - 수목원은 전국에 39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3개소로 가장 많은 수가 조성되어 있다.
 - 학교숲은 1999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06년 말 기준 총 616개가 조성되

³¹ 학교숲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환경교육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며, 도시 내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지역공동체 문화교류의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었다.

- 그러나 임업통계연보에 나타난 이러한 데이터들은 전국 내지 시·도 단위, 또는 개별 휴양시설(위치 표기)별로 제공되고 있다.³²

2. 생활환경 현황 지표 분석결과의 종합 및 정책 방향

1.1. 생활환경 현황 지표와 관련한 시사점

-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에 대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서비스의 질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 보강

- 다양한 항목에서의 기초생활권 서비스 이용 여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재 구득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항목 현황을 서비스 공급량인 시설 수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 이러한 시설 수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 공급 현황으로서 면적 당 시설 수, 서비스 이용 대상층을 고려한 서비스 공급 현황으로서 인구 당 시설 수 등의 지표를 활용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질적 격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³² 기초생활권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자료 구득 및 가공이 필요하다.

- 앞서 서비스 현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사례에서는 양적 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 서비스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구축하고 있다.
 - 예컨대, 영국은 교육서비스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나타내고자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적을 받은 아이들의 비율을 지표로 제시한다.
- 따라서 생활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부문에서 단순히 시설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으로 1차적인 지표에 그치지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파악 가능한 지표로 발전시켜야 기초생활권의 실질적 생활 여건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같은 서비스가 하더라도 서비스의 위계(저·중·고차서비스 등)별 또는 규모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파악하거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체계적 접근

- 기초생활권 서비스 접근성을 살펴보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서비스의 공급 정도(시설 수),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도달 거리 내지 이동 시간이다.
- 영국의 사례에서는 서비스 접근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시설, 서비스 시설 접근성, 서비스 시설 접근의 편리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 ① 서비스 제공 시설은 은행과 현금지급기, 수술시설, 구직센터, 치과, 학교, 슈퍼마켓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시설들이며, ② 서비스 시설 접근성은 시설 성격에 따라 반경 2~8km 내에서 사용 가능한 시설의 여부, ③ 서비스 시설 접근의 편리성은 1시간 이내에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도보로 13분 이내지역에 있는 가구 수로 집계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시·군별로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수 데이터는 있으나, 각 가구 단위에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여건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체계적인 서비스 접근 지표는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 서비스 시설 접근의 편리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통 여건 지표의 경우 단순히 버스승차장까지 도보로 5분 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의 일일 운행 횟수를 조사하여 있어 간접적으로 편리성을 파악할 뿐 특정 서비스를 위한 정확한 여건 파악은 어렵다.
- 따라서 가구 또는 적어도 마을 단위에서 기초서비스로의 이용 환경이 어떠한지 서비스 제공 시설, 서비스 시설 접근성, 서비스 시설 접근의 편리성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체계적 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새로이 부각되는 가치의 지표 보완

- 기초생활권의 생활환경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현 시점에는 그 중요성이 덜하더라도 장기적 시각으로 볼 때 의미가 있는 구성 항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그 한 가지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지표를 고려할 만하다. 영국 등 외국의 관련 사례에서는 환경 부문을 별도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수질·공기 등 ‘환경의 질’ 부문과 요소별 탄소배출량, 부문별 탄소배출량 등 ‘기후변화’ 부문의 지표를 제시한다.
- 현재 지표체계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맥락의 부문으로서 ‘경관 및 어메니티 여건’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 현황, 녹지공간 보유 현황, 산림휴양시설

현황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지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 더욱이 경관과 어메니티를 강조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 다른 한 가지로, 향후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기초생활권 정책 하에서는 지역사회 역량, 지역공동체 및 거버넌스 등에 관한 지표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현재에는 우리나라에는 지역사회 역량과 관련한 통계가 구축된 바가 거의 없으나, 향후에는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지역 역량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참고할 만한 사례로 호주 농촌지역통계에는 지역공동체 역량에 관한 통계로서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성한다.
 - 인적자본은 인구학적/노동력, 교육과 기술, 건강, 리더쉽과 혁신, 훈련기반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 신뢰감/안전감, 소속감으로 구성되며, 정보통신네트워크는 기술, 자원으로 구성된다.
- 한편, 영국의 농촌 지표에는 농촌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지역사회 활동 정도(토론 그룹 참여, 공청회 참여 등), 안전성(범죄율), 시민자문위원회 활동, 지역신용거버넌스(FSA가 인가한 소비자신용조합 수)를 포함한다.

□ 완결성 있는 데이터 구축 및 부정확성 개선

- 마지막으로, 다수의 지표에서 기초생활권 일부 시·군 또는 일부 연도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하거나 부정확하였고,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도 있었다.

-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없다면 지표 구축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각종 지표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지역 단위에서 데이터를 구축할 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이터를 수집·집계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겠다.

1.2. 생활환경 현황 관련한 정책방향

- 각종 지표를 통해 살펴본 기초생활권 생활환경 현황의 주요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향후 고려해야 할 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 주거 및 정주환경 개선

- 기초생활권의 주거 및 정주환경 여건으로서 노후주택률, 공폐가율, 상·하수도 시설 및 환경처리시설 현황 모두에서 기초생활권이 대도시에 비하여 크게 열악하게 나타난다.
- 더욱이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군의 상황은 기초생활권 평균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 예컨대, 2005년 기준 노후주택률은 대도시 18%에 비해 기초생활권 26%, 군 38.4%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대도시 97.9%에 대하여 기초생활권 68.6%, 군 54.7%이다. 하수도 보급률은 대도시 89.5%에 대하여 기초생활권 54.5%, 군 36.2%이다.
- 주거 및 정주환경 부문의 이러한 지표들은 일상생활에 있어 기본적으로 만족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적 부분에서조차 지역간 생활환경의 차이가 심각하며,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 상대적

이 아닌 절대적 측면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이러한 주거 및 정주환경 부문에 있어 지역간 상대적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최소한의 공급 기준을 설정하여 기초생활권 모든 지역이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기초서비스 양적·질적 공급 여건 향상

- 각종 기초서비스 이용 여건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초생활권은 대도시에 비해 서비스 공급 수준이 낮다.
 - 특히 일부 항목에서 면적 당 시설 수, 인구 당 시설 수 형태로 변용한 지표의 경우 기초생활권의 서비스 시설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서비스의 질적 여건이 지표에 반영되지 못함을 고려한다면 상식적 선에서 이해할 때 기초생활권의 서비스 공급 수준이 더 낮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농촌지역인 읍·면으로 구성된 군, 읍·면을 일부 포함하는 도농복합시의 서비스 공급 현황이 낮게 나타난다. 농촌지역 기초서비스의 양적 공급의 부족 문제를 확인하고, 질적 낙후성을 유추할 수 있다.
- 다양한 부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축한 관련 지표들을 바탕으로 기초생활권의 기초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services standard)을 설정하고, 각 시점의 지표를 바로미터로 삼아 기초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보강하고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서비스 접근성은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는 도달거리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직접적으로 해당 서비스까지의 접근성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와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한 기초생활권의 서비스 접근성은 열악한 상태이다.
- 한 예로, 보건·의료서비스 중 하위서비스인 약국의 경우 기초생활권(도농복합시와 군) 마을 내에서 이용가능한 경우는 약 10%에 불과하고, 2km 이내에서 이용가능한 경우도 약 22%에 불과하다. 15km 이상을 가야하는 경우도 약 7% 정도에 이른다.
- 마을에서 도보로 15분 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운행 빈도를 보면, 기초생활권에서 시내(군내)버스는 1일 13.9회, 마을버스는 0.7회, 시외버스는 3.2회 운행한다. 도농복합시는 그나마 사정이 낮지만 군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서 시내(군내)버스가 1일 11회, 마을버스가 0.4회, 시외버스는 2.8회에 불과하다.
- 서비스의 양적 공급을 확충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각 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분산적이기보다는 지역의 거점인 농촌중심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내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 내에 원하는 서비스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 이용 인프라 구축

- 정보통신기술은 기초생활권의 각 지역에 대하여 물리적 시설을 공급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기에 쉽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공급 방식을 고안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상용화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우선적으로 기초생활권 각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한 전국 단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현황은 파악이 불가능하며, 부분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을 뿐이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확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프라 현황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현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서비스 접근성이 특히 낮은 지역들부터 정보통신기술 이용 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경관 및 어메니티 자원의 체계적 관리·활용

- 경관 및 어메니티 여건은 현재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 현황, 녹지공간 보유 현황, 산림휴양시설 현황을 통해 진단하도록 구성하였으나, 향후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지표체계를 보다 확대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경관 및 어메니티 부분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경우라도 환경 부문의 지표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 경관 및 어메니티는 시각적 자원으로서 기능하기도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는 자원이기도 하다.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해당 지표들을 통해 경관 및 어메니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제 5 장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 및 정책 방향

1. 지표를 통해 살펴본 기초생활권 경제활동 여건

1.1. 기초생활권 유형별 지역경제 여건

□ 지역경제 여건 진단 개요

- 기초생활권의 지역경제 여건을 진단하기 위한 주요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전반적인 지역경제 여건: 취업구조, 사업체 특성
 - 경제활동 장소로서 기초생활권의 성격: 경제활동 중심지 vs 주거공간으로서 기초생활권의 특성
 - 각 산업 부문별 발전 수준: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 및 활력도: 경제활동의 동태적인 변화
 - 지역의 고용: 일자리의 전반적인 특성 및 안정적인 일자리 보유 정도

- 농가경제의 다각화 정도: 농가의 농업과 연계한 경제활동 참여 수준
 - 농어촌산업 부문의 발전 정도: 농업 연관 경제활동 발전 정도 및 향토산업, 농어촌관광 등 내발적 산업 발전 수준
- 입지적인 특성에 따른 지역경제 여건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163개 기초생활권을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현황을 비교한다.
-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 규모 등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 기초생활권을 ① 도시형, ② 도농연계형, ③ 농산어촌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여건을 살펴본다.
 - 도시형은 대도시에 인접하여 있으며, 대도시 통근·통학권역에 포함되는 시 지역과 인구 20만 이상의 거점도시를 포함한다.
 - 도농연계형은 행정구역상 동으로만 구성된 일반시이나, 농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 20만 미만 일반시, 인구 20만 미만 도농통합시, 그리고 중소도시와 연계가 많은 인구 10만 이상 군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촌형은 인구 10만 미만의 군지역으로 농산어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 유형별 시·군 분포 현황은 <표 5-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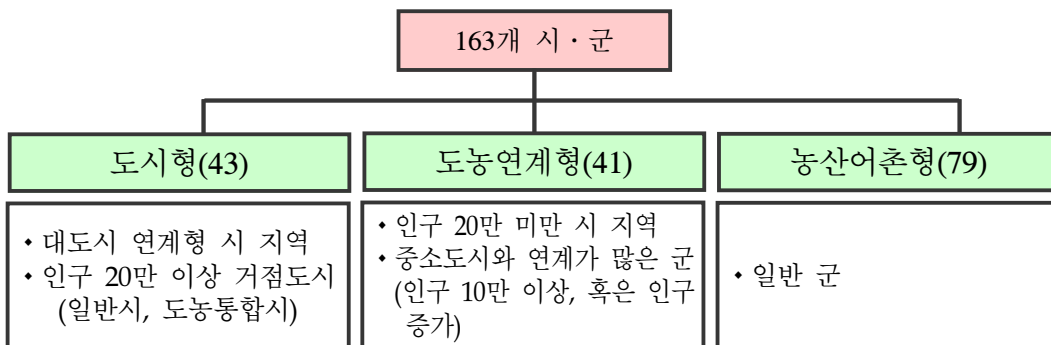


표 5-1. 인구 규모 및 도시 접근성에 따른 유형별 해당 시·군 목록

시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계
인천		-	강화군, 옹진군 (2)	2
부산		기장군 (1)		1
대구		달성군149 (1)		1
울산		울주군164 (1)		1
경기	수원시1039, 성남시931, 의정부398, 안양시610, 부천시834, 광명시319, 안산시670, 고양시864, 과천시, 구리시187, 시흥시384, 군포시269, 의왕시144, 하남시122, 남양주시424, 용인시687, 파주시240, 김포시193, 광주시204, 평택시374, 화성시282,(21)	동두천시, 오산시132, 이천시188, 안성시158, 양주시150, 포천시139 (6)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4)	31
강원	춘천시260, 원주시284, 강릉시221 (3)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4)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1)	18
충북	청주시641, 충주시204 (2)	제천시132, 청원군112(2)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8)	12
충남	천안시518, 아산시207 (2)	보령시, 서산시144, 논산시125, 계룡시, 당진군112 공주시126(6)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금산군, 연기군 (8)	16
전북	전주시622, 군산시249, 익산시307 (3)	정읍시115,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79 (4)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7)	14
전남	목포시245, 여수시277, 순천시261 (3)	광양시136, 나주시87 (2)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17)	22
경북	경산시240, 포항시488, 구미시382, 경주시266 (4)	김천시135, 안동시169, 영주시114, 영천시103, 상주시106, 문경시, 칠곡군108 (7)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2)	23
경남	김해시429, 양산시216, 창원시499, 마산시427 진주시336 (5)	진해시149, 통영시121, 사천시107, 밀양시106, 거제시193 (5)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0)	20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1)	-	1
합계	43	40	79	162

주: 1) 밑줄 그은 지역은 도농복합시를 의미함.

2) 시·군명 옆에 숫자는 인구규모(천명)로서, 10만 이상만 기재함. 단, 일부 인구 10만 이하의 지역은 유형 구분 확인을 위해 기재함.

□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특성

- 주민들의 업종별(대분류 기준) 취업구조를 보면 도시형 시·군은 제조업 취업 비율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농산어촌형은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가 다른 유형보다 더욱 많다(표 5-2 참조).
 - 분석 자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자료 중 산업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였다.
 - 농산어촌형은 농림어업 이외 업종 종사자 비중이 대체로 낮아 1차산업에 의존도가 높으며, 도시형 시·군과 분명히 대비된다.
- 사업체 업종을 구분하여 특화 정도를 지역 유형에 따라 비교한 결과에서도 취업구조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2005년 사업체 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별 입지계수(LQ: Location Coefficient)³³를 집계한 결과가 <표 5-3>에 제시되었다.
 - 농산어촌형 지자체는 농림어업, 광업 등 1차산업 위주의 사업체들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그 밖에도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농산어촌형 시·군은 공공행정이나 국방, 전기·가스·수도, 통신업 등의 입지계수가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³³ 입지계수(LQ)는 특화계수로도 불리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어느 지역의 특정 산업 부문이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갖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서는 읍·면·동별로 기초서비스 부문 사업체에 대한 입지계수를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집계하였다.

$$LQ = \frac{X_{ij}/X_i}{X_{in}/X_n}$$

- 단, X_{ij} = j 지역의 i 산업(여기서는 기초서비스업) 사업체 수
 X_j = j 지역의 전체 사업체 수
 X_{in} = 전국의 i 산업(여기서는 기초서비스업) 사업체 수
 X_n = 전국의 전체 사업체 수

- 특정 산업 부문에 의존도가 높은 농산어촌형에 비해 도시형 기초생활권은 여러 부문의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모습이다.

표 5-2. 기초생활권 취업자의 업종 분포

단위: %

취업자 업종 구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A. 농업 및 임업	7.7	27.2	50.7	33.4
B. 어업	0.4	1.2	2.6	1.6
C. 광업	0.1	0.7	0.3	0.3
D. 제조업	23.1	16.8	7.4	13.9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4	0.6	0.5	0.5
F. 건설업	7.9	6.5	4.7	6.0
G. 도매 및 소매업	14.3	10.4	7.0	9.8
H. 숙박 및 음식점업	7.5	7.5	6.6	7.1
I. 운수업	4.7	3.6	1.8	3.0
J. 통신업	1.2	0.8	0.7	0.8
K. 금융 및 보험업	3.1	2.1	1.6	2.1
L. 부동산 및 임대업	2.5	1.2	0.6	1.2
M. 사업서비스업	5.2	2.2	1.0	2.4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0	5.3	5.1	4.9
O. 교육서비스업	7.3	5.1	3.0	4.7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6	2.9	2.0	2.7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2.1	1.6	1.1	1.5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4	4.0	3.2	3.7
S. 가사서비스업	0.2	0.1	0.1	0.1
T. 국제 및 외국기관	0.0	0.1	0.0	0.0
Z. 산업 미상	0.3	0.1	0.0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의 산업 분류별 취업자 비율을 시·군별로 집계하여 평균치를 구함.

표 5-3. 기초생활권 유형별 사업체 입지계수(LQ) 비교

사업체 구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A. 농업 및 임업	0.39	1.61	2.56	1.75
B. 어업	0.41	1.19	2.07	1.41
C. 광업	0.29	0.78	4.71	2.56
D. 제조업	1.07	0.94	0.88	0.95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73	1.25	2.55	1.74
F. 건설업	0.94	1.02	1.20	1.09
G. 도매 및 소매업	0.99	1.04	1.05	1.03
H. 숙박 및 음식점업	0.95	1.07	1.15	1.08
I. 운수업	1.05	0.94	0.69	0.85
J. 통신업	0.79	1.16	2.04	1.49
K. 금융 및 보험업	0.93	0.98	1.27	1.11
L. 부동산 및 임대업	1.19	0.75	0.51	0.75
M. 사업서비스업	1.10	0.75	0.55	0.75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66	1.30	2.54	1.73
O. 교육서비스업	1.05	0.96	0.85	0.93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1	0.95	0.98	0.98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1.05	0.92	0.71	0.85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0.97	1.04	1.12	1.06

□ 경제활동 장소로서 지역의 특성

- 기초생활권을 구분해보면 경제활동 및 취업의 중심 기능이 강한 지역이 있는 반면, 주거공간 성격이 보다 강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지역의 특성은 상주인구(야간인구) 및 통근 유출입 인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통근·통학 현황 통계를 분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통근 유·출입 특성을 비교해보면 도시형 시·군은 농산어촌형에 비해 주거공간의 성격이 한층 강하게 나타나며, 경제활동 중심 기능도 상대적으로 강하다(표 5-4 참조).
 - 2005년의 상주인구 대비 통근유입인구 비율을 기초생활권별로 집계해보면 도시형이 농산어촌형보다 높아 타 시·군에서 통근 목적으로 유입해 들어오는 인구가 많음을 보여준다. 즉 도시형 시·군일수록 경제활동 중심기능이 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 한편 취업인구 대비 통근유출인구 비율을 비교해보면 역시 도시형 시·군에서 그 비율이 더욱 높다.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은 외부에 나가서 하는 주민들도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즉 도시형에 속한 지역일수록 경제활동 중심일 뿐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도 농산어촌형 시·군보다 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4. 기초생활권별 통근 유입 및 유출 인구 비교(2005년)

단위: %

구 분	상주인구 대비 통근유입	취업인구 대비 통근유출
도시형	10.9	30.8
도농연계형	8.7	15.2
농산어촌형	7.9	4.7
전 체	8.9	14.2

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시·군별로 집계하여 평균치를 구함.

- 2000년과 2005년 두 시점 간의 통근 유출입량 변화 추이를 지역 유형별로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가 <표 5-5>에 제시되고 있다.
 - 도시형 및 도농연계형 지자체의 경우 농산어촌형 지자체에 비해 통근 유입량과 유출량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이들 두 유형의 경우 경제활동 목적으로 주민들이 지역 간에 광역적인 이동을 하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반면 농산어촌형 지자체는 2000년과 2005년 통근유출량을 비교해볼 때 경제활동 목적으로 지역 외로 이동하는 주민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5. 기초생활권별 통근 유입 및 유출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구 분	통근 유출입 연평균 변화(2000-05년)	
	통근유입량 증가율	통근유출량 증가율
도시형	4.1	5.6
도농연계형	5.5	4.8
농산어촌형	2.4	-1.5
전 체	3.6	2.0

주: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 대비 2005년 통근 유출입량의 시·군별 연평균 증가율을 집계하여 유형별 평균치를 구함.

□ 산업 부문별 발전 수준: ① 농어업 부문

- 지역별 농업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지면적 현황을 집계하고 기초생활권 유형 간 비교 작업을 하였다(표 5-6 참조).
 - 시·군 단위로 집계한 경지면적 규모에서는 도농연계형 지자체가 평균 10,817ha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농가당 경지 규모를 시·군별로 집계하여 평균한 값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1ha 내외로 영세한 규모인데, 농산어촌형 지자체가 그 중 가장 큰 값(1.28ha)을 나타내고 있다.
 - <표 5-7>에서는 경지 규모별 농가 구성 비율을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집계한 결과를 보여준다. 농산어촌형 시·군일수록 경지 규모가 큰 농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6. 기초생활권 유형별 경지면적 비교(2005년)

구 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경지면적(ha)	7123.0	10818.6	9144.8	9032.4
평균 농가 수(호)	6653	9025	7165	7498
농가당 경지면적(ha)	0.94	1.09	1.28	1.14

주: 각 시·군별 2005년 경지면적 및 농가 수, 농가당 경지면적 등을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집계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표 5-7. 경지 규모별 농가 분포(기초생활권 유형 간 비교)

단위: %				
구 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1ha 미만	68.7	62.8	59.2	62.5
1~2ha	19.1	22.3	24.2	22.5
2~3ha	6.0	7.5	8.3	7.5
3ha 이상	6.2	7.4	8.2	7.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2005년 농업총조사 기준 경지 규모별 농가 수를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합산한 후 각각의 구성비를 산출함.

- 지역의 농업 생산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자 농축산물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권 유형 간에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다.
 - 비교 자료는 2005년 농업총조사의 농산물 판매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였다.
 - 농산물 판매액 3천만 원 이상인 농가 비율을 비교했을 때 농업 의존도가 큰 농산어촌형보다 도시형 시·군에서 고소득 농가의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³⁴
 - 판매액을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러한 유형간 차이는 여전히

³⁴ 농산물 판매액 3천만 원을 기준으로 고소득 농가를 분류한 것은, 전수 조사 결과 전국 농가 중 10%가 이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센서스 조사표의 농산물 매출액 항목에 대해 농가에서 응답한 구간값에 바탕을 두고 있다. 농가별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아닌 까닭에 실제 매출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 앞서 살펴보았듯 농산어촌형 지자체의 경우 평균 경지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데 비해 고소득 농가 비율은 낮다. 농업활동의 부가가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낮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반대로 도시형 지자체의 경우 농가당 경지면적 자체는 타 유형보다 작지만, 고소득 농가 비율은 높아 보다 집약적이며 부가가치 높은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8. 기초생활권 유형별 농산물 매출액 높은 농가 분포

단위: 호

구 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연간 3천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 농가	658.9 (10.8)	1038.9 (9.9)	705.8 (9.6)	777.2 (10.0)
연간 5천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 농가	322.3 (5.4)	457.7 (4.6)	292.5 (4.0)	341.9 (4.5)

주: 1) 각 시·군당 해당 농가 수를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집계하여 평균값을 구함.
2) () 안은 시·군별 전체 농가 수 대비 해당 농가 비율임.

- 농업과 마찬가지로 수산업 분야의 경우도 어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산물 판매금액별 어가 분포 현황 등을 집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산업 발전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다만, 수산업 종사 가구는 농업 종사 가구에 비해 그 수가 적다. 또 해수면 어업의 경우 163개 기초생활권 중 일부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시·군 유형별로 수산업 현황을 비교하는 작업은 생략한다.

□ 산업 부문별 발전 수준: ② 광공업 부문

- 광업 및 제조업 발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

광공업통계 자료(2007년 기준)를 분석하였다.

- 먼저 5인 이상 규모의 광공업 업체들은 도시 성격이 강한 지자체일수록 집중적으로 분포한다(표 5-9 참조).
 - 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보면 도시형 지자체는 농산어촌형 지자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큰 수치를 나타낸다.
- 농산어촌형 시·군은 도시형 및 도농연계형 시·군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업체들이 분포하고 있다.
- 시·군별 평균 출하액과 부가가치 모두 기초생활권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농산어촌형 지자체의 경우 도시형 지자체에 비해 약 6% 수준의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을 보인다.
 - 종업원당 1인당 급여액 역시도 농산어촌형 시·군의 경우 도시형 시·군 종사자에 비해 크게 낮아 약 7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5-9. 기초생활권 유형별 광공업 사업체 여건 비교

단위: 개, 명, 백만 원

구 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사업체 수	1,177	360	104	452
종사자 수(A)	31,951	1,0794	2,456	12,334
급여액(B)	894,293	310,451	57,915	342,076
출하액(C)	11,568,333	4,379,232	669,857	4,477,948
부가가치(D)	4,288,750	1,357,852	252,935	1,595,522
종사자당 급여(B/A)	26	25	19	23
종사자당 출하액(C/A)	355	348	223	289
종사자당 부가가치(D/A)	120	113	88	103

주: 1)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시·군 평균값을 집계함.

2) 분석 대상은 2007년 기준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사업체임.

□ 산업 부문별 발전 수준: ③ 서비스업 부문

-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업 부문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도시형 > 도농연계형 > 농산어촌형의 순서로 발전 수준에 우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10 참조).
 - 시·군별 평균 서비스업 부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경우 농산어촌형 지자체는 도시형 지자체에 비해 각각 15% 및 11% 수준으로 집계된다. 매출액은 약 8% 수준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당 매출액 및 종사자당 매출액 역시 농산어촌형은 도시형에 비해 약 5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는 생산자서비스보다는 저부가가치 업종 위주의 사업체가 주로 분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10. 기초생활권 유형별 서비스업 현황 비교

단위: 개, 명, 백만 원

구 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사업체 수(A)	16,905	6,073	2,523	7,210
종사자 수(B)	65,124	19,735	7,146	25,607
매출액(C)	7,260,040	1,772,793	569,469	2,637,143
영업비용	6,408,014	1,556,850	505,677	2,327,140
사업체당 매출(C/A)	437	282	219	292
종사자당 매출(C/B)	109	88	78	88

주: 1)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시·군 평균값을 집계함.

2) 분석 대상은 2007년 기준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사업체임.

□ 산업 부문별 발전 수준: ④ 종합(4개 시·도 사례)

- 이상에서 산업 부문별 발전 수준을 살펴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농산어촌형 지자체의 경우 2차산업 및 3차산업뿐 아니라 농림업 분야에서도 도시형

에 비해 매출액이 낮게 나타나 지역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시·군 단위의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가 발간되는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산업 부문별 발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 현재 경기, 강원, 경남·북 등 4개 시·도(92개 시·군)에서는 연도별로 시·군별 GRDP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기초생활권의 산업 부문별 생산액을 비교할 수 있다.
- <표 5-11>에서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내총생산액이 도시형 시·군은 평균 6조1천4백억 원으로 나타난다. 반면 농산어촌형 시·군은 7천1백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 농산어촌형 기초생활권은 농림어업 부문 생산액 또한 도시형에 비해 적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 <표 5-12>는 도시형 시·군의 산업 부문별 생산액과 비교해서 도농연계형 및 농산어촌형 시·군의 상대적인 생산액이 어느 수준인지 환산한 결과이다. 평균적인 도시형 시·군의 GRDP 규모를 100으로 했을 때 농산어촌형과 도농연계형 시·군의 GRDP는 각각 12 및 3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특히 제조업 부문의 생산액은 농산어촌형 시·군의 경우 도시형 시·군 평균값의 3/100 수준에 머물러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표 5-11. 기초생활권의 산업 부문별 평균 생산액 비교(2005년 기준)

단위: 백만 원

산업 구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농림어업	110,473	134,044	106,427	114,482
광업	9,373	18,042	6,853	10,432
제조업	2,609,909	643,511	77,398	1,121,17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28,004	25,018	64,051	77,657
건설업	549,111	234,442	106,791	295,974
도매 및 소매업	291,512	75,303	18,740	130,108
숙박 및 음식점업	142,446	48,082	21,244	71,137
운수창고업	167,775	54,436	15,126	79,281
통신업	146,384	36,560	13,443	66,656
금융 및 보험업	336,091	73,504	29,291	149,912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업	626,935	128,304	44,231	273,3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27,657	167,833	128,612	209,387
교육서비스업	327,981	105,896	39,032	158,66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52,388	47,246	13,775	71,499
기타 서비스업	216,302	56,711	29,120	102,859
산업별 부가가치 합계	6,142,341	1,848,932	714,134	2,932,573

주: 기초지자체 수준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공표되는 4개 시·도(경기, 강원, 경남·북)의 9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업 생산액 평균값을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집계함.

표 5-12. 도시형 시·군에 대비한 농촌 기초생활권 GRDP의 상대적 크기

산업 구분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농림어업	121	96
광업	192	73
제조업	25	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0	50
건설업	43	19
도매 및 소매업	26	6
숙박 및 음식점업	34	15
운수창고업	32	9
통신업	25	9
금융 및 보험업	22	9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업	20	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1	39
교육서비스업	32	1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1	9
기타 서비스업	26	13
부가가치 합계	30	12

주: 도시형 시·군의 산업 부문별 평균 생산액(2005년)을 100으로 했을 때 타 유형 시·군의 평균 생산액 규모를 환산한 값임.

○ 전체 GRDP에서 각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집계하여 유형 간에 비교한 결과가 <표 5-13>에 나타나 있다.

- 농산어촌형 시·군은 농림어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이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반면에 도시형 시·군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탁월하며,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동산 및 임대·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 이처럼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산업 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초생활권마다의 지역경제 특성을 진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취업구조 및 사업체 업종 구성을 함께 비교해보면³⁵ 기초생활권별 경제 여건을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3. GRDP 중 각 산업 부문별 구성비의 시·군 유형 간 비교

산업 구분	단위: %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농림어업	2.1	8.4	16.6	9.4
광업	0.3	1.9	1.1	1.0
제조업	33.0	25.8	9.2	21.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4	1.4	5.2	3.3
건설업	10.8	14.0	15.2	13.4
도매 및 소매업	5.4	4.6	2.7	4.1
숙박 및 음식점업	2.7	3.0	3.1	2.9
운수창고업	3.2	3.5	2.4	2.9
통신업	2.6	2.2	1.9	2.3
금융 및 보험업	6.0	4.5	4.4	5.0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업	11.0	7.2	5.9	8.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11.0	20.9	13.7
교육서비스업	6.2	6.4	5.9	6.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8	3.0	2.0	2.5
기타 서비스업	4.1	3.3	3.7	3.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산업 부문별 생산액이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백분비를 집계함.

2) 강조 표시는 타 유형에 비해 뚜렷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임.

³⁵ 이는 앞서 살펴본 <표 5-2> 및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 지역경제 활력

- 지역경제의 활력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창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한가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연도별로 신규 창업하는 사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폐업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또는 소멸되는 일자리 수)를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 이는 단순히 저장(stock) 개념으로서의 연도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를 집계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업체별 창업과 폐업, 고용 변화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 기초통계 원시자료(raw data)를 매 연도 확보해야 한다. 개별 사업체 수준에서 창업 및 폐업 시기, 고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이를 지역 단위에서 합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 추이를 매 연도 빠짐없이 파악하여야 한다.
 - ※ 이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까지만 논의하기로 한다.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운영 현황 비교를 통해 각 기초생활권별 지역경제 활력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산업단지 가동 현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매 분기별로 발간하는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를 집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
 - 이 중 농어촌 시·군과는 직접적인 관련도가 높지 않은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을 기초생활권별로 집계하여 비교한 결과를 <표 5-14>와 <표 5-15>에서 제시하였다(자료는 2008년 1/4분기 기준).
 -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모두 입주 및 가동 중인 업체 수, 종사자 수, 가동률 모두 도시형 시·군일수록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시형

에 속한 시·군은 농산어촌형에 비해 업체 수 및 종사자 수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는 기초생활권 유형 간에 상대적으로 격차가 덜한 편이다.

표 5-14. 기초생활권 유형별 일반산업단지 가동 실태 비교

단위: 개, 명

구 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입주계약업체 수(A)	190.6	88.5	14.6	104.7
공장설립완료업체 수	170.2	68.7	11.3	89.3
가동업체 수(B)	168.1	66.3	10.8	87.5
산업단지 종사자 수	6831.7	3316.7	456.6	3948.0
가동률(B/A)	77.4%	61.1%	61.8%	68.0%

주: 해당 유형에 속한 시·군의 평균치로서 2008년 1/4분기 기준 자료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08)

표 5-15. 기초생활권 유형별 농공단지 가동 실태 비교

단위: 개, 명

구 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입주계약업체 수(A)	68.8	47.4	35.9	44.0
공장설립완료업체 수	64.6	43.9	32.1	40.2
가동업체 수(B)	61.6	41.5	29.9	37.8
농공단지 종사자 수	1578.3	1156.5	657.7	931.9
가동률(B/A)	90.9%	86.5%	84.5%	86.0%

주: 해당 유형에 속한 시·군의 평균치로서 2008년 1/4분기 기준 자료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08)

- 한편 각 산업단지별로 생산액, 매출액 등도 동일한 통계자료에서 파악 가능한데, 이를 통해서는 산업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 다만, 산업단지의 주요 입주 업종, 현지 주민 고용 실태, 지역의 타 산업과의 연계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통계 기반에서는 힘든 실정이다.

- 이에 대해서는 개별 단지마다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 고용의 특성

- 지역 내에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decent job)가 얼마나 분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는 없지만, 대리변수를 통해 추정은 가능하다. 여기서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³⁶
 - 다만 이러한 고용보험통계 데이터는 현재 시·도 수준으로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 가공 작업이 필요하다. 시·군 수준의 고용보험 자료는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자료가 아닌 까닭에 본 연구를 위해 노동부 협조 하에 원 자료를 시·군 단위로 가공하여 집계하였다.³⁷
- <표 5-16>에서는 이와 같이 집계한 고용보험 대상 일자리가 지역 유형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여준다.
 - 전체 사업체 대비 고용보험 대상 사업체의 비율로 보면 농산어촌형 시·군이 도시형 시·군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일자리의 절대적인 수에서나 구성비에서는 농산어촌형 지자체가 도시형에 비해 크게 뒤지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 농촌의 고용 여건이 영세하며 안정적이지 못한 소규모 일자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³⁶ 물론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일자리가 반드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밖에는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리변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

³⁷ 향후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나 연구자가 매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5-16. 고용보험 대상 사업체 및 일자리의 분포 현황(2005년)

단위: 개, 명

구 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시·군별 사업장	전체 사업체 수(A)	23,918	8,638	3,337	10,100
	고용보험 대상 사업체 수(B)	8,522	2,995	1,362	3,662
	비율(B/A)	35.6%	34.7%	40.8%	36.3%
시·군별 고용자	종사자 수(C)	118,853	38,614	12,717	47,230
	피보험자 수(D)	59,176	17,443	4,965	22,405
	비율(D/C)	49.8%	45.2%	39.0%	47.4%

주: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고 고용보험 사업체와 피보험자 수는 노동부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유형별 시·군 평균값을 집계함.

○ 경제활동 종사자들의 지위를 기초생활권별로 비교해보면, 농산어촌형 시·군은 영세 사업체가 많을 뿐 아니라 가족노동 위주의 경제활동이 우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이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의 직업편 통계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서 알 수 있다.
- <표 5-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형 시·군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에 비해 농산어촌형 시·군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이들 지역 주민들은 농업 및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 또한 가족 노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농가의 경우 평균 1.9명의 가구원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2005년 농업총조사 집계 결과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결국 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무급가족종사자도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표 5-17. 기초생활권 유형별 종사자 지위 비교

단위: %

구 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임금근로자	67.7	52.3	31.3	46.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9.1	29.5	42.4	33.0
고용원을 둔 사업주	6.9	4.5	3.0	4.4
무급가족종사자	6.3	13.7	23.3	16.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농가경제의 다각화 정도

- 도농교류, 농촌관광 등 농업 연관활동에 농가가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 그 지역의 농가경제 다각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 이는 농업총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 가능하다. 직판장 및 직거래, 농가식당, 농산물가공업, 농가민박, 주말농장 및 관광농원 등 농가의 ‘다원적 활동’ 수행 여부를 파악한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 단, 이러한 다원적 활동에 대한 조사 문항은 2005년 농업총조사부터 포함된 까닭에 이전 연도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농업 연관활동 현황을 비교한 결과, 도시 접근성이 우세한 도시형 시·군의 농가들이 더욱 높은 참여 비율을 기록하였다(표 5-18 참조).
 - 시·군별로 평균 약 9.1%의 농가가 농업 이외의 연관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형 기초생활권의 경우 그 비율이 13%로서 농촌 성격이 강한 농산어촌형 지자체(8%)보다 더욱 높다.

표 5-18. 농업 연관활동에 참여하는 농가 현황 비교

단위: 호, %

구 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 체
전체 농가 수(A)	6,653	9,025	7,165	7,498
농업 연관활동 참여 농가 계(B)	670	644	500	581
- 직판장, 직거래(C)	610	569	431	513
- 농가식당	37	31	24	29
- 농산물가공업	25	49	41	39
- 농가민박	9	18	27	20
- 주말농장, 관광농원	5	5	3	4
농업 연관활동 참여 농가 비율(B/A)	12.9	8.0	7.7	9.1
직판·직거래 참여 농가 비율(C/A)	11.3	6.8	6.4	7.8
기타 활동 참여 농가 비율(B-C)/A	1.6	1.2	1.2	1.3

주: 1) 각 시·군별 평균값을 집계함.

2) 분석은 2005년 농업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해당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므로 각 활동별 참여 농가 수를 합산하면 (B) 값과 일치하지 않음.

- 활동 종류별로는 직판 및 직거래 관련 사업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다. 별도의 자본 투자나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음식점, 가공업, 민박 같은 활동에 비할 때 직판이나 직거래는 농가들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 농업 연관활동 참여의 결과로 농가들이 실제 농업소득 향상 효과를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농업총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표 5-19>에 제시되었다.
- 직판장 및 직거래, 농가 식당, 농산물 가공업, 민박, 관광농원 등 농업 연관활동 참여 농가와 일반 농가를 구분하여 농축산물 판매액 응답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 분석 결과 농업 연관활동 참여 농가는 1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소득 향상이 반드시 농업 연관활동 수행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농외활동 참여 여부와 농산물의 판매 정도 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³⁸
 - 한편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시·군 또는 읍·면 이하 단위에서 농가의 다원적 활동 현황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³⁸ 농외활동과 농업소득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이후 사례조사를 통해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표 5-19. 농가의 농업 연관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농축산물 판매액

단위: %

농축산물 판매액	농가 구분		전 체 (N=1,272,908)
	농업 연관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농가 구분		
	참여함 (N=99,882)	참여 않음 (N=1,173,026)	
1000만 원 미만	63.9	68.7	68.3
1000-2000만 원	13.2	13.6	13.6
2000-3000만 원	8.7	7.8	7.8
3000-5000만 원	7.4	5.6	5.7
5000만-1억 원	4.7	3.1	3.2
1억 원 이상	2.1	1.2	1.3
합 계	100.0	100.0	100.0

주: 1) 직판장 및 직거래, 농가 식당, 농산물 가공업, 민박, 관광농원 등 농업 연관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 유형을 구분하여 집계함.

2) 자료 집계는 2005년 농업총조사 원시자료를 근거로 함.

□ 농어촌산업의 발전 정도

○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내발적인 산업인 ‘농어촌산업’ 부문의 발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농어업 관련 사업체에 한정해서 분포 현황을 집계하였다.

- 좁게 보았을 때 ‘농어촌산업’은 농림어업, 농림수산물 가공업,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업 부문 사업체 수로 정할 수 있다.
- 그런데 이러한 업종들은 각기 산업 분류상 위계가 다르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공식 발간되는 통계자료가 아니라 원시자료 수준의 자료를 입수하여 집계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 이처럼 좁은 의미의 농어촌산업 부문 사업체에 한정하여 입지계수(LQ)를 집계한 결과가 <표 5-20>에 제시되었다. 2005년 기준 사업체통계 원시자료를 가공한 결과이다.
- 도시형의 경우 농어촌산업 부문 사업체 수는 농산어촌형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해당 업체를 중심으로 한 입지계수는 농산어촌형이 1.64로 더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농산어촌형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농어업 분야 사업체가 절대적인 수에서는 뒤지지만 지역경제의 기반 분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5-20. 기초생활권 유형별 농어업 관련 사업체 현황 비교(2005년)

기초생활권 구분	입지계수(LQ)	농어업 관련 사업체 수(개)
도시형	0.89	574.2
도농연계형	1.17	308.4
농산어촌형	1.64	164.7
전 체	1.33	308.9

주: 2005년 기준 농림어업, 농림수산물 가공업, 농축산물 유통업 해당 사업체를 집계하였으며, 사업체통계 원시자료를 활용함.

- <표 5-21>에는 농어업 관련 사업체를 업종에 따라 더욱 세분해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 전체적으로 도시형 시·군의 경우 농어업 관련 업체들이 절대수는 많지만, 주로 농축산물 유통업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 반면에 도농연계형 및 농산어촌형 지자체에서는 농림어업 분야나 농림수산물 가공업 분야 업체가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한다. 입지계수 또한 더욱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어촌산업 분야 중에서도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현지에서 직접 가공하거나 그 연관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 우세한 입지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5-21. 농어업 관련 사업체 세부 업종별 현황 비교

구 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전체
시·군별 평균 사업체 개수(개)	농림어업	10.0	21.8	10.2	13.1
	농림수산물가공업	255.8	176.0	123.0	171.4
	농축산물 유통업	308.3	110.6	31.0	124.2
	농어업 사업체 계	574.2	308.4	164.7	308.9
시·군별 입지계수 (LQ)	농림어업	0.39	1.56	2.50	1.70
	농림수산물가공업	0.66	1.27	2.23	1.58
	농축산물 유통업	1.24	1.01	0.71	0.93
	농어업 사업체 계	0.89	1.18	1.63	1.32

주: 2005년 기준 사업체통계 원시자료를 재집계함.

1.2. 농어촌산업 실태에 대한 사례지역 분석

□ 사례 분석 개요

- 농어촌산업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향토산업이나 농어촌관광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공식 통계와 함께 지역에서 발간되는 각종 행정자료나 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향토산업 및 농어촌관광 분야의 경우 2차 자료에 의존해서는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농가 단위 활동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러한 경제활동 분야는 별도의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발전 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조사 대상 지역은 향토산업이나 농어촌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곳을 선정하였다.
 - 향토산업 분야에서는 복분자 가공이 활발한 고창군 사례를 통해 농어촌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 농어촌관광 분야에서는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농어촌관광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파악한다.

- 사례 조사에서는 특히 2차산업 또는 3차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농특산물 가공산업(향토산업) 및 농어촌관광 활동이 농어촌 지역의 기반 부문인 농업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 향토산업의 경우 농가 단위에서는 원료 공급에만 머물지 않고 자체적인 제품 가공이나 직거래 등을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복분자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 농어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동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농가의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점을 화천군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 이러한 사례 검토를 통해 단순한 제조업이나 관광산업 육성 목적과는 다소 차별화되는 농어촌산업으로서 향토산업과 농어촌관광의 위상을 정립하는 단서를 찾고자 한다.

□ 지역의 향토산업 사례: 고창군 복분자산업

- 고창군은 복분자 생산과 가공 활동에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복분자를 중심으로 한 향토산업 발전의 대표 사례이다.
 - <표 5-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분자 재배 및 생산량 등 제반 지표에서 전국 대비 40% 전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주산지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음료, 주류 등 가공업체들도 다수 분포하고 있어 복분자의 산업화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모습이다.

표 5-22. 전국 대비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위상(2007년 기준)

구 분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과생산량	가공업체	산업생산
전 국	10,305호	3,182ha	12,388톤	70개	3,000억원
전 북	7,375호	2,404ha	9,473톤	48개	2,292억원
고창군	4,795호	1,333ha	4,800톤	33개	1,306억원
전국 대비 비중	46.5%	42%	38.7%	47%	44%

자료: 고창군청 내부자료. 2008.

- 고창군의 전체적인 사업체 활동은 정체 상태이지만, 복분자 가공 부문은 예외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1990년대 이후 사업체 수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음식료품 제조업체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다(표 5-23 참조).
 - 반면 복분자 가공업체의 경우 1991년 1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50개로 늘어났다.
 - 업체 수만을 기준으로 볼 때는 복분자 가공업체가 고창군의 전체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복분자 가공산업은 음료, 주류, 한과, 장류, 분말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어(그림 5-1 참조) 지역 내의 다방면 활동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표 5-23. 고창군 전체 사업체 및 복분자 가공업체 변화 추이

구 분	단위: 개			
	1995년	2005년	2007년	2008년
전체 사업체 수	4,255	4,059	4,049	-
음식료품 제조업체 수(A)	246	223	240	-
복분자 가공업체 수(B)	2	23	33	50
비중(B/A)	0.8%	10.3%	13.8%	-

주: 전체 사업체 수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는 고창군 사업체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복분자 가공업체 수는 고창군청 내부자료 활용함.

그림 5-1. 고창군의 다양한 복분자 가공업체 구성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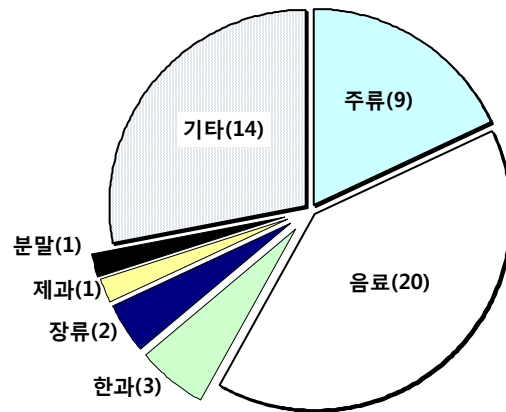


그림 5-2. 복분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복분자 가공제품



주: 선운사 입구에 위치한 ‘고창복분자 선연웰빙프라자’와 그 내부에 진열된 제품임.

- 고창군의 복분자산업이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아왔다는 것은 복분자 재배 농가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서도 알 수 있다.
 - 특히 2000년대 이후 복분자 생산 농가는 매년 56%씩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재배 면적 및 생산량도 연평균 70% 전후로 큰 폭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표 5-24 참조).

표 5-24. 고창군의 복분자 재배량의 확대 추이

연 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연평균 증가율(%)	
						'90-'00년	'00-'07년
면적(ha)	5	17	35	913	1,333	21.5	68.2
생산량(톤)	19	54	110	2,733	4,800	19.2	71.5
재배 농가 수(호)	54	130	210	3,749	4,795	14.5	56.3

자료: 고창군청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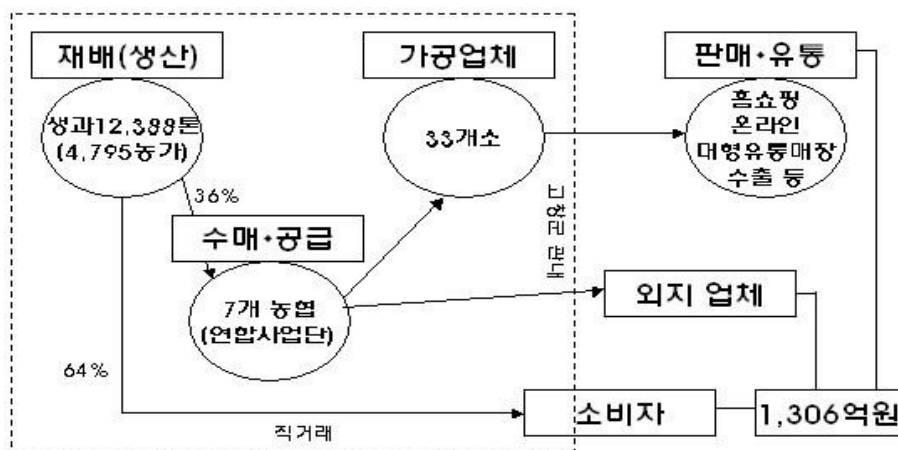
- 농가들은 복분자를 재배하여 수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당량을 자체적으로 가공하고 직거래하여 판매한다. 이처럼 복분자 재배를 통해 고창군의 농가가 얻는 평균적인 조수입은 호당 약 1,440만 원(2008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 고창군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복분자를 재배해서 얻은 조수입은 673.6억 원으로 집계된다.³⁹ 판매 수익은 생과 판매(농협 수매 및 직거래), 가양주 및 음료 생산 등으로 구성된다.
 - 생과 판매(직거래): 1,360톤 × 8,500원/kg = 11,560백만 원
 - 농협 수매: 1,840톤 × 6,200원/kg = 11,400백만 원
 - 가양주 판매⁴⁰: 150만 병 × 20,000원/병 = 30,000백만 원
 - 음료(착즙): 320,000병 × 45,000원/병 = 14,400백만 원

³⁹ 근거 자료는 고창군청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⁴⁰ 가양주는 kg당 1.5병이 생산되며, 고창군 전체적으로 1,000톤 가량의 원료가 투입된다.

- 복분자를 재배하는 4,800농가 중 자체적인 가공활동을 벌이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분자를 중심으로 한 가치사슬이 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다수 농가가 이에 관련되어 있다(그림 5-3 참조).
 - 전체 수확량을 살펴보면 고창군 관내에서 생산한 복분자 원료 중 36%만이 지역농협에서 구매되고 있으며, 나머지 64%는 농가 단위에서 생과 또는 가공제품(술, 원액 등) 형태로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집계된다(2007년 기준).

그림 5-3.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구조



자료: 이동필 등. 2008. 재인용.

- 농가의 주요 소득원천인 지역의 복분자 생산 연계활동들에 대해 기존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분명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 2005년 농업총조사부터 직거래, 가공업, 농촌관광 등 농가들의 농업 연관활동 수행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고창군의 복분자 재배, 가공, 판매 등과 같이 복합적인 활동들을 이러한 조사에서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일례로 2005년 농업총조사의 고창군 농가 대상 원시자료만을 선별하여 농업 연관활동 현황을 집계한 <표 5-25>에서 이러한 문제가 확인된다.

농업총조사 집계에 의하면 고창군에서는 직거래나 가공업 등과 같은 활동에 단지 7.7%의 농가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복분자 생산, 판매에 얽혀 있는 복합적인 가치사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표 5-25. 고창군의 농업 연관활동 참여 농가(2005년 농업총조사)

구 분	농가 수(호)	비율(%)
전체 농가 수	11,882	-
참여 농가 수	918	7.73
- 직판장, 직거래	774	6.51
- 농가 식당	23	0.19
- 농산물 가공업	212	1.78
- 농가 민박	2	0.02
- 주말농장, 관광농원	3	0.03

주: 1) 농업총조사 원시자료 중 고창군 농가 데이터를 집계함.

2) 복수의 활동들을 수행하는 농가가 있으므로 각 활동들을 합산한 값과 농업 연관활동 참여 농가 총 수는 일치하지 않음.

-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생산액을 추정해보면, 직접생산액과 간접생산액을 합해 2008년에 약 1,421억 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 개별 농가와 농협, 복분자 가공업체 등 고창군의 복분자 생산, 가공, 유통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주체들이 생과나 원료, 가공품 형태로 연간 생산하는 액수를 집계한 결과가 <표 5-26>에 제시되어 있다.
 - 직접생산액을 집계해보면 연 1,137억 원이 복분자 재배, 가공, 판매 등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 이 밖에 물류산업, 관광산업, 건설산업, 농업 및 가공업 기자재 생산판매(착즙기기 등) 등 연관산업 활성화로 인한 효과를 간접생산액으로 집계할 수 있다.⁴¹ 그러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표준적인 집계 방식이 개발

⁴¹ 예컨대 고창군 내에 30여 개에 이르는 건강원에서는 복분자 열매에서 즙을 짜내어 원액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복분자주 판매와 함께 특산물인 풍천장어의 소비가 늘어나는 등 연관 분야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간접생산액을 엄밀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참고로 고창군에서는 직접생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가 연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복분자산업의 간접생산액을 284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표 5-26.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생산액 집계(200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구 분	세부 항목	생산액	비 고
농협 매출	-생과 판매액	3,800	관내 가공업체 대상 매출액 제외
	-관외 가공업체 공급액	1,225	
	소 계(A)	5,025	
가공업체 생산	-주류 생산액	42,000	
	-식품 생산액	10,700	
	소 계(B)	52,700	
농가 매출	-생과 판매	11,560	생과 농협 수매분은 총생산액 집계에서 제외
	-가양주 판매	30,000	
	-음료(착즙) 판매	14,400	
	-생과 농협 수매	11,400	
	소 계(C)	55,960	
복분자산업 총생산액	-직접생산액(A+B+C)	113,685	
	-간접생산액(D)	28,421	
	합 계(A+B+C+D)	142,106	

주: 1) 간접생산액은 물류, 관광, 건설, 농업 및 가공업 기자재(착즙 기기) 등의 생산액을 포함하며, 직접생산액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함(고창군청 추정치).

2) 고창군청 내부자료.

- 이러한 복분자 연관 생산액 집계 결과를 토대로 고창군의 복분자산업이 전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해보았다. <표 5-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창군 복분자산업은 직접생산액을 기준으로 지역경제의 약 14%, 간접생산액까지 포함하여 약 17%의 비중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 고창군이 속한 전북의 경우 시·군별 지역내총생산액(GRDP)이 집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편의상 GRDP를 공표하는 4개 시·도의 농

산어촌형 시·군 평균 GRDP를 기준으로 삼았다.⁴²

- 고창군 복분자산업 생산액인 1,421억 원은 농산촌 시·군의 평균 GRDP인 8,289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표면적으로 나타난 복분자 생산 및 가공 분야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지역 내의 전후방 연계관계와 가치사슬을 폭넓게 고려할 경우 이러한 농어촌산업이 전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5-27. 고창군 지역내총생산에서 복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추정(2008년)

구 분	2008년 생산액 (백만 원)	시·군 평균 GRDP 대비 비중(%)
■ 농촌 시·군 평균 GRDP(추정)	828,916	-
■ 복분자산업 생산액 계	142,106	17.1
- 직접생산액	113,685	13.7
- 간접생산액	28,421	3.4

주: 복분자산업의 지역경제 대비 비중 추정을 위해 시·군 경기, 강원, 경남·북의 농산어촌형 시·군의 평균 GRDP 값을 기준으로 집계함. 이때 2005년 GRDP를 기준으로 하되 2005년 이후 평균 성장률(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을 적용하여 2008년 농촌 시·군 평균 GRDP를 산출함.

□ 농촌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사례: 화천군 도농교류 활동

- 화천군은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동을 바탕으로 농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례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농촌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농가의 경제활동 현황을 다각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⁴² 경기, 강원, 경남·북의 농산어촌형 시·군 평균 GRDP는 2005년 기준으로 7,141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 값에 대해 2005년 이후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전국 평균은 +5.1%)을 적용하면 2008년 기준으로 농산어촌형 시·군 GRDP는 8,289억 원으로 추정된다.

- 분석을 위해 2005년 농업총조사 원시자료 중 화천군 데이터를 선별하여 집계하였다.
 - 이와 함께 화천군의 전체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420개 농가에 대한 경제여건 조사 결과 데이터(송미령 외, 2008)를 재집계하여 분석하였다.⁴³
- 농산물 가공, 직거래, 주말농장 운영 등 농업과 연관된 다원적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화천군의 농가를 구분하여 농축산물 판매 금액을 비교한 결과가 <표 5-28>에서 제시되고 있다.
- 다양한 농업 연관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일수록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농업총조사 자료 중 화천군 데이터 집계).

표 5-28. 화천군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액(농업 연관활동 여부에 따른 비교)

단위: %

농축산물 판매금액	농업 연관 사업 수행 여부		전체 (N=2169)
	수행 않음 (N=1923)	수행 중 (N=246)	
5백만 원 미만	42.8	27.6	41.1
5백~1천만 원	17.5	23.2	18.1
1~2천만 원	18.5	17.9	18.4
2~3천만 원	11.4	15.0	11.8
3~5천만 원	6.7	11.8	7.2
5천~1억 원	1.9	2.8	2.0
1억 원 이상	1.2	1.6	1.3
합 계	100.0	100.0	100.0

주: 1) 직판장 및 직거래, 농가 식당, 농산물 가공업, 민박, 관광농원 등 농업 연관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 유형을 구분하여 집계함.

2) 2005년 농업총조사 원시자료 중 화천군 농가 데이터를 집계함.

⁴³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8년 수행한 「화천군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및 농가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농촌정책 중장기 방향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농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는 화천군의 전체 81개 행정리 중 도시 성격이 강한 소재지 마을을 제외한 61개 마을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이는 화천군 전체 2,169개 농가(2005년 기준) 중 19%인 420개 농가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로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 이상과 같은 농업 연관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일수록 친환경농업 및 다양한 도농교류 방식으로 농업 활동을 추진하는 비율도 더욱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농업총조사 집계 결과 농업과 연계한 다원적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친환경농업 수행 비율이 21%로서 다른 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5-29 참조).

표 5-29. 화천군의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와 다원적 활동 수행

단위: %

구 분	농업 연관 활동 수행 여부		전체 (N=2169)
	수행 않음 (N=1923)	수행 중 (N=246)	
친환경농업 참여함	13.4	21.1	14.3
친환경농업 하지 않음	86.6	78.9	85.7
합 계	100.0	100.0	100.0

주: 1) 직판장 및 직거래, 농가 식당, 농산물 가공업, 민박, 관광농원 등 농업 연관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 유형을 구분하여 집계함.

2) 2005년 농업총조사 원시자료 중 화천군 농가 데이터를 집계함.

표 5-30. 화천군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판매 방법 비교

단위: %

농산물 판매 방법	농업 연관 사업 수행 여부		전체 (N=310)
	수행 않음 (N=258)	수행 중 (N=52)	
도매시장	19.8	19.2	19.7
산지공판장	0.4	1.9	0.6
농협 농업법인	46.9	15.4	41.6
소비자단체	1.6	0.0	1.3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21.3	38.5	24.2
개인소비자	6.6	17.3	8.4
대형유통업체	0.8	1.9	1.0
기타	2.7	5.8	3.2
전체	100.0	100.0	100.0

주: 1)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직판장 및 직거래, 농가 식당, 농산물 가공업, 민박, 관광농원 등 농업 연관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 유형을 구분하여 비교함.

2) 2005년 농업총조사 원시자료 중 화천군 농가 데이터를 집계함.

- 또한 농업총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응답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매 방법을 집계한 결과를 <표 5-30>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중 농업 연관활동 참여 농가일수록 소비자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추진에 따라 농가경제에서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고자 마을 단위로 주민들의 소득을 집계하였다.
- 분석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8년 화천군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총 420 농가를 대상으로 집계하였다.
 - 또한 응답자의 거주 마을(총 61개 마을)을 ① 농촌관광마을과 ② 일반마을로 크게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농촌관광마을은 총 12개로 지금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각종 농촌개발사업 및 도농교류 프로그램이 시행된 곳이다.⁴⁴
 - <표 5-31>의 분석 결과를 보면 농촌관광 추진 마을 거주 주민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 뿐 아니라 평균 농업소득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히 농촌관광마을이면서 동시에 농가도 농특산물 가공 판매, 체험·주말농장 또는 숙박 및 음식점 운영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⁴⁵
 - 농촌관광마을 주민이 일반마을에 비해 농외소득보다 오히려 농업소득이 높다는 것은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 판로 확보 등의 기회가 창출됨을 시사한다.

44 이러한 농촌관광마을 구분은 화천군청의 자체적인 분류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45 본 화천군 농가경제조사에서는 자급 위주로 소규모 농사를 하는 고령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이유로 소득 집계 결과를 보면 전국의 평균적인 농가소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5-31. 화천군의 농촌마을 유형별 평균 농가소득

단위: 천 원

마을 구분	농가의 농촌관광 참여 여부	가구소득 (A+B)	농업소득 (A)	농외소득(B)	
					관광 관련소득
농촌관광 추진 마을	참여 농가	79,809	69,304	10,505	5,379
	일반 농가	51,874	46,299	5,575	-
일반 마을	참여 농가	69,726	52,466	17,260	13,010
	일반 농가	38,823	34,348	4,475	-
전 체		45,817	39,885	5,932	1,204

주: 1) 농특산물 가공 판매, 체험·주말농장 또는 숙박 및 음식점 운영 등에 참여한다고
답한 농가와 일반 농가를 유형 구분하여 비교함.

2) 화천군의 420호 대상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재집계하여 비교함.

- 농촌관광 참여 마을 주민일수록 향후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이 증대하리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다(표 5-32 참조).

표 5-32. 주민들의 향후 소득 전망과 사업 계획(마을 유형별 비교)

단위: %

소득 전망 및 사업 계획		마을구분		전체 (N=420)
		농촌관광마을 (N=111)	일반 마을 (N=309)	
향후 농업소득 전망	증가	19.8	8.4	11.4
	불변	32.4	28.8	29.8
	감소	47.7	62.8	58.8
향후 농외소득 전망	증가	9.0	5.2	6.2
	불변	87.4	89.3	88.8
	감소	3.6	5.5	5.0
향후 영농 계획	확대 경영	25.2	13.3	16.4
	현상 유지	62.2	62.5	62.4
	축소 경영	12.6	23.3	20.5
	사업 변경		1.0	0.7
농업 외 사업 경영 의향	그렇다	28.8	17.5	20.5
	아니다	71.2	82.5	79.5

주: 화천군의 420호 대상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재집계하여 비교함.

- 특히 농촌관광마을 주민의 경우 농외소득만이 아니라 농업소득이 늘어나리라 전망하는 응답 비율이 일반 마을 주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관광이 농업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해당 마을 주민들이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이와 더불어 농촌관광마을 주민들은 농업 경영의 지속적인 확대 의향이 높으며, 더불어 기존 사업 마을일수록 농외활동 참여 의향이 높다는 점도 중요하다.
 - 앞으로도 화천군에서 이러한 마을을 중심으로 향후 농촌관광 부문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 대외적인 지명도가 높은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마을별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도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 <표 5-33>의 산천어축제와 같이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축제가 개최되어 화천군에서는 직접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지역 차원의 축제를 개최함과 더불어 마을 단위 체험활동, 농산물 판매, 도농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을별 농촌관광 추진에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 특히 축제와 연계한 마을 체험프로그램(사랑방마실, 계곡소풍)을 시행함으로써 마을 방문객이 늘었으며(표 5-34 참조), 이는 농산물 판매 등 농업소득 증대에도 간접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5-33.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추이

년 도	방문객 수(명)	유입액(직접효과)
2003년	224,000	23억원
2004년	583,900	94억원
2005년	870,100	132억원
2006년	1,033,570	421억원
2007년	1,250,000	549억원
2008년	1,304,000	457억원
2009년	1,050,000	394억원

자료: 강원발전연구원. 연도별 「산천어축제 평가보고서」, 화천군 내부자료.

표 5-34. 화천군의 지역축제와 연계한 마을별 축제 방문객 추이

축제 구분	연도	방문객 수(명)	참여 마을(개)	비 고
사랑방마실	2007년	7134	5	산천어축제 연계 프로그램
	2008년	48833	6	
	2009년	56719	6	
계곡소풍	2006년	4964	6	쪽배축제 연계 프로그램
	2008년	14081	7	

자료: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내부자료.

- 한편 마을 여건에 따라 농촌관광활동의 유형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 마을 단위 공동활동에 초점을 둔 사업이 시행된 곳에서는 주로 농촌 체험 및 농산물 판매 연계 활동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마을은 농업소득 증대에 보다 초점을 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다른 한편으로 보다 전문적인 관광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도 있다. 주로 개인 단위로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상업적인 목적에 주력하는 경우이다.
 - 향후 이러한 마을 유형에 따라 농촌관광의 개발 방향이나 파급효과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농가에서 현재 수행 중인 농촌관광활동 유형을 비교한 <표 5-35>의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다.

표 5-35. 화천군 농가에서 수행하는 농촌관광활동 유형

단위: %

구 분	응답자 거주 마을 구분		전체 (N=420)
	농촌관광마을 (N=111)	일반 마을 (N=309)	
농촌관광활동 계	17.1	10.0	11.9
- 농특산물 가공 판매	7.2	5.2	5.7
- 체험 프로그램 및 주말농장	4.5	-	1.2
- 숙박 및 음식점 운영	7.2	5.2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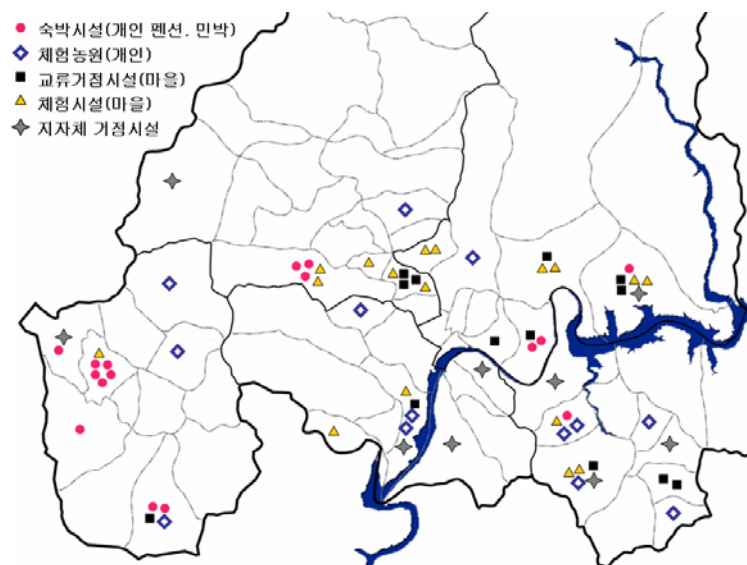
주: 화천군의 420호 대상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재집계하여 비교함.

- 농촌관광마을에서 관광활동에 참여한 농가들의 경우 농특산물 가공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숙박·음식점 운영 등의 활동을 비교적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일반 마을은 체험 프로그램보다는 농특산물 가공 판매나 숙박·음식점 운영 등 개인 단위의 활동에 더욱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 화천군에는 이러한 두 유형의 마을이 지역의 입지 여건, 주민 구성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 <그림 5-4>에서는 개인 단위의 민박이나 숙박시설이 주로 분포하는 마을과 공동체 단위의 체험 시설이 분포하는 마을이 공간적으로 상이하게 분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송미령 등, 2008a).
-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위주의 개별 관광활동이 우세한 마을은 주로 자연 경관요소가 두드러지는 산간이나 계곡부라 할 수 있다.
- 이와 달리 마을 공동체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 등은 농업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마을에서 우세하며, 그동안 각종 농촌개발사업 투자는 이러한 마을에서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림 5-4. 마을별로 분포하는 도농교류 시설 유형



자료: 송미령 등, 2008a.

2. 지역경제 지표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 방향

2.1. 기초생활권 지역경제 부문 지표 분석 결과의 종합

- 지역경제 여건은 농산어촌 지역일수록 어려운 실정
 - 기초생활권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반 지역경제 지표를 비교한 결과 도시형 및 도농연계형 시·군에 비해 농산어촌형 시·군일수록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침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제조업이나 생산자서비스업 등 성장산업은 도시 위주 입지가 두드러지는 반면, 농산어촌형 시·군은 높은 1차산업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 그 결과 소득, 경제 활력도 등의 제반 경제 지표에서 도시형 시·군에 비해 농산어촌 지역은 크게 뒤지는 모습이다.
 - 입지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이 같은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력도에서도 지역 유형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며, 도시형 시·군이나 도농연계형 시·군은 경제활동 기능과 더불어 주거 중심지의 기능까지 더욱 강화되어가는 양상이다.

- 농어업 부문 소득과 활력도 농산어촌 지역이 열악
 - 농산물 판매액이나 농업생산액 등의 지표에서도 오히려 도시형 시·군이 농산어촌형 시·군을 앞서고 있다.
 - 농가 분포나 경지 면적, 농업 관련 사업체 특화도 등에서는 농산어촌지

역이 도시형 시·군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 하지만 농업 부문 생산액이나 농산물 판매액 등의 지표에서는 농산어촌형 시·군이 뒤지는 모습이어서 1차산업 부문에서도 저부가가치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 특히 농가소득과 관련성이 있는 농가경제의 다각화 정도에서는 도시 접근성이 높은 곳일수록 앞선다.
- 농산물 가공이나 직거래, 농촌관광 등 농어업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들은 도시형 시·군일수록 더 활발하며, 이는 농가소득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농어촌산업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니는 높은 잠재력
- 사례 분석을 통해 농가 단위의 다양한 연관활동에 초점을 두어 향토산업 및 농어촌관광 등 농어촌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 사업체 활동 등 공식적인 통계 지표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다양한 농가 단위 활동을 함께 고찰한 결과 향토산업 및 농어촌관광 활동이 농업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갖는 잠재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특히 사례로 살펴본 고창군이나 화천군은 대표적인 농산어촌형 시·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도시형 산업 발전 여건에서 열세인 지역일수록 농어촌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도시형 성장산업의 발전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농어업 및 지역 자원과 연관된 경제활동의 육성이 필요하다. 농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농가경제의 다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로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체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농어촌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민간 주도로만 이들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이들 지역은 지역경제에서 공공 부문의 지출이 차지하는 몫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 이는 기초생활권 단위의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모색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뚜렷한 성장동력을 지니지 못한 곳일수록 면밀한 지역 실태 진단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농어촌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 현행 지표체계로는 체계적인 지역경제전략 수립에 제약

- 전국 단위 지표 분석 및 사례지역 조사 등을 통해 기초생활권의 지역경제 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미비한 지표들이 많아 체계적으로 지역 진단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특히 지역소득, 고용 여건, 사업체의 신규 창업 등에 관한 지표가 미비한 편이다.
 - 이들은 지표 자체가 부분적으로 구축되어 있거나, 원자료 및 행정자료를 별도로 가공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활용할 수 있어 제약이 많다.
- 아울러 향토산업이나 농어촌관광 등 농어촌산업 부문의 경우 그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사업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정교한 실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농어촌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통계자료로 집계되지 않는 농가 단위의 활동들까지 면밀히 고려한 정책 대상 설정이 필요하다.
 - 이러한 작업이 미흡한 까닭에 현재는 정책사업 시행 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 그 결과 사업 성과를 진단하지만,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입각하

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2.2. 지역경제 지표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 방향 도출

□ 기초생활권별 체계적인 현실 진단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경제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밀한 현실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진단을 위한 체계적인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 기초생활권별로 입지 특성, 지역경제구조 등을 감안한 지역경제 발전 목표 설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지역경제 진단을 위한 각종 지표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특히 지역경제 진단에 핵심이 되는 소득이나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한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 일부 시·도에서만 생산되는 지역내총생산 관련 통계가 모든 시·군 단위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 고용 관련 지표라든가 사업체의 신규 창업이나 폐업 등의 지표는 원시자료 수준에서 집계해야 분석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농어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실태 분석의 정교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잠재력을 지닌 농어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권 단위로 지역의 농어촌산업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

이 이루어져야 한다.

- 무엇보다 농어촌산업이 포괄하는 활동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이는 농어업에 기반을 둔 농가 단위의 활동부터 가공, 유통, 관광 등 제반 활동을 포함한 2·3차산업까지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이는 기존에 발간되는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별도로 지역 주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 실태를 폭넓게 파악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농어촌산업 육성 목표와 전략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연구를 통해서도 사례 조사를 통해 농어촌산업에 대해 나름대로 그 영역을 설정해보고자 시도했으나, 이러한 작업은 지역 단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러한 작업이 기초생활권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다양한 현장 사례를 발굴하고 축적하여 농어촌산업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육성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 예컨대 농어촌관광 부문의 경우 개인별 활동에 기반을 둔 모델과 공동체 단위 활동을 중심으로 한 모델 등 상이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 향토산업의 경우에도 고창군 복분자와 같이 급격한 성장 단계를 거친 것과 사향산업에 해당하는 것 등 간에는 육성 전략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준과 방법론의 정립

- 기초생활권의 각종 지역경제 부문 정책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론 정립이 요구된다.
- 이전에는 여러 사업별로 평가작업이 분산되어 이루어졌으며, 공통된 평가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평가 내용도 단순 실적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작 필요한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지는

못했다.

- 향후에는 정부의 정책 투입 결과로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면밀히 측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추가적인 부가가치 획득, 매출량의 증가, 판매 방식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농어촌산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성과 평가 지표와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 예컨대 농촌관광 관련 사업의 성과 평가 시 관광수입 증대나 방문객 증가 등의 지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인 농업소득 증대와 같은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⁴⁶
 - 이는 향토산업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고창 복분자산업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가공업체 이외에 농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가공활동도 사업의 중요한 성과 지표를 이루는 것이다.

⁴⁶ 이를 위해 마을 방문객 대상 농특산물 판매와 택배 등 보다 폭넓은 직거래 활동 증대로 인해 추가적으로 나타난 소득효과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제 6 장

외국의 농촌지역 관련 지표와 지역통계

1. 일반 현황 및 생활환경 관련 지표

1.1.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 Berkeley Hill이 2002년 “Determining DEFRA’s Rural Statistics”이라는 리포트에서 제시한 영국 농촌의 생활환경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⁴⁷
 - 생활환경과 관련된 지표는 생활조건, 주택서비스, 인구와 생명, 건강과 보건, 자연환경, 지역공동체 웰빙/사회적 환경으로 구성하고 있다.

⁴⁷ 자세한 사항은 <부록 1> 참조.

표 6-1.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생활환경 관련 지표

분야	지표
생활조건	서비스 접근의 동등성, 사고와 응급, 교육과 능력,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수, 학교 장기출석과 퇴학, 학교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성인학습, 공공교통수단, 자동차, 접근성(소유 혹은 회사지원), 운전할 수 있는지, 교통흐름 효과, 범죄,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주택서비스	노숙자, 주거 불편, 주택소유, 주택가격과 임대가격, 주택물량과 거래 빈집, 주택기반시설(전기,수도등), 가정용 시설
인구와 생명통계	인구, 인구구조, 인구밀도, 인구변화, 가구, 10대 청소년의 임신, 사망(사건 사고로 인한)
건강과 의료	육체적, 정신적 건강, 약물남용, 알코올 중독, 노동력
자연환경	1차산업을 위한 토지이용,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농촌경관 야생동식물, 자연자원의 보전, 가정쓰레기의 재활용, 농촌경관을 활용한 레저, 야생동식물과 경관의 가치
지역공동체 웰빙/사회적 환경	지역공동체 참여와 활동, 부양의무,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참여 투표참여, 이웃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해도, 농촌지역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문화적 유산(건물과 직종)

자료: 김용렬·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erkeley Hill, 2002, Determining DEFRA's Rural Statistics, London University

1.2. PAIS(Proposal on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 PAIS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농업환경지수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2001년에 제시한 리포트인데 경관, 농업활동, 농촌개발 세 분야에 집중하였다. 이 중 생활환경과 관련된 지표는 인구 및 인구이동과 사회적 복지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⁴⁸
 - 인구 및 인구이동은 인구통계와 인구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통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은 인구밀도, 16세 이하 인구비중, 16세 이상 인구 비중, 신생아 사망률이다. 그리고 인구변화는 연평균 인구 변화와 순전입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적 복지에서는 서비스 공급과 주택이 해당된다.

⁴⁸ 자세한 사항은 <부록 2> 참조.

표 6-2. PAIS의 생활환경 관련 지표

분야	항목	지표
인구 및 인구이동	인구통계	인구밀도
		16세 이하 인구 비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신생아 사망률
	인구변화	연평균 인구 변화 순전입인구
사회적 복지	서비스 공급	공공서비스 접근성
	주택	두번째 주택(second home)수
		전국평균주택가격과 지역평균주택가격의 차이
		주택소유가 어려운 사람들의 비중
		주택거래율
		임대주택관련 총 거래액 비중

자료: 김용렬·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rostat (2001) Proposal on Agri-Environmental Indicators(PAIS) Final Report
Luxembourg, December 2001.

1.3. HAY 리포트

- HAY 리포트에서 제시된 농촌지역지표 10개 분야(인구학적 특성과 변화, 고용과 인적자본, 복지·소득과 삶의 질, 농업구조조정, 농업의 다원성, 농촌지역경제의 다양성, 혁신과 기업, 정책, 농촌환경과 경관, 하부구조와 주변성) 중 생활환경과 관련된 것은 인구학적 특성과 변화, 농업의 다원성, 농촌환경과 경관, 하부구조와 주변성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⁴⁹ 자세한 사항은 <부록 3> 참조.

표 6-3. HAY 리포트의 생활환경 관련 지표

분야	지표
인구학적 특성과 변화	인구평균, 인구밀도, 청장년과 청소년 인구, 나이별 인구이동, 출생/사망 비율과 변화율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환경보조(agri-environment scheme)를 받고 있는 농가, 지정구역(진흥구역)에 있는 농가,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 비중, 다른 소득원 활동을 하는 농지소유주, 지역의 유기농 농가의 비중
농촌환경과 경관	평균농가규모(면적), 주류를 형성하는 농가 유형, 산림을 가지고 있는 농가의 비율, 환경보호지정
하부구조와 주변성	주변성 지수(peripherality index), 도로의 질, 철도, 지역공항의 존재, 공항과 지역의 중심지와의 거리

자료: 김용렬·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nited Nations, 2007, Rural Households' Livelihood and Well-Being: Statistics o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e Household Income.

Hay, K. 2001, Rural Indicators and Rural Development. Final report, European Union.

1.4. 호주 빅토리아주의 웰빙 지표

- 호주 빅토리아주의 웰빙 지표는 5개 도메인, 18개 정책분야, 9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⁵⁰ 웰빙 지표의 역할은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를 위한 계획과 정책수립시 필요한 지역커뮤니티 웰빙지표를 제공하는 데 있다.
- 생활환경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커뮤니티,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생동감 있는 커뮤니티, 민주적인 참여가 활발한 커뮤니티이다.

⁵⁰ 자세한 사항은 <부록 4> 참조.

표 6-4. 호주 빅토리아주의 커뮤니티 웰빙 지표의 생활환경 관련 지표

도메인	정책분야
건강하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커뮤니티	개인건강과 웰빙
	커뮤니티의 유대감
	영유아기
	개인과 커뮤니티의 안전
	평생교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개발지
	주택
	대중교통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공기의 질
	물
	생물다양성
	쓰레기 관리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생동감있는 커뮤니티	예술과 문화적 활동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
	문화적 다양성
민주적인 참여가 활발한 커뮤니티	주민참여

자료: John Wiseman, 2009, Developing and using local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Learning from Community Indicators Victoria, OECD Training Course.

1.5. 종합

- 영국의 지역통계 지표의 특징은 서비스의 접근성, 교육성과, 공공서비스 편리성, 주택가격, 농촌환경과 경관, 지역공동체 참여와 활동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 PAIS는 서비스의 접근성과 주택가격, 주택거래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HAY 리포트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환경과 경관을 중요시 하고 있어 농업환경보조, 산림, 유기농에 대해 강조점을 두고 있다.
- 호주의 빅토리아주의 웰빙지표는 따뜻한 커뮤니티,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커뮤니티,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커뮤니티, 참여가 활발한 커뮤니티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환경적 요소 고려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초점을 두면서 커뮤니티의 진전/진보(progress)를 반영하고자 시도하였다.
- 종합하면, 생활환경에 관해 우선 공통적인 요소로 인구를 강조하고 있고, 농촌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주택, 농촌환경과 경관을 아우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미건조한 지표가 아니라 따뜻한 감성, 풍요로운 문화, 깨끗한 자연환경이 묻어 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진전/진보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2. 지역경제 관련 지표

2.1.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 Berkeley Hill(2002) 리포트에 제시된 농촌지표중 지역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생활조건의 일부와 경제환경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생활조건은 소득분포와 부의 분포,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 경제환경은 고용, 생산성, 농업 비즈니스 활력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표 6-5.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지역경제 관련 지표

분야	지표
생활조건	소득분포(가난정도), 부의 분포, 부채(개인),
경제환경	고용의 안전성, 요소소득(factor income)과 부분생산성 마켓 타운, 농촌경제(비즈니스의 활력 정도), 농업의 새로운 미래 (농지를 이용한 비즈니스의 활력 정도)

자료: 김용렬 · 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erkeley Hill, 2002, Determining DEFRA's Rural Statistics, London University.

2.2. PAIS(Proposal on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 PAIS 농촌지표 중에서는 사회적 복지, 경제구조와 성과(경쟁력), 경제구조와 성과(1차산업)가 지역경제와 관련이 되는 지표들이다.
 - 사회적 복지는 고용, 고용의 질,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제구조와 성과는 경쟁력 측면과 1차산업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쟁력 측면은 기업, 인적자본, 사업기반, 분야별 비중, 농가, 관광과 레크리에이션으로 구성하고 있고, 1차산업은 농업, 임업, 수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6. PAIS의 지역경제 관련 지표

분야	항목
사회적 복지	고용, 고용의 질, 소득
경제구조와 성과(경쟁력)	기업, 인적자본, 사업기반, 분야별 비중, 농가,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경제구조와 성과(1차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자료: 김용렬 · 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rostat (2001) Proposal on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PAIS)Final Report
Luxembourg, December 2001.

2.3. HAY 리포트

- HAY 리포트에서 제시된 농촌지역지표는 고용과 인적자본, 복지·소득과 삶의 질, 농업구조조정, 농촌지역경제의 다양성, 혁신과 기업, 구성되어 있다.
 - 고용과 인적자본은 인적자본, 고용변화, 고용과 경제활동, 여성을 위한 기회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복지·소득과 삶의 질에서는 소득의 변화, 경제성장, 일자리의 질이 경제 관련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농업구조조정은 농업고용의 변화, 다원적 활동, 농민의 노령화, 농업의 생명력, 농업소유구조로 구성된다.
 - 농촌지역경제의 다양성은 1차산업 활동이 주류인가, 새로운 활동의 개발, 공공부문 고용의 의존도로 구성된다.
 - 혁신과 기업은 혁신과 연구, 신생기업, 정보통신의 중요성으로 구성된다.

표 6-7. HAY 리포트의 지역경제 관련 지표

분야	지표
고용과 인적자본	교육수준, 고용성장, 고용률, 실업수준, 활동율, 성별 고용률
복지, 소득과 삶의 질	평균소득과 성장/하락, 파트타임 혹은 계절 고용 비율, 병원, 학교·우체국·은행과의 거리, 무직자 가정, 정부지원 의존도, 기대수명
농업구조조정	농업노동력과 변화, 변화강도, 가족노동력, 다른 소득원 활동을 하는 농지소유주, 노령자의 비중과 변화, 농업소득과 비중 변화, 농장규모(사업규모), 농장규모(면적), 강도, 축산의 중요성
농촌지역경제의 다양성	1차산업의 상대적 중요성, 제조업 등에 대한 고용, 비즈니스 등에 대한 고용, 지역의 부가가치, 숙박시설의 수용한도와 범위, 공공부문의 역량
혁신과 기업	특허신청, 연구개발비, 투자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ICT 지출,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

자료: 김용렬·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nited Nations, 2007, Rural Households' Livelihood and Well-Being: Statistics o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e Household Income.

Hay, K. 2001, Rural Indicators and Rural Development. Final report, European Union.

2.4. 호주 빅토리아주의 웰빙 지표

- 호주 빅토리아주의 웰빙 지표 제시된 농촌지역경제지표는 경제활동, 고용, 소득과 부, 기술, 일과 가정의 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제활동은 지속적인 소매부문의 소비, 고급지식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직업, 기업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용에서는 고용률, 실업률, 지역고용이 경제관련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소득과 부는 1인당 소득, 소득분배, 1인당 부, 부의 분배, 재정능력, 식량이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기술은 교육의 질로 구성된다.
 - 일과 가정의 균형은 직장인 중 자신의 일과 가정생활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수로 구성되어 있다.

표 6-8. 호주 빅토리아주의 커뮤니티 웰빙 지표의 지역경제 관련 지표

도메인	정책분야
역동적이면서 활동적인 지역경제	경제활동
	고용
	소득과 부
	기술
	일과 가정의 균형

자료: John Wiseman, 2009, Developing and using local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Learning from Community Indicators Victoria, OECD Training Course.

2.5. 종합

- 영국의 환경농촌식품부의 지표에서는 소득, 부채, 고용, 산업의 활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 PAIS에서는 고용의 경우 고숙련자의 비중이나 파트타임 비율과 같은 고용

의 질, 소득에서는 1인당 평균소득, 기업과 관련해서는 특허나 연구개발비와 같은 혁신 관련 지표, 1차산업에서는 규모, 총생산액, 총부가가치액 중심의 경제규모 요인이 중심이 되고 있다.

- HAY 리포트에서는 성별 고용률, 고용의 질, 농업노동력, 다면적 활동, 다원성, 특허, 연구개발비와 같은 혁신 활동, 기업생성 활력 등이 강조되고 있다.
- 호주의 빅토리아주의 웰빙지표 중 경제관련 지표들은 소득과 부를 축으로 고용, 기업, 교육, 재정, 식량, 적절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지표는 효율성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시대에 가정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정의 중요성과 개인 생활의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가 들어가게 된 것은 단지 경제적인 면만 강조되는 지표보다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진전/진보(progress)를 담아가기 위한 노력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다.
- 종합해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소득지표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고용은 단순 고용량 보다는 고용의 질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특허나 연구개발비 등을 통해서 혁신활동을 지표화하고 있고, 기업활동의 활력을 나타내기 위해 창업활동을 지표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더욱이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강조하는 지표의 경우 효율성과 경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지탱해 주는 가정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삶의 가치 중심의 지표를 창출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농촌지역지표와 관련된 지역통계의 국가간 비교

- 여기에서는 영국 잉글랜드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에 나타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영국과 한국, 미국, 호주, 일본의 농촌지역통계를 비교해 보았다.

3.1. 생활환경 관련 지역통계 비교

- 생활환경 부문을 살펴보기 위해 농촌생활과 토지와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하겠다.
 - 농촌생활은 인구와 인구이동, 서비스 접근, 주택, 건강과 의료, 교육, 농촌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 토지와 환경은 토지이용과 환경부분으로 구성하였다.

3.1.1. 농촌생활

□ 인구와 인구이동

- 인구와 인구이동에 관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모두 지역통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표 6-9.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인구와 인구이동)

영국 잉글랜드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세부내용	변수	군/읍면	카운티	농촌	시구정촌
나이별 인구분포	평균 나이(농촌과 도시)	○	○	○	○
인구이동	전출입 현황	○	○	○	○

자료: 김용렬 · 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6-10.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서비스 접근)

영국 잉글랜드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세부내용	변수	군/읍면	카운티	농촌	시구정촌
서비스 제공 시설	은행과 주택조합, 현금지급기(모두), 현금지급기(무료), GP 수술시설(주요 지점), GP 수술시설(모두), 구직센터, 치과, 파출소, 초등학교, 시민회관, 중학교, 슈퍼마켓	△/○	×	○	○
서비스 시설 접근성	은행과 주택조합(4km 이내), 현금지급기(모두)(4km 이내), 현금지급기(무료)(4km 이내), GP 수술시설(주요 지점)(4km 이내), GP 수술시설(모두)(4km 이내), 구직센터(8km 이내), 치과(4km 이내), 파출소(2km 이내), 초등학교(2km 이내), 시민회관(24km 이내), 중학교(4km 이내), 슈퍼마켓(4km 이내)	△	×	○	○
서비스 시설 접근의 편리성	1시간 이내에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을 도보로 13분 이내에 도착 할 수 있는 가구 수	△	×	×	×
자동차 보유정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차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 비율	○	○	×	○
어린이(5-10세)와 청소년(11-16세)의 통학 수단	도보, 자전거, 자동차, 개인회사 버스, 공공버스, 기타	○	△	×	○
통신서비스별 가구 비율	LLU기반브로드밴드, 케이블모뎀, DSL, 인터넷	○	○	×	○

자료: 김용렬·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비스 접근

- 서비스 접근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시설 접근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편)에서 읍면동 단위로

대중교통수단별 마을 수, 대중교통 운행 회수별 마을 수, 교육시설 거리별 마을 수, 사설학원 거리별 마을 수, 의료시설 거리별 마을 수, 농림어업 관련시설 거리별 마을 수가 공표되고 있으나 마을 수가 아닌 지역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통계로 보완되어야 한다.

- 또한 문화공간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통계가 한국의 농촌지역(군, 읍면 단위)에서는 부족하다.
- 일본과 호주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시설 접근성에 대한 농촌지역통계가 공표되고 있다.
 - 어린이들의 통학수단은 한국에서도 인구총조사중 10%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는 통근통학 통계에서 시군구 단위로 공표되고 있다.

□ 주택

- 주택의 경우, 한국에서는 지역경제와 관련이 되는 주택가격에 관한 통계가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공표되고 있지 않지만 영국, 미국, 호주에서는 지역별로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표 6-11.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주택)

영국 잉글랜드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세부내용	변수	군/읍면	카운티	농촌	시구정촌
주택보급	주택보급지수	○	○	×	○
주택가격	주택평균가격	×	○	○	×
집 없는 정도	인구 1,000명당 노숙자 수	×	○	×	×
주택상태	상태가 좋지 않은 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	○	○	○	×

자료: 김용렬 · 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건강과 의료

- 건강과 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서양의 차이점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은 정신건강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영국과 호주에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통계화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건강과 의료에 관한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통계도 생산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단순한 시설 수에 대한 파악에 머무르지 말고 건강과 의료 서비스시설 접근성에 대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표 6-12.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건강과 의료)

영국 잉글랜드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세부내용	변수	군/읍면	카운티	농촌	시구정촌
과일과 채소 소비량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이상 소비하는 어른과 3이상 소비하는 어린이 비율	×	×	×	×
건강에 해로운 습관	흡연, 과음, 비만인 사람의 비중	×	×	○	×
정신건강	정신건강지수	×	○	○	×

자료: 김용렬·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교육

- 교육의 경우, 한국에서는 교육성과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통계가 공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학습효과, 호주에서는 학업달성도를 나타내는 통계가 있어 교육성과를 통계화하고 있다.

표 6-13.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교육)

영국 잉글랜드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세부내용	변수	군/읍면	카운티	농촌	시구정촌
학습효과	학교성적이 5 혹은 A* 이상을 얻고 있는 초등학생의 비율	×	△	○	×
교육수준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자 비중	○	○	○	×

자료: 김용렬 · 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

- 농촌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의 경우,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통계들이 주로 전국단위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활동이나 주민활동 상황에 대하여 영국, 호주, 일본에서는 농촌지역단위로 통계화해서 발표되고 있다.

표 6-14. 영국 잉글랜드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농촌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

영국 잉글랜드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세부내용	변수	군/읍면	카운티	농촌	시구정촌
지역사회 활동 정도	지역서비스 혹은 그에 관한 문제에 대한 설문 참여, 공청회 참여, 토론 그룹 참여	×	△	○	○
안전성	범죄율	○	○	×	×
시민자문위원회 활동	이익, 소비자 및 공익설비, 부채·재정·세금, 고용, 교육·건강·주택, 전입출, 법률, 도로표지·여행·기타	×	×	○	○
지역신용거버넌스	FSA가 인가한 소비자신용조합수	○	×	×	×

자료: 김용렬 · 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1.2. 토지와 환경

□ 토지이용

- 토지이용에 관한 통계는 농지구매자에 대한 통계를 제외하고는 한국 농촌 지역에서도 비교적 많이 생산되고 있다.

표 6-15.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토지이용)

영국 잉글랜드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세부내용	변수	군/읍면	카운티	농촌	시구정촌
개발	주거건물, 비주거건물, 도로	○	×	×	○
보존	들판, 정원, 수자원	○	×	×	×
재개발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한 개발 비율	×	×	×	○
농지이용	작목별	○	○	○	○
농지 구매자	농업인, 농산업관련자, 비농업인, 투자기업, 개발업자	×	×	×	×

자료: 김용렬 · 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환경

- 환경의 경우, 한국에서는 수질과 공기의 질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나 광역자치단체에 국한해서 생산되고 있다.
 -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탄소배출량에 관한 통계는 생산되고 있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호주,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실정이다.

표 6-16.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환경)

영국 잉글랜드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주제	세부내용	변수	군/읍면	카운티	농촌	시구정촌
환경의 질	수질	강 길이	×	×	○	×
	공기	이산화탄소, 오존 등	×	×	×	×
기후변화	탄소 배출량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	×
	요소별 탄소 배출량	주택, 교통, 음식, 소비자아이템, 개인서비스	×	×	×	×
	부문별 탄소배출량	국내산업, 농업, 교통, 총배출량	×	×	×	×

자료: 김용렬 · 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 지역경제 관련 지역통계 비교

- 지역경제 관련 지역통계를 비교하기 위해 소득 · 부 · 소비, 고용, 기업과 기업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3.2.1. 소득 · 부 · 소비

- 소득 · 부는 한국의 농촌지역통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 한국의 경우 농촌지역의 가구당 소득이나 1인당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고, GRDP는 일부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반면에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모든 국가에서 소득에 관련된 농촌지역통계가 생산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소비에 관한 통계도 소득과 함께 중요한 경제적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농촌지역통계가 생산되지 않는 반면에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소비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농촌지역통계가 발표되고 있다.

표 6-17.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소득, 부, 소비)

영국 잉글랜드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세부내용	변수	군읍면	카운티	농촌	시구정촌
소득	잉글랜드의 가구당 평균 소득	×	○	○	○
평균소득분포	가구 평균 소득의 상하위 5개 지역	×	○	×	×
경제활동별 개인평균소득	자가고용소득, 고용소득, 연금소득, 총소득	×	○	×	○
주당 평균 가구 지출	음식과 음료, 술·담배·마약, 의류, 주 택·연료, 가정용품, 건강, 교통, 통신, 레 크리에이션·문화, 교육, 레스토랑·호텔	×	○	×	○
세금	개인평균소득에 부여되는 세금 부과율	△	○	×	○
도농간 가구 재정 비교	주당가구소득, 주당평균소비, 소비보다 적은 소득	×	○	×	○
가구소득 출처	임금, 자가고용, 투자, 연금, 사회보장제 도, 기타서비스	×	○	×	×
소득과 세금	총소득, 총세금	×	○	×	○
경제활동별 소득	자가고용소득, 고용소득, 연금소득	×	○	×	×
나이별 주당 평균 소득	주당평균소득(65세 이하, 65-75세, 75세 이상, 50세이 상 총계)	△	○	×	×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Wave 2에 있는 임금 지급 일터가 아니 라 Wave 1에 있는 임금지급 일터에서 일하는 고령자(여성과 남성)의 비율	×	○	○	×

자료: 김용렬·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2. 고용

- 고용의 경우, 2008년 말까지 한국에서는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용에 관련된 통계는 거의 생산되지 않아 농촌지역의 고용수준과 노동력을 살펴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통계청에서 시·군 단위의 고용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가 DB화하여 공개될 때 시·군 단위의 고용통계를 통해 국제간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 다만 인구총조사에서 10% 표본에 의해 5년 주기로 생산되고 있는 경

제활동인구에서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수가 시군구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다.

-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 경우 모두 약간의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농촌 지역의 고용상태를 알 수 있는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표 6-18.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고용)

영국 잉글랜드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세부내용	변수	군/읍면	카운티	농촌	시구정촌
주거와 직장	집과 직장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비율	○	○	×	○
지역별 고용 차이	고용 상하위 5개 지역의 고용비율	×	○	○	○
고용수준이 높은 지역	고용률이 80% 이상인 지역	○	○	×	×
노동시장	경제활동 상황에 따른 경제활동가구 비율	○	○	×	○
이민자의 농촌 노동시장	영국 국적이 아닌 노동자의 변화율	×	×	×	×
농촌지역사업특 성과 고용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과 친구 비율(배우자, 자녀, 다른 가족구성원, 전직장 동료)	×	○	×	○
직장을 떠나는 고령자들의 이유(남,여)	은퇴, 실직, 지병/장애, 가정구성, 기타	×	×	×	×

자료: 김용렬·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2.3. 기업과 기업가

- 농촌지역의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통계는 국가별로 용어상의 차이가 많다.
 - 한국의 경우 사업체와 종사자를 기본으로 농촌지역의 기업에 관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다.
 - 그러나 창업에 대한 통계는 농촌지역의 경제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통계인데, 이에 대한 통계가 영국, 미국, 호주에서는 생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표 6-19. 영국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비교(기업과 기업가)

영국 잉글랜드의 The state of countryside 2007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세부내용	변수	군/읍면	카운티	농촌	시구정촌
창업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VAT 등록건수	×	○	○	×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은행 창업율	×	×	×	×
기업가	초기단계의 기업활동(초기기업활동, 기회, 필요) 남/여	×	○	×	○
지속가능성	1년~3년을 지속하는 기업비율	×	×	×	×
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	×	×	○	○
거래액	직원당 거래액이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	×	×	○
농촌과 도시간의 시장연계성	주요 소비자의 주거지(가까운 곳, 지역내, 영국내, 유럽내, 유럽밖)	×	○	×	×
기업위치	위치하고 있는 곳의 기업 수	○	○	○	○

자료: 김용렬 · 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3. 시사점

- 외국의 농촌지역통계들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 결과, 생활환경 부문에서는 인구통계를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외국에 비해 부족하였고,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부족한 면이 매우 많았다.
- 생활환경 부문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 첫째, 삶의 질과 관련 있는 통계들의 경우, 우선 ‘서비스시설 접근성’에 대한 통계의 보완과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 둘째, 지역사회역량을 나타내는 통계에서도 많은 것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역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서는 교육성과와 학습효과에 대한 자료가 없어 교육의 질과 성과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나타내는 리더십, 기술혁신에 관한 데이터도 부족하였으며, 지역활동들을 나타내는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참여 정도, 지역공동체 활동, 시민활동에 관한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 셋째, 주택의 경우 경제지표와 관련이 큰 ‘주택가격’ 등에 대한 통계가 없어 경제적 연관성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 마지막으로, 환경통계와 관련해서는 수질, 공기의 질, 탄소배출량과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통계들이 부족하였다.
- 지역경제와 관련된 통계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특히 경제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농촌지역통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 경제통계중에서도 지역내총생산, 가구소득, 개인소득, 가구평균총소득에 관한 통계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비’를 나타내는 지역통계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이에 대한 통계생산도 고려하여야 한다.
- 결론적으로 외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인구와 인구이동 관련 통계와 물적 통계를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으로 얻을 수 있는 통계가 극히 미약하다.
- 특히, 소득, 소비, 서비스시설 접근성, 교육성과, 지역역량, 환경(기후변화)에 관한 통계 획득에 어려움이 많다.

제 7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163개 기초생활권의 일반 현황, 생활환경 현황, 경제활동 여건 등에 대하여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자료들을 수집·분석하는 것이다.
- 이는 기초생활권 정책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의 현재 여건을 파악해본다는 기초적인 의의와 더불어 기초생활권 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 향후 정책의 성과 관리형 평가를 도모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 기초생활권 정책 현황, 지역 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가용 통계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 일반 현황, 생활환경 현황, 경제활동 여건 분야로 나누어 세부 항목에 대해 검토하였다. 통계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선진국의 관련 통계자료 현황도 살펴보았다.
- 일반 현황 자료 검토와 분석을 통해 특기할 만한 것은 주택의 노후년수와 공·폐가율 이외에 거주가능주택의 지표화에 대해 새로운 작업을 추가했다

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생활권 정책 수행에 있어 기초생활권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그 중에서 농촌지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은 과제이다. 또한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소지역 통계 데이터나 인구이동의 다이내믹스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농촌지역 기초생활권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다.

- 생활환경 여건을 나타낼 수 있는 가용 통계자료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지만, 시설 중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에의 접근성 등을 파악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민의 정주 매력도 및 산업화의 가능성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어메니티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형성도 남은 과제이다.
 - 기초생활권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의 기초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어메니티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서비스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목표의 하나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 경제활동 여건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로 살펴본 농촌지역은 한마디로 침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농가 수, 경지면적, 농림어업 관련 사업체 수 등과 같은 지표의 비중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1차산업 생산액과 판매액은 오히려 낮은 ‘저부가가치형’ 경제여건을 나타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여건을 개선시키느냐 하는 것이 농어촌산업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 데이터 측면에서는 소득, 유형별 사업체의 창업·폐업 동향, 농가 단위의 2·3차산업 활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 조사와 구축이 요구된다.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선진국들의 지역통계 지표 현황도 살펴보았다.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통계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과 접근성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와 인구이동 관련 통계와 물적 통계를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으로 얻을 수 있는 통계가 극히 미약한 편이다.
 - 소득, 소비, 서비스 시설 접근성, 교육성과, 지역역량, 환경(기후변화)에 관한 통계 획득에 어려움이 많다.

2. 농촌지역지표 개발의 성과와 과제

- 일반적으로 지역통계는 과학적 지역정책 실행을 위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목표 설정 및 성과 측정 등에 합리적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며, 국제적인 의사소통과 선진국 지역과의 비교 등을 통해 정책성과 관리를 하는 데 준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그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 수립, 정책 투입, 성과 평가 등을 시도했으나, 지역통계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 금번 기초생활권 정책에 따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여건 진단, 정책 목표와 방향의 정립, 목표 대비 성과 측정 등을 위해서는 지역통계 기반 구축이 필수적인 바, 이 연구를 통해 현 수준의 개별 지표들을 살펴보았으나 아직 데이터 구축의 한계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다만, 현 수준의 개별 지표들만으로 기초생활권 정책의 전제로서 필요한 몇 가지 작업은 해 둘 필요가 있다.

- 농촌정책의 대상으로서 기초생활권의 정책 대상 범위
- 종합적인 지역간 삶의 질 수준 비교 등

□ 농촌지역 정의

- 기초생활권 정책에 따라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 환경 변화 속에서 농촌정책의 대상을 어떻게 확정하고 정책 목표와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 실험적 시도의 하나로 토지이용상 농지의 분포, 어메니티 지목의 분포, 농림어업 관련 사업체 현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우선, 농업생산활동의 근간인 농지의 분포를 기준으로 할 때,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표 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의 경지면적과 대비해서 도농복합시에는 40.4%, 군 지역에는 56.3%의 경지가 분포하고 있다.⁵¹ 동(洞)으로만 이루어진 일반시의 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하다.
 - 시·군별 평균 농지 및 농업용도 지목⁵² 면적에서도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이 일반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 특히 도농복합시의 경우 평균 경지면적이 1만1천4백ha로 나타나 군 지역의 평균 면적(9천4백ha)보다 큰 규모이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군 지역에 비해 도시적인 성격이 강한 곳이지만, 농업적인 특성 역시도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51 이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에 분포하는 경지면적은 제외하고 163개 기초생활권에 해당하는 경지만 집계한 것이다.

52 농업용도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면적을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표 7-1. 기초생활권 유형별 경지면적 비교

단위: ha, %

구 분	시·군별 농업용 토지이용 지표 평균		경지면적 합계
	농업용도 지목	경지면적	
일반시	4,751	1,935	48,365 (3.3)
도농복합시	15,707	11,440	594,883 (40.4)
군	13,086	9,421	829,041 (56.3)
전체	12,644	8,923	1,472,289 (100.0)

주: 1) () 안은 전체 경지면적 대비 해당 유형이 차지하는 구성비임.

2) 농업용도 지목은 각 시·군별 농업활동과 관련되는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을 기준으로 집계함(2006년 기준).

3) 경지면적은 2005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함.

- 농림어업 관련 사업체의 비중은 군 지역이 가장 높다. 관련 사업체의 특화계수가 1보다 큰 것은 163개 기초생활권 중 64%인 105개 시·군이다.
- 농림어업 관련 사업체⁵³ 분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사업체 개수에 있어서는 도시 특성이 강한 일반시가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표 7-2 참조).
 - 그러나 이들 사업체의 지역별 특화계수를 집계한 <표 7-3>의 결과에서는 군-도농복합시-일반시의 순으로 특화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군 지역의 경우 농업 관련 사업체의 특화계수가 1보다 큰 시·군이 73개로 전체 군 중 약 85%를 차지한다. 도농복합시 중에서는 약 48%인 26개의 특화계수가 1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⁵³ 농업 부문 사업체는 대분류 기준으로 '농림어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우선 해당된다. 그 밖에 제조업 중 '농림수산물 가공업'에 해당하는 업체, 도소매업 중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업'에 해당하는 업체 역시 농업 부문 사업체로 분류하였다. 자료는 2005년 사업체통계조사 결과 원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7-2. 농업 관련 사업체의 특화계수 비교

특화계수	시·군 유형	일반시	복합시	군	계
	1 미만 시·군		17 (73.9)	28 (51.9)	13 (15.1)
1 이상 2 미만 시·군		4 (17.4)	26 (48.1)	57 (66.3)	87 (53.4)
2 이상 시·군		2 (8.7)	0 (0.0)	16 (18.6)	18 (11.0)
전 체		23 (100.0)	54 (100.0)	86 (100.0)	163 (100.0)

주: () 안은 구성비임.

자료: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 재집계함.

표 7-3. 농림어업 관련 사업체 수 비교

구 분	기초생활권 유형			전 체
	대도시연계권	중소도시연계권	자체생활권	
일반시	524.1	452.0		499.0
도농복합시	335.8	521.5	351.3	451.9
군	191.4	144.2	171.4	168.2
전 체	363.8	392.8	196.7	308.9

주: 2005년 기준 사업체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 농림어업, ② 농림수산물 가공업, ③ 가공 및 비가공 농축산물 유통업에 속하는 사업체 수를 집계함.

○ 이처럼 농업적인 특성에 기초할 때 140개의 도농통합시(54개)와 군(86개)을 기본적인 농촌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표 7-4 참조).

- 기초생활권 단위로 정책 대상이 재편되면서 향후 도·농복합적 농촌 발전에 역점을 두는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 농업적인 특성으로 볼 때 농림수산물부문의 고유한 정책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도·농복합시의 상당수는 그동안 농촌보다는 도시 부문의 성장을 겨냥한 시책들에 우위를 두었으며, 농촌 부문에 대한 시책은 우선순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서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추진시 농촌 지원과 관련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물부 차원

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상당수가 특수상황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체생활권 유형 시·군의 경우는 대체로 농업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 특성을 강하게 지닌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차별적인 농촌정책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 수준의 여건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7-4. 기초생활권 유형별 시·군 분포

단위: 시·군 수

구분	기초생활권 유형			합 계
	대도시연계권	중소도시연계권	자체생활권	
일반시	15	8	-	23
도농복합시	12	33	9	54
군	12	19	55	86
합 계	39	60	64	163

- 한편, 농업적 특성이 우세한 정도 이외에 도농교류와 어메니티에 기반한 지역개발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읍·면지역도 농촌정책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의 어메니티 여건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전용도가 강한 지목⁵⁴의 구성 비율을 기초생활권 유형에 따라 집계한 결과가 <표 7-5>에 제시되고 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체생활권에 속한 면일수록 보전용도 지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7-1>에서는 특히 보전용도 지목의 비율이 높은 읍·면의 공간적인 분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적인 경제 기반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읍·면 지역이 보전용도 지목의 구성 비율 면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⁵

⁵⁴ 보전용도의 지목으로는 임야,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염전이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여 읍·면별 전체 면적 대비 해당 지목의 비율을 집계하였다.

표 7-5. 보전용도 지목의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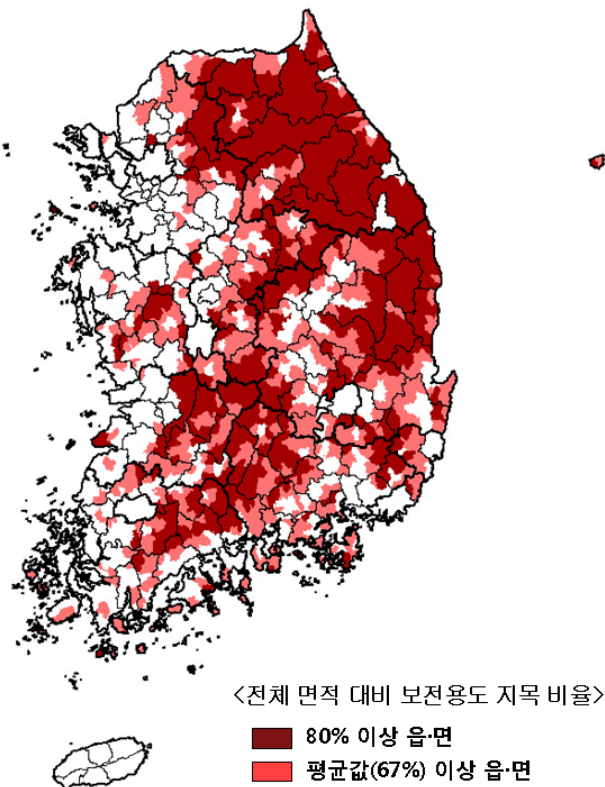
단위: %

권역	읍	면	총합계
대도시연계권	62.1	68.4	67.2
중소도시연계권	58.2	65.3	64.1
자체생활권	62.7	70.1	69.2
총합계	60.7	68.2	67.0

주: 1) 읍·면별 행정구역 면적 중 임야,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염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산하여 지역 유형별로 집계함.

2) 지목 관련 자료는 2005년 기준 각 시·군통계연보를 활용함.

그림 7-1. 보전용도 지목의 비율이 높은 읍·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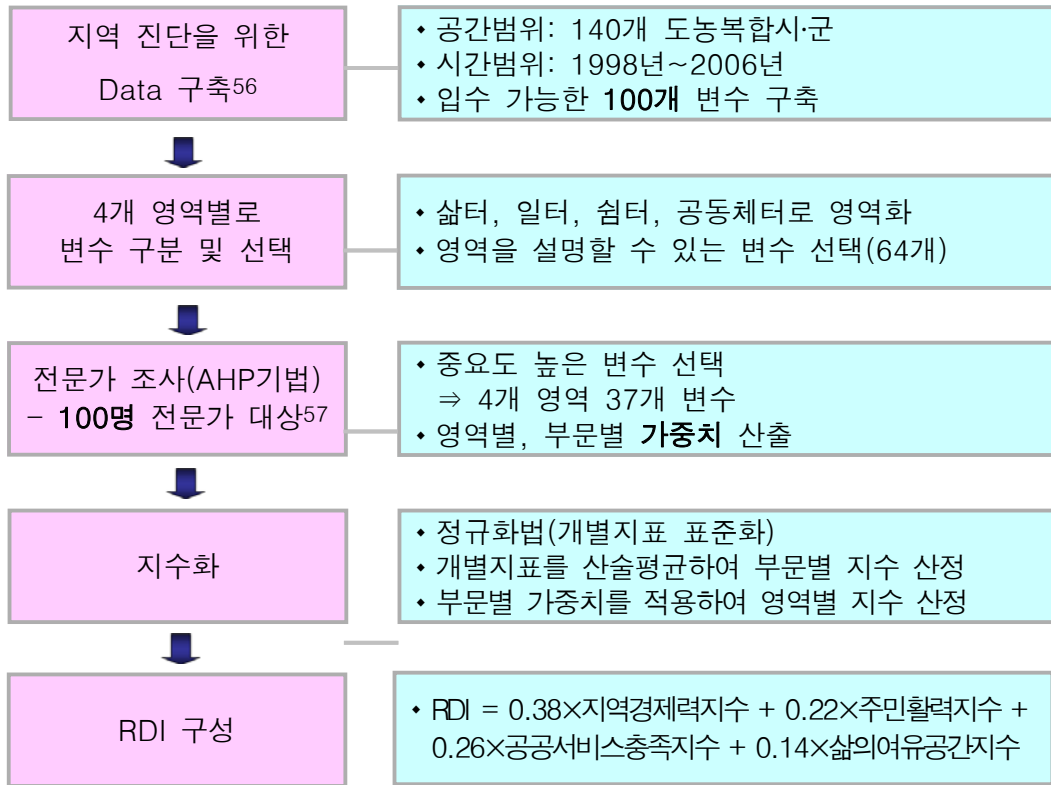
⁵⁵ 보전용도 지목 비율이 80% 이상인 읍·면 수는 367개이며, 70% 이상인 읍·면은 371개로 각각 전체 읍·면 중 26.0% 및 26.3%를 차지한다.

- 이상의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는 지역의 농업적 특성, 어메니티 개발 여건 등을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농촌정책 대상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특수상황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속하는 지역은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사업군’에만 한정하자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담당하는 사업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사업군의 주무 부처가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해당 지역 SOC 등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 지원을 하는 것을 국토부가 담당함을 의미하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 하지만 농업적인 기반이나 어메니티를 바탕으로 한 도농교류 활동의 추진 여건 면에서는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농촌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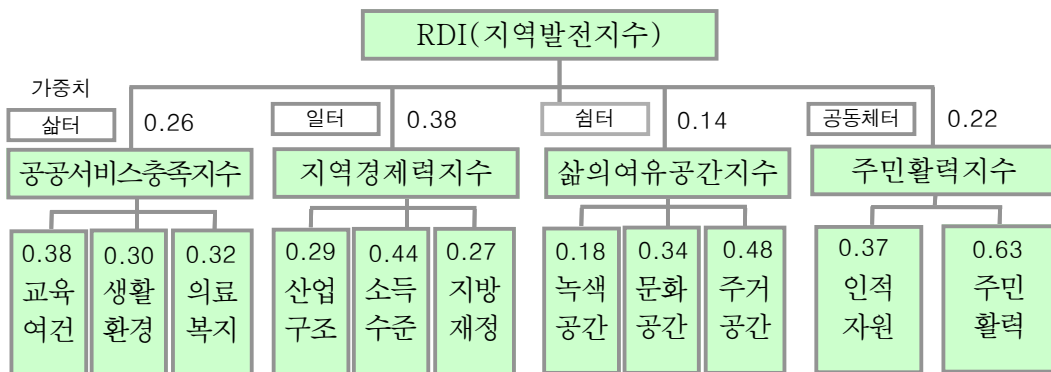
□ 종합적 지역지표 개발 사례

- 163개 시·군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로서 개념화하고 각 영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각 영역별 발전 정도를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지수를 구성해 지역에 대한 진단·비교를 시도했다.
 - 이 지수를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라고 명명할 수 있다.
 - 지수를 구성하는 방법론을 준거로 개별 변수는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 지수가 지역 현실 수준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지역간의 수준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 지역발전지수 구성의 절차



○ 지역발전지수 구성



⁵⁶ <부록 5> 참조.

⁵⁷ <부록 6> 참조.

○ 지역발전지수 상위와 하위 10개 지역

구분		상위 10개 지역	하위 10개 지역
지역발전지수	2005년	창원, 용인, 화성, 구미, 천안, 김해, 평택, 포항, 이천, 김포	울릉, 신안, 봉화, 완도, 고흥, 순창, 함평, 진도, 구례, 임실
	2000년	창원, 구미, 용인, 양산, 화성, 평택, 천안, 포항, 여수, 광양	신안, 장수, 임실, 함평, 순창, 합천, 진도, 진안, 울릉, 남해
공공서비스충족지수	2005년	창원, 용인, 마산, 구미, 평택, 김해, 천안, 군산, 익산, 남양주	울릉, 봉화, 용진, 신안, 영양, 가평, 화천, 진도, 순창, 울진
	2000년	창원, 양산, 마산, 군산, 평택, 익산, 천안, 구미, 통영, 여수	울릉, 울진, 영양, 신안, 강원 고성, 봉화, 장수, 화천, 인제, 순창
지역경제력지수	2005년	화성, 창원, 용인, 천안, 구미, 평택, 김해, 포항, 이천, 아산	완도, 함평, 신안, 남해, 구례, 청양, 계룡, 순창, 증평, 봉화
	2000년	화성, 구미, 창원, 용인, 여수, 광양, 포항, 이천, 평택, 천안	계룡, 남해, 신안, 진안, 함양, 장수, 진도, 합천, 거창, 함평
삶의여유공간지수	2005년	단양, 용진, 계룡, 경주, 평창, 영암, 양구, 거제, 영월, 양산	군위, 울릉, 봉화, 담양, 신안, 순창, 청송, 영천, 마산, 울진
	2000년	계룡, 거제, 문경, 경주, 안동, 양산, 북제주, 용인, 안성, 강원 고성	함평, 홍천, 임실, 옥천, 영동, 강화, 청원, 금산, 해남, 군산
주민활력지수	2005년	용인, 계룡, 춘천, 화성, 강릉, 원주, 창원, 광주, 천안, 구미	고흥, 임실, 신안, 합천, 청도, 의령, 보성, 군위, 구례, 강진
	2000년	계룡, 용인, 춘천, 강릉, 원주, 창원, 김포, 경산, 김해, 천안	임실, 장수, 고흥, 의령, 합천, 남해, 신안, 영덕, 보성, 순창

주: 굵은 글씨는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등 변화가 나타난 지역임.

○ RDI로 살펴본 지역의 변화(2000-2005)

-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지수 상 상위인 지역의 분포가 증가한 반면, 전남 지역에는 하위 지역의 분포가 늘어났다.
- RDI값이 높은 지역이 가까이에 있는 경우 이웃한 농촌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가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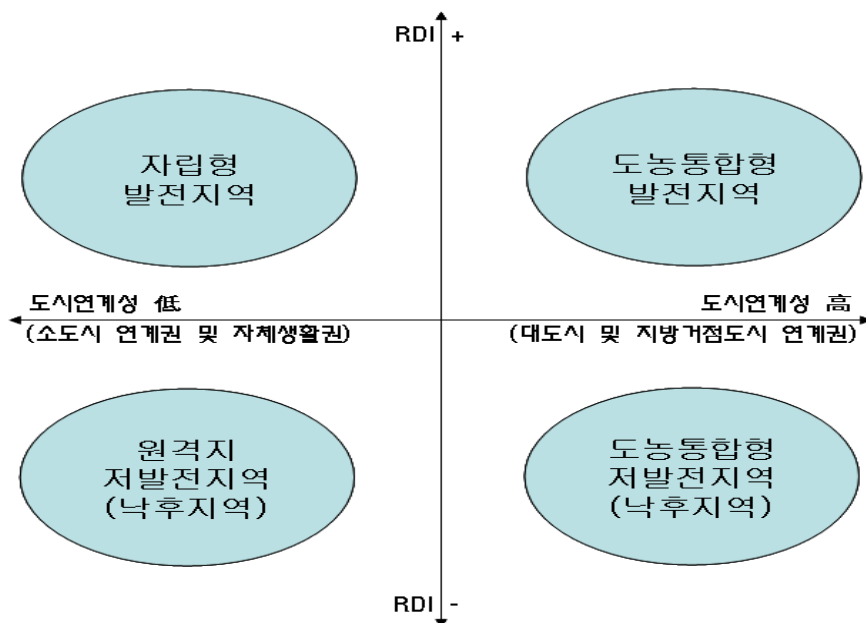
- 한편 140개 도농통합시와 군뿐만 아니라 일반시까지 고려하여 163개 기초 생활권간의 비교를 위한 RDI를 구성한 결과(부록 7 참조)는 다음과 같다.
- 일반시의 삶의 질 여건이 도농통합시와 군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나타났다. 일부 특수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일반시 - 도농통합시 - 군 순으로 지역발전 수준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	전체
지역수		25개	52개	88개	165개
지역발전지수 상위 30개	2000년	14개	14개	2개 (칠곡, 울주)	30개
	2005년	14개	15개	1개(울주)	30개
지역발전지수 하위 30개	2000년	-	1개(김제)	29개	30개
	2005년	-	1개(김제)	29개	30개
지역발전지수	2000년	6.520	6.189	5.741	6.000
	2005년	6.527	6.204	5.730	6.000
생활서비스	2000년	6.975	6.156	5.631	6.000
	2005년	6.969	6.164	5.628	6.000
지역경제력	2000년	6.672	6.375	5.587	6.000
	2005년	6.747	6.342	5.586	6.000
삶의여유공간	2000년	5.430	5.784	6.289	6.000
	2005년	5.387	5.823	6.279	6.000
주민활력	2000년	7.004	6.440	5.455	6.000
	2005년	7.005	6.487	5.426	6.000

주: 1) 각 지수값은 지역 구분별 산술평균값임.

2) 개별 변수의 측정 단위가 다양함으로 정규화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개별 지표들을 표준화하고(Z-Score)하고, 각 지수의 평균값이 6이 되도록 조정함.

- 163개 기초생활권을 대상으로 도시와의 접근성, RDI값을 축으로 하여 4개의 지역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가령, 도시활력증진지역, 성장촉진지역, 성장거점지역, 특수지역 등의 구분에도 활용할 수 있다.
- 부처별 정책 추진에도 차별적 접근 유도가 가능하다.



- * RDI와 도시연계권 기준을 통합하여 2005년 기준 165개 시·군을 4개 지역으로 유형화
- 도농통합형 발전지역: 도시연계권에 포함되면서 RDI가 높은 50개 시·군 (양평군, 울주군 2개 군, 48개 시)
 - 도농통합형 저발전지역: 도시연계권에 포함되나 RDI가 낮은 11개 시·군
 - 자립형 발전지역: 자체생활권에 가까우면서 RDI가 높은 28개 시·군
 - 원격지형 저발전지역: 자체생활권에 가까우면서 RDI가 낮은 76개 시·군

□ 추가 지표 개발의 과제

- 소득 통계(가구소득과 지역소득): 지역정책 수립이나 지역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 가구소득: 광역시·도 수준에서만 공표되고 있다.
 - 지역소득: 지역내총생산(GRDP)은 현재 9개 시·도에서만 시·군·구 단위로 생산하고 있다(대전, 대구,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전북).
 - * 전문가조사('08. 7. KREI): 농촌지역통계에서 가장 취약한 통계 순위 1위
 - * 전문가/공무원/일반인조사('08. 9. KREI): 농촌지역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 순위 2위(1위는 인구)

국가	내용	공표범위
영국	소득, 평균소득, 가구소득 출처 등	농촌지역(유형별)
	종합소득지수	인구 1,500명
미국	가구소득중간값, 평균가구소득, 사회보장 등	카운티
일본	1인당 주민소득	시정촌

-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은 전국 단위에서만 공표되기 때문에 농촌지역별(군, 읍·면) 농업소득과 농가소득 수준은 파악하기 어렵다.
- 서비스시설 접근성 통계: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 의료, 문화, 사회보장 등 각종 사회서비스의 경우 이를 어떻게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통계는 현재 시설 수에만 국한되어 있다.
 - 건강과 의료 및 복지시설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 문화시설 접근성 등

서비스시설 접근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 * 전문가/공무원/일반인조사('08. 9. KREI): 건강과 의료 및 복지부문과 교육부문에서 건강과 의료 및 복지시설 접근성과 교육시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통계 순위 1위

<외국의 서비스 시설 접근성에 관한 지역통계>

국가	내용	공표범위
영국	서비스 접근성(시설별 4km 이내), 편리성	농촌지역(유형)
	도로거리를 고려한 서비스 접근성	인구 1,500명
일본	생활관련시설까지의 소요시간	농업집락

- 지역공동체 활동 통계: 지역의 활력을 나타내는 지역공동체 활동 통계는 주로 광역시·도 수준이나 전국 단위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공표범위를 군 혹은 읍·면 단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광역시·도 수준에서만 공표되는 통계: NGO 활동 참여 정도, 지역봉사활동 참여
 - 신규 생성이 필요한 통계: NGO 단체수/종사자수, 이웃관계 만족도

<외국의 지역공동체활동통계>

국가	내용	공표범위
영국	지역사회 활동정도, 시민자문위원회활동	농촌지역(유형)
일본	모임의 개최 회수, 모임의 의제, 조합의 유무	농업집락

- 인구통계: 인구통계는 비교적 잘 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인 읍·면 혹은 군 단위의 지역통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 광역시·도 수준에서만 공표되는 통계: 경제활동인구
 - 시·군까지만 공표되는 통계: 전입지/전출지별 인구, 통근/통학인구, 상주/

주·야간인구

- 신규 생성이 필요한 통계: 다문화가정수, 귀농/귀촌인구, 독거노인수, 전문화된 전업농가수

○ 기타

- 경관과 어메니티 통계, 토양오염, 생활환경 쾌적성 만족도, 수질, 토지가격, 주택가격,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수준, 창업/폐업수 등의 농촌지역(읍면, 군)통계 신규 생성이 필요하다.
- 소지역 통계, 특히 마을별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가 필요하다.
- 일본의 경우는 전체 집락에 대한 센서스를 주기별로 실시한다.

부 록 1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농촌통계 지표 구상

분야	지표	적절한 통계지수	자료출처
생활 조건	서비스 접근의 동등성	존재유무 혹은 거리: GPs, 병원, 기타 건강보건시설, 법률서비스, 우체국, 보육 시설, 학교(초등·중등·고교 등), 가게, 은행, 사회적 서비스, 레저서비스, 기타 지방정부서비스, 기간서비스	CA Rural Services Survey
	사고와 응급	사고건수 / 응급전화통화수(경찰, 소방서, 앰블런스)	DH-Statistics from NHS trusts, Police information on road traffic accidents, Fire Brigade incidence data
	소득분포 (가난 정도)	소득통계(소득수준별, 사람들의 사회경 제적 특성별, 저소득층이 농촌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Inland Revenue SPI, Family Resources Survey, Household Budget Survey, EC Household Panel, Independent surveys(CACI Ltd)
	부의 분포	개인과 가구의 순자산에 대한 지표들	Family Resources Survey, Private credit rating companies, DSS
	부채(개인)	카운티 회계 판결(County count ju- dgements), 신용평가등급, 이익에 대한 공제금액	Home Office, Private credit rating companies, DSS
	교육과 능력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특히 젊은 사 람들)의 능력 / 문자해독율/5 혹은 A- C의 성적을 올리는 초등학생의 비율	DfES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수	상동	DfES
	학교 장기출석과 퇴학	장기결석비율 / 퇴학비율	DfES data on exclusions
	학교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DfES

성인학습	학습형태별(기초기술, 직업훈련, 기타) 학습참가 수준	DfES	
공공교통수단	한 시간 이상 가는 장거리 버스서비스가 걸어서 10분 이내 있고, 이 서비스가 하루에 12시간 정도 제공되는 곳에 위치한 농촌주민의 비율 / 장애자용 교통수단(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택시) /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	DTLR-National Travel Survey	
자동차 접근성 (소유 혹은 회사지원)	자동차가 없는 가구비율(나이별, 성별, 가장의 소득 수준별, 가구원수별)	DVLR, IR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나 가족 중에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	DVLR records in combination with population statistics	
교통흐름 효과	교통흐름	County data	
범죄	범죄율 /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감	British Crime Survey, HO Offender data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전화와 휴대폰 사용률 /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쇼핑이나 직업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중	Private sector service providers	
주택 서비스	노숙자	사회적 주택공급 부족 상태	Government returns, Housing benefit data
	주거 불편	주거에 불편을 느끼는 농촌지역 주민의 비율	CA based on a range of sources
	주택소유	여러 채의 집 소유/한집에 여러 가족이 사는 경우	National surveys(e.g. Survey of English Housing)
	주택가격과 임대 가격	NS(Neighbourhood Statistics)를 볼 것	Private sector(building societies/banks)
	주택물량과 거래	형태별, 주택나이별, 주택상태별 물량 / 주택거래 물량	DTLR - National surveys(e.g. Survey of English Housing); local authorities and Registered Social Landlords
	빈집	주택형태별 물량과 비중	Local Authorities and Registered Social Landlords / Council Tax System
	주택기반시설 (전기,수도등)	정상적인 주택의 비율 / 주택의 에너지 효율 / 수도, 가스, 전기, 하수도, 전화 등 주택기반시설이 들어가는지 유무 / 인터넷 연결가능 여부	English House Conditions Survey / Survey of English Housing - DTLR
	가정용 시설	주요 가정용 시설(난방, 냉장고, 비디오 등)의 소유 여부	

인구와 생명 통계	인구		ONS Censuses
	인구구조	나이별(절대치, %) / 성별(절대치, %)	ONS Censuses
	인구밀도	면적당 거주자수	ONS Censuses
	인구변화	총인구변화 / 출생, 사망에 다른 자연 증감 / 순전입인구(절대치 / 연간 % / 1인당 %)	카운실 세금과 선거등록상 전입 및 전출에 대한 지표들
	가구	규모(1인가구 포함) / 어린이 비율	ONS Census
	10대 청소년의 임신	10대 청소년의 임신(절대치, %)	ONS
	사망(사건 사고로 인한)	나이별(신생아 사망) 사망률(절대치, %)	ONS death statistics and population estimates
건강과 의료	육체적, 정신적 건강	다양한 건강보상관련 청구수(claims)	DH/ Health Authorities - Large numbers of databases on aspects of health and treatments
	약물남용, 알코올 중독	약물남용과 알코올 중독(절대치, %) / 재활서비스 이용	조사, 행정자료
	노동력	경제활동인구의 %(나이별, 성별) / 농 촌지역의 고용활동비율	ONS -DWP / Labour Force Survey
경제 환경	고용의 안전성	고용특성(정규직, 비정규직 등) / 노동 기간 / 실업률(농촌지역) / 장애인, 독 거인, 소수 인종, 50세 이상 인구의 고 용비율	ONS -DWP / Annual Employment Survey
	요소소득(factor income)과 부분 생산성	1인당 GDP	ONS - DTI - DEFRA
	마켓 타운	번성·정체·쇠퇴하는 마켓 타운의 비 율(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활동, 고용에 기초하여)	CA is developing indicators
	농촌경제(비즈니스의 활력 정도)	농촌지역의 창업과 폐쇄 / 비즈니스 유 리성 / 비즈니스 생존율과 취약성	Inter-Department Business Register, DTI - RDAs
	농업의 새로운 미래(농지를 이용한 비즈니스의 활력 정도)	농장과 다른 농지이용 비즈니스의 경제 적 성과평가(농업소득과 농외소득 포 함), 농가생존능력과 그것의 결정요인 (농업외 소득과 농외소득 포함) / 외부 충격에 대한 농가의 취약성 / 농업고용 (전업농, 부업농, 계절농) / 후손승계 패턴 / 농업비즈니스의 구조적 변화	DEFRA Farm Business Survey, Non-farm businesses?, Surveys of intentions, Agricultural censuses
자연 환경	1차산업을 위한 토지이용	농업, 임업, 기타분야별 토지이용 패턴 / 산업용지, 주택용지, 도로용지 및 기 타용도로 인한 토지 전용	Results from annual DEFRA census and surveys, Remote sensing data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지표들	DEFRA census data, linked to CA indicators	
농촌경관	경관특성과 특징들에 대한 평가	CA indicators linked to DEFRA data	
야생동식물	농지주변 조류수 / 야생동식물과 서식지의 수와 상태에 관한 지표들 / 특정 과학적 관심(Special Scientific Interest)의 대상이 되는 지역들의 상태	BTO, English Nature, Ex-DETR commissioned work	
자연자원의 보전	강 수질 / 영국공기정화전략(National Air Quality Strategy)에서 설정된 목표 지역과 관련이 있는 농촌지역의 공기의 질(낮은 오존 수준) / 토양오염도	Environment Agency, NETCEN, DEFRA	
가정쓰레기의 재활용	퇴비화되거나 재활용되는 가정용 쓰레기의 비율	Local Authorities	
농촌경관을 활용한 레저	농촌을 관광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의 수, 방문유형, 이용교통수단, 비용 수준	English Tourism Council,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야생동식물과 경관의 가치	다면적 기능을 지닌 농업의 비시장적 환경서비스들의 가치를 포함하는 환경과 경제계정(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DEFRA in association with research projects to establish valuations	
지역 공동체 웰빙/ 사회적 환경	지역공동체 참여와 활동	회의참여수, 자발적 문화활동수, 소지역 선거참여수에 대하여 매우 활발하게, 활발하게, 약하게, 전혀 참여하지 않는 4개의 기준에 따른 비율(%)	CA Rural Services Survey
	부양의무	가족구성원들이 부양하는 경우의 비율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참여	참여율	CA
	투표참여	선거참여율	ONS
	이웃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해도	Neighbourhood statistics를 볼 것	ONS
	농촌지역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Countryside Agency가 2001년 조사를 위해 개발하였음	NSCR's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 Countryside Agency
	문화적 유산 (건물과 직종)	건물수 / 직종수 / 사용중인 교회의 수와 상태	English Heritage, Church Commissioners

자료: 김용렬·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erkeley Hill, 2002, Determining DEFRA's Rural Statistics, London University.

부 록 2

PAIS 농촌발전지표구상

분야	항목	지표
인구 및 인구의동	인구통계	인구밀도
		16세 이하 인구 비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신생아 사망률
	인구변화	연평균 인구 변화
		순전입인구
사회적 복지	서비스 공급	공공서비스 접근성
	고용	거주지역외에서 근무하는 주민 비중
		농촌지역 고용률
	고용의 질	저숙련과 고숙련근로자의 비중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단기계약과 장기계약 근로자 비중
		자가고용 비중
	소득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의 비율
		1인당 평균 소득
		가구당 양도소득
	주택	두번째 주택(second home)수
		전국평균주택가격과 지역평균주택가격의 차이
		주택소유가 어려운 사람들의 비중
		주택거래율
임대주택관련 총 거래액 비중		
경제구조와 성과 (경쟁력)	기업	평균 특허수
		특허 신청수
		연구개발비
		신규창업률
		제조업의 1인당 총부가가치액(GVA)

		하이테크분야의 GVA 비율
인적자본		대학생수
		고학력의 근로자 비율
사업기반		브로드밴드 서비스 공급
분야별 비중		분야별 고용비중: 하이테크 제조업과 저기술 제조업
		외국인 소유 기업의 비율
		분야별(제조업, 매매서비스) 외국인 소유 기업의 고용 비율
		사업별 순수익
농가		복합영농 농가의 비율
		농외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업외소득의 비중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주민 1,000명당 침상수
		농촌관광숙박업소의 고용비중
		숙박업소 수용률
		총 관광에서 농촌지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경제구조와 성과 (1차산업)	농업	농가규모(면적/생산)
		총생산액
		총부가가치액
		농업비즈니스 고용
	임업	고용(정규/비정규)
		산림면적 비중(농업/농업외)
		총생산액
		총부가가치액
		벌채목의 연간 가치총액
	수산업	총생산액
		총부가가치액 비중(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항구별 고용
상륙비용(지역에 등록된 보트별)		
공동어업정책(CFP, Common Fisheries Policy) 의존 지표		

자료: 김용렬 · 김정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rostat (2001) Proposal on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PAIS)Final Report Luxembourg, December 2001.

부 록 3

HAY 리포트에서 제시한 농촌지역지표

분야	이슈	지표	변수
인구학적 특성과 변화	인구변화	인구평균	인구년도 1, 인구년도 2
	인구밀도	인구밀도	인구년도 1/면적(km2)
	나이구조	청장년과	55세 이상 인구 비중
		청소년 인구	14세 이하 인구 비중
			55세 이상 인구대비 14세 이하 인구 비중
	인구이동	나이별 인구이동	지역간 인구이동
인구자연증감	출생/사망 비율과 변화율	년도 1의 총사망자수, 년도 2의 총사망자수 년도 1의 총출생자수, 년도 2의 총출생자수	
고용과 인적 자본	인적자본	교육수준	25세-29세의 인구 중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 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중
	고용변화	고용성장	년도 1의 나이별, 성별 총고용 년도 2의 나이별, 성별 총고용
	고용과 경제활동	고용률	15세-64세의 종사자수/경제활동인구
		실업수준	총인구대비 실업률
		활동률	활동인구/근로인구
	여성을 위한 기회 제공	성별 고용률	15세-64세 여성 취업자/경제활동인구 - 국가 차원
			15세-64세 남성 취업자/경제활동인구 - 국가 차원
15세-64세 여성 취업자/경제활동인구 - 지역 차원			
15세-64세 남성 취업자/경제활동인구 - 지역 차원			
복지, 소득과 삶의질	경제성장	평균소득과 성장/ 하락	년도 1의 1인당 GDP 년도 1의 1인당 GDP, 년도 2의 1인당 GDP
	일자리의 질	파트타임 혹은 계 절 고용 비율	파트타임 고용 비율
			계절고용 비율
	서비스 접근성	병원, 학교, 우체 국, 은행과의 거리	
	빈곤	무직자 가정	가족구성원 중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 무도 없는 가정의 비율

농업구조 조정		정부지원 의존도	정부의 사회보장지원(social transfer) 받기 전의 빈곤율(순소득)
			정부의 사회보장지원(social transfer) 받은 후의 빈곤율(총소득)
			정부의 사회보장지원(social transfer)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건강	기대수명	여성의 기대수명
			남성의 기대수명
	농업고용의 변화	농업노동력과 변화	년도 1의 AWU에서의 총농업노동력
			년도 2의 AWU에서의 총농업노동력
		변화강도	보유토지별 평균 AWU 수/총보유면적
			100ha별 평균 AWU 수/총보유면적
			AWU의 수/총 UAA(년도 1, 년도 2)
	가족노동력	AWU의 총 가족노동력/AWU의 총 노동력	
다면활동	다른 소득원 활동을 하는 농지소유주	노동시간이 0-25%인 사람수	
		노동시간이 25-50%인 사람수	
		노동시간이 50-75%인 사람수	
		여성의 비율	
		남성의 비율	
농민의 노령화	노령자의 비중과 변화	년도 1, 년도 2의 AWU의 55세-64세 농민의 수	
		년도 1, 년도 2의 AWU의 65세 이상 농민의 수/AWU 사람수	
농업의 생명력	농업소득과 비중 변화	헥타르당 평균 표준 총 마진	
농업소유구조	농장규모(사업규모)	총 UAA/총 농업면적	
	농장규모(면적)	총표준마진(ESU)/농지소유자수	
	강도	수리시설이 갖추어진 농업면적의 비중	
		연간 단위 노동당 표준총마진	
	축산의 중요성	UAA당 SGM	
	축산으로 인한 ESU		
농업의 다원성	농업정책의 이해	농업환경보조 (agri-environment scheme)를 받고 있는 농가	농업환경보조 적용 대상 농지의 비율
		지정구역(진흥구역)에 있는 농가	지정구역에 있는 농지의 비율
	산림의 중요성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 비중	숲이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수/총 농가수

	다면활동을 하는 농가	다른 소득원 활동을 하는 농지소유주	노동시간이 0-25%인 사람수 노동시간이 25-50%인 사람수 노동시간이 50-75%인 사람수 여성의 비율 남성의 비율	
	유기농의 이해	지역의 유기농 농가의 비중	총농가수/유기농 농가수	
	농촌지역 경제의 다양성	1차산업 활동의 주류 정도	1차산업의 상대적 중요성	1차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총고용
		새로운 활동의 개발	제조업 등에 대한 고용	2차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총고용
			비즈니스 등에 대한 고용	3차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수/총고용
지역의 부가가치			식품가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	
숙박시설의 수용 한도와 범위		지역의 관광객을 위한 침상수	년도 1의 레스토랑과 호텔의 고용 비중	
	년도 2의 레스토랑과 호텔의 고용 비중			
공공부문 고용의 의존도	공공부문의 역량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		
혁신과 기업	혁신과 연구	특허신청	주민당 총 국제특허신청수	
		연구개발비	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 - 정부 부문	
			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 - 비즈니스 부문	
			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 - 고등교육 부문	
	신생기업	투자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민간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 창업수	
정보통신의 중요성	ICT 지출	정보와 통신기술지출/GDP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의 비중		
정책	EU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해당지역에서 목적 1 혹은 목적 2의 존재		
	농촌개발 법규의 중요성	농촌개발 법규의 이해	농업지원을 위한 EU의 지출 - 농촌개발 법규/규정(Rural development regulation)	
			농업지원을 위한 국가의 지출	
			해당지역의 승인된 RDR 신청건수	
			RDR의 이해를 위해 지역에 지원된 지원금액	

			Article 33(비농업적 부문 계측)을 위해 지원된 금액	
	LEADER 프로그램 적용대상 지역	LEADER II와 LEADER+의 이용	LEADER II와 LEADER+에 대한 EU의 지출 LEADER II와 LEADER+에 대한 국가별 지출 지역내 LEADER 활동그룹이 하나 혹은 그 이상 존재 여부	
	산간지역과 조건 불리지역	산간지역과 조건 불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조건불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산악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농업에서 조기 은퇴하는 농민	농가은퇴지원	농가은퇴지원의 비중	
	농가지원금의 의존도	공동농업정책 지원	공동농업정책 지원/총 SGM	
농촌환경과 경관	농가의 형태와 규모	평균농가규모 (면적)	총표준마진(ESU)/농지소유자수	
		주류를 형성하는 농가 유형	숲이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수/총 농가수	
	자연자원의 파괴 수준	산림을 가지고 있는 농가의 비율	숲이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수/총 농가수	
	경관과 생물다양성	환경보호지정	특별보호구역의 비율	특별보호구역의 비율
EC 조류 보호 명령이 내려진 구역의 비율			EC 조류 보호 명령이 내려진 구역의 비율	
EC 자연서식지 보호 명령이 내려진 구역의 비율			EC 자연서식지 보호 명령이 내려진 구역의 비율	
하부구조와 주변성	주변성	주변성 지수 (peripherality index)		
		도로의 질	가장 가까운 대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의 유무	
		철도	가장 가까운 대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철도의 유무	
		지역공항의 존재	지역에 국제공항의 유무	지역에 국제공항의 유무
			지역에 국내선 공항의 유무	지역에 국내선 공항의 유무
공항과 지역의 중심지와의 거리				

자료: 김용렬·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nited Nations, 2007, Rural Households' Livelihood and Well-Being: Statistics o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e Household Income.
 Hay, K. 2001, Rural Indicators and Rural Development. Final report, European Union.

부 록 4

호주 빅토리아(Victoria)주 커뮤니티 지표: 커뮤니티 웰빙 지표 구조

정책분야	지표	측정방법
도메인1: 건강하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커뮤니티		
개인건강과 웰빙	건강에 대한 자가 진단	매우 '훌륭한' 혹은 '매우 좋은' 형태로 표현되는 건강에 대한 자가측정: 장년층(adult) 인구의 비율로서 표현
	주관적인 웰빙	개인웰빙지수: 호주웰빙지수(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수명	수명
	적당한 육체적 운동	적절한 육체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 시간과 기간
	과일소비	과일섭취 권장량을 만족시키는 사람 수
	채소소비	채소섭취 권장량을 만족시키는 사람 수
	비만	신체지수(Body Mass Index)에 의한 과체중 혹은 비만 인구
	흡연	최근 흡연인구
	술 소비	술로 인해 질병이나 중독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 수
	불법마약복용	불법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
	정신적 장애	정신장애의 위험에 놓인 사람 수
커뮤니티의 유대감	커뮤니티의 소속감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호주웰빙지수(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사회적 지원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친구, 가족 혹은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는 사람 수
	학교 참여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수
영유아기	영유아 발달	호주영유아성장지수(Australian Early Development Index) 목표치에 도달하는 아이의 수
	어린이 건강	3.5살 아이의 건강 상태(Maternal and Child Health at Age 3.5 Years)
	면역	12-15개월된 아이들 중 완전히 면역주사를 실시한 아이의 비율
	모유수유	6개월된 아이들 중 완전히 모유수유하는 아이들의 비율

개인과 커뮤니티의 안전	안전에 대한 인식	낮동안 집에 홀로 있을 경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수
		밤동안 집에 홀로 있을 경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수
		낮동안 홀로 걸을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수
		밤동안 홀로 걸을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수
	범죄	대인 범죄의 수
		대물 범죄의 수
	가정폭력	가정폭력 사건 수
	도로 안전성	교통사망자수
교통사고 부상자수		
일터의 안전성	사망과 부상을 일으키는 쉬운 직업	
평생교육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	인터넷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
		광통신 인터넷을 집에서 이용하는 사람의 수
	읽고 쓰기와 수리능력	학생들의 읽고 쓰기 능력
		학생들의 수리능력
	도서관 이용	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
	직업훈련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등록한 20-60세 사람의 수
		20-54세 이면서 TAFE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는 15-19세 사람의 수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풀타임 공부를 하고 있는 15-19세 사람의 수		
학교 등록율	학교에 다니는 17세 학생 수	
	12년 혹은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에 학교를 졸업한 19세 학생 수	
서비스 이용 가능성	서비스 접근성	개발중

도메인 2: 역동적이면서 활동적인 지역경제

경제활동	지속적인 소매부문의 소비	개발중
	고급지식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직업	고급지식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
	기업성장	개발중
고용	고용률	15세 이상인 사람의 고용량
	실업률	직업이 없는 사람의 수
	지역고용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

소득과 부	1인당 소득	주당 가구소득이 중간값 1인당 소득
	소득 분배	주당 가구소득의 90%에 해당하는 사람과 10%에 해당하는 사람간의 비율 90%-10% 소득 분포
	1인당 부	개발중
	부의 분배	개발중
	재정능력	응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틀만에 2000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식량	12개월 동안 식량이 없었고, 더 이상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의 수
기술	교육의 질	TAFE 혹은 제3의 교육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
일과 가정의 균형	적절한 일과 가정의 균형	직장인 중 일과 가정생활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수

도메인 3: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개발지	공공의 개발지에 대한 접근성	좀 더 숙고해야 할 사항	
	공공지역의 모습	공공지역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주택	주택	주택가격이 중앙값	
		개인주택을 임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	
		소득의 30% 혹은 그 이상을 주택에 쓰는 사람의 수	
		단층주택의 비율	
대중교통	대중교통 부족	주택구입 가능 지수	
		지난 12개월 동안에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의 비율	
		대중교통 이용	출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
		도보, 자전거, 기차	개발중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의 기회	개발중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도로와 인도	도로와 인도에 대한 만족도	
		이산화탄소 배출	개발중
		가정의 에너지 사용	개발중
공기의 질	재생에너지 사용	개발중	
		공기의 질	NEPM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날의 수
물	넷가, 강의 상태	시냇물의 상태 지수	

	물 소비	개발중
	오페수의 재활용	가정용수를 사용후 모으는 가정의 비율
생물다양성	자생식물	생물물리(bio-physical) 지역의 DSE 데이터
	탄소제거율	자생식물의 분포 면적 데이터
	잡초와 해충	개발중
쓰레기 관리	가정의 쓰레기 발생량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 양
	가정의 쓰레기 재활용	재활용 가능하고 유기농 제품을 재활용하는 가정의 수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유기농 재활용 가능 쓰레기 양

도메인 4: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생동감있는 커뮤니티

예술과 문화적 활동	예술과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예술과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예술과 문화적 활동에 참여	지난달에 예술과 문화적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수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활동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개발중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	개발중
문화적 다양성	커뮤니티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곳이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사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도메인 5: 민주적인 참여가 활발한 커뮤니티

주민참여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
	주민활동의 참여	지난 12개월 동안 주민참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수
	지역의 여성의원	지역의 여성의원 수
	정치선거에 투표할 기회	자신이 신뢰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
	지역커뮤니티조직과 의사결정기구의 회원	지역의 의사결정기구 혹은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의 수

자료: John Wiseman, 2009, Developing and using local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Learning from Community Indicators Victoria, OECD Training Course.

부 록 5

KREI 지역 데이터 구축 목록

NO	항목	자료구축기간	주기	출처
1	총인구	2000년,2005년	5년	인구총조사
2	주민등록인구	1995년,1998년~2006년	1년	주민등록인구
3	65세이상인구	2000년,2005년	5년	인구총조사
4	65세이상인구	1998년~2005년	1년	주민등록인구
5	65세이상인구비율	1998년~2005년	1년	주민등록인구
6	인구밀도	1998년~2006년	1년	주민등록인구
7	국토(토지)면적	1998년~2006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8	인접도시까지거리	2002년		내부자료
9	통근인구	1995년,2000년,2005년	5년	인구총조사
10	통학인구	1995년,2000년,2005년	5년	인구총조사
11	지역밖통근인구	2000년,2005년	5년	인구총조사
12	지역안통근인구	2000년,2005년	5년	인구총조사
13	상주인구	2000년,2005년	5년	인구총조사
14	주간인구	2000년,2005년	5년	인구총조사
15	경제활동인구(15~65세)	2000년,2005년	5년	인구총조사
16	대학교(4년제)졸업이상인구	2000년,2005년	5년	인구총조사
17	사업체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18	종사자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19	제조업체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20	제조업종사자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21	서비스업체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22	서비스업종사자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23	도소매업체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24	도소매업종사자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25	정기시장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26	일반시장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27	백화점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28	쇼핑센터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29	대형점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30	전문점수	2004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31	도매센터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32	음식업및숙박업소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33	시중은행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34	특수은행및기타은행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35	새마을금고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36	노인복지시설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37	유치원개소수	2000년~2006년	1년	각시도 교육통계연보
38	초등학교개소수	2000년~2006년	1년	각시도 교육통계연보
39	중학교개소수	2000년~2005년	1년	각시도 교육통계연보
40	고등학교개소수	2000년~2005년	1년	각시도 교육통계연보
41	대학개소수	2005년		내부자료
42	도서관수	2000, 2005, 2006년		문화관광부 자료
43	사설학원개소수	2000년~2006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44	공연장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45	영화관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46	전시실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47	회관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48	도시공원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49	도시공원면적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50	자연공원면적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51	사회개발비지출	2000년~2005년	1년	재정연감
52	경제개발비지출	2000년~2005년	1년	재정연감
53	재정자립도	2001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54	지방세 징수액	1998년~2005년	1년	
55	보조금	2000년~2005년		재정연감
56	지가변동률	1996년~2006년	1년	
57	토지가격	2005년		한국감정평가원 내부자료
58	노후주택수,노후주택비율	2000년,2005년	5년	
59	농가수	1995년,2000년,2005년	5년	농업총조사
60	고소득농가수	2000년,2005년	5년	농업총조사
61	작목반수	2004년		내부자료
62	농가인구수	1998년~2005년	1년	
63	총세출	1999년~2005년	1년	세입세출결산
64	총세입	1999년~2005년	1년	세입세출결산

65	인터넷활용인구	2000년	-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인구
66	유치원아수	2000년~2006년	1년	각시도 교육통계연보
67	초등학교학생수	2000년~2006년	1년	각시도 교육통계연보
68	중학교학생수	2000년~2006년	1년	각시도 교육통계연보
69	고등학교학생수	2000년~2006년	1년	각시도 교육통계연보
70	유치원교원수	2000년~2006년	1년	각시도 교육통계연보
71	초등학교교원수	2000년~2006년	1년	각시도 교육통계연보
72	중학교교원수	2000년~2006년	1년	각시도 교육통계연보
73	고등학교교원수	2000년~2006년	1년	각시도 교육통계연보
74	농업및어업종사자수	1998년~2005년	1년	사업체기초통계
75	주민세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	2000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77	국민연금지급현황	1999년~2006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78	도로포장률	2000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79	상수도보급률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80	의료기관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81	의료기관병상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82	의료기관종사의료인력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83	임야면적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84	자동차등록대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85	주택보급률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86	경기장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87	등록체육시설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88	신고체육시설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89	환경오염배출시설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90	하수도보급률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91	국가지정문화재수	1999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92	지방지정문화재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93	문화재자료수	1998년~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94	시민단체수	2005년		행정자치부자료(050630)
95	마을공모사업수	2002, 2005년		내부자료
96	특허출원수	1998년~2002년	1년	내부자료
97	총전입자수	2000~2006년	1년	주민등록인구
98	컴퓨터활용농가	2000, 2005년	5년	농업총조사
99	현대식난방시설갖춘농가	2000, 2005년	5년	농업총조사
100	녹지율	1999년~2003년, 2005년	1년	각시도통계연보

부 록 6

KREI-RDI, 140개 시·군 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

지수	부문	지표	세부변수	부호	부문내 가중치		
지역경제력 지수	산업구조	산업기반	총사업체수	+	1/2		
		고용기반	경제활동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	1/2		
	소득수준	소득기반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	1/2		
		고소득 농가	3천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농가 비율	+	1/2		
	지자체재정력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	1/2		
		경제개발 투자력	총세출 대비 경제개발비 비중	+	1/2		
주민활력 지수	인적자원	인적기반	연평균 인구 증가율(최근 5년간)	+	1/4		
		경제적 유출 인구	지역밖으로 통근·통학자수	-	1/4		
		경제적 유입 인구	지역안으로 통근·통학자수	+	1/4		
		정보활용	컴퓨터 활용 농가 비중	+	1/4		
	주민활력	고령화율	65세이상 인구 비율	-	1/4		
		경제활력인구	주민등록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	+	1/4		
		교육수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대졸이상 인구 비율	+	1/4		
		커뮤니티 활력	공모사업대상 마을수	+	1/4		
		공공서비스 충족지수	교육여건	교원확보율	교원1인당 학생수	-	1/4
				사교육기반	사설학원 1개당 학원강사수	+	1/4
유치원교육기반	제곱킬로미터당 유치원수			+	1/4		
공교육 교육기반	제곱킬로미터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			+	1/4		
생활환경	식수 보급 현대화		상수도 보급율	+	1/5		
	하수 처리 현대화		하수처리율	+	1/5		
	이동 편리성		자동차 보급률	+	1/5		
	기피 시설	주민 1천명당 오염물질배출시설 수	-	1/5			
	접근성	대도시 및 중심도시와의 거리	-	1/5			
의료/복지	생활안정	주민등록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	1/4			

삶의여유 공간지수		노후안정	1인당 국민연금지급액	+	1/4
		의료인 확보율	의료인 1인당 주민수	-	1/4
		의료시설 기반	제곱킬로미터당 의료기관수	+	1/4
	녹색공간의질	공원 확보율	1인당 자연공원, 도시공원 면적	+	1/3
		녹지 확보율	어메니티 및 오픈스페이스 토지이용 비율	+	1/3
		녹색휴양공간	국립,도립,군립공원 및 지정관광지수	+	1/3
	문화공간의질	역사문화공간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수	+	1/4
		여유공간	주민 1천명 당 영화관, 공연장, 전시실,시군민회관수	+	1/4
		사서공간	주민 1천명 당 도서관수	+	1/4
		체육공간	주민 1천명 당 체육시설수	+	1/4
	주거공간의질	주택노후정도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	1/3
		주거기반	주택보급율	+	1/3
		주택의 현대화	현대식난방시설을 갖춘 농가주택의 비율	+	1/3

부 록 7

KREI-RDI, 165개 시·군 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

지수	부문	지표	세부 내용	부호
생활서비스	주택여건	주택신규화	20년 미만 주택 비율	+
	기초생활 여건	식수보급 현대화 하수처리 현대화 도로기반	상수도 보급률	+
			하수처리율	+
			도로율	+
			공교육기반 사교육기반	제공킬로미터당 학교수(초·중·고) 인구 1천명당 사설학원수
	복지여건	복지시설기반	제공킬로미터당 노인복지시설수	+
	의료여건	의료서비스 질 의료시설기반	인구 1천명당 의료인수	+
인구 1천명당 병상수			+	
문화체육 여건	문화시설기반 체육시설기반	인구 1천명당 영화관, 공연장, 전시실, 시군민회관, 도서관 수	+	
		인구 1천명당 체육시설수	+	
지역경제력	산업기반	사업체기반 고용기회	총사업체수 경제활동인구대비 총사업체종사자수 비중	+
		소득수준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
	지자체재정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
삶의여유공간	녹색휴양 기반	녹색휴양공간	1인당 공원면적	+
	녹지기반	녹지확보율	녹지율(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 지면적/토지면적)	+
주민활력	인구변화	인구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최근5년간)	+
	인구구조	경제활동인구 고학력인구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 인구 대비 대졸이상 인구 비중	+

참고 문헌

- 김용렬 · 김경덕. 2008. 「농촌지역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 이동필 · 성주인 · 김정섭 · 박주영. 「창조적 광역발전시대 농식품부 사업의 광역화 및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 김경덕 · 성주인 · 강민수. 2008a. 「화천군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및 농가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농촌정책 중장기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 김정섭 · 김광선 · 박주영. 2008b.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 이동필 · 박주영 · 최양부 · 유학렬 · 조영재. 2008c. 「시·군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방안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 김정섭 · 박주영. 2009. 「농업전망 2009(I)」. 제17장 “농어촌 기초생활권 전망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 김경덕 · 송미령 · 김용렬 · 김광선 · 최경은. 「농어촌산업정책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erkeley Hill, 2002, Determining DEFRA's Rural Statistics, London University

Dennis Trewin, 2005, Information Development Plan for Rural and Regional Statistic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7,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07」.

Countryside Agency et al., 2004, 「Rural and Urban Area Classification 2004」.

Hay, K. 2001, Rural Indicators and Rural Development. Final report,

Neighborhood Statistics on ONS, <http://www.neighbourhood.statistics.gov.uk/>

Eurostat, 2001, Proposal on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PAIS) Final Report Luxembourg, December 2001.

Trewin, Dennis, 2005, Information Development Plan for Rural and Regional Statistic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et al, 2007, Rural Household's Livelihood and Well-being: Statistics o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Household Income, UN.

U.S. Census Bureau, 2006 American Community Survey.

Wiseman, John, 2009, Developing and using local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Learning from Community Indicators Victoria, OECD Training Course

總務省, 2007, 「統計でみる市區町村のすがた」, 日本統計協會

内閣府, 2004, 「國民生活百書」, 國立印刷局

農林統計協會, 「農業集落カード利用ガイド」